

CITY OF ANGEL

COVER STORY

2019 히트 상품! DGB대구은행파크
엔젤스포노믹스를 꿈꾸다



New Diamond Angel



DAEGU FC 200th BIRTHDAY

KEEP CALM AND SUPPORT DAEGU FC

DAEGU FC, NO.12 WE ARE GRAZIE

smato DGB 대구은행 하나원큐 삼성모터스 스타디움 컨벤션웨딩

국내 최초 고구마 증류원액 목넘김이 부드러움

축구와 비즈니스

요즘 축구 보는 재미로 사는 저는 ‘축구’ 이야기만 나오면 귀가 쫑긋해집니다. 얼마 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그랬습니다. 모 시사프로그램에서 한 패널이 상대편을 비판하다가 문득 ‘축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구로 치면 아직 옛날 스타일이다. 공만 보고 우르르 몰려다닌다. 한 치 앞을 못 본다. 그러니 호응을 얻지 못한다. 넓은 시야로 공간을 봐야 된다.’

스치듯 지나는 말이어서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니다. 실제로 축구장에 가면 저도 몰래 “아니 아니... 이쪽으로 쭉야지. 공간이 비었잖아. 자꾸 몰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읊조리곤 합니다. 관중석, 그것도 DGB대구은행파크처럼 가깝고 생동감 넘치는 경기장에서 그라운드를 내려다보면, 저도 자연스럽게 너스레를 풀어놓습니다.

사실, 야구팬이었던 저는 처음에는 시원한 그라운드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자주 축구를 보다 보니 이것저것 눈에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감독이 어떤 전술로 나오는지, 어떻게 해야 축구를 잘할 수 있는지 어설프게나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축구가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다른 시각으로 축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업장은 경기장이요, 상대팀은 경쟁사, 감독과 선수들은 임직원, 그리고 관중들은 고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과연 우리 임직원과 함께 좋은 상품을 만들어 고객을 열광시키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공을 보며 우르르 몰려다니지는 않는지, 상대가 뻔히 알고 있는 패스를 하지 않는지... 참으로 돌아볼 게 많았습니다. 물론 그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축구경기는 또 다른 성찰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경기장을 가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분들이 자주 오는지, 광고판의 위치,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홍보영상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경기장 내부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일찍 와서 조금 멀리 주차합니다. 그리고는 가볍게 산책하며 주위 상권과 대박의 외부 분위기, 또 축구팬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대구스타디움 시절과 다르게 가족 단위 또는 청춘남녀 등 많은 사람들이 대구FC 유니폼을 입고 즐기듯 경기장으로 향했으며, 주위의 식당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경기장에서는 평소 자주 만나지 못했던 분, 특히 기업인들이 자연스레 인사하고 악수하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박이 새로운 비즈니스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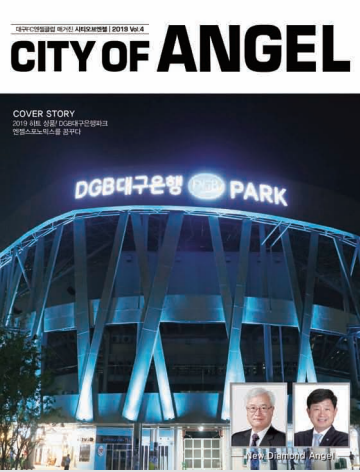
마침 누가 축구와 관련된 책을 권했습니다. <비즈니스와 축구>(테오 시어빌드, 캐리 쿠퍼 공저)라는 책입니다. 축구(프리미어리그)를 통해 비즈니스도 배우자는 취지였습니다. 저자들은 ‘축구에서 비즈니스를 배우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했고, 강신우 대한축구협회 기술국장도 추천사를 통해 ‘경영을 잘하려면 축구를 이해하라’며 ‘유연하면서도 규율이 살아있는 경영을 꿈꾸고 있다면 서슴없이 이 책을 권한다.’라고 축구와 비즈니스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침 대구FC엔젤클럽 매거진 이번호는 DGB대구은행파크를 중심으로 한 스포노믹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엔젤들이 스포노믹스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 축구도 즐기고 비즈니스에 대한 성찰과 가능성을 얻는다면 이것은 또 다른 대구와 엔젤의 축복일 것입니다.

대구FC엔젤클럽 회장 이호경

CITY OF ANGEL

대구FC엔젤클럽 매거진 시티오브엔젤
2019 Vol.4



2019년 한국축구 붐의 중심에 있는 DGB대구은행파크(이하 대팍) 야경. 도심 속에 위치한 대팍은 야간에도 형형색색 아름다운 조명으로 새로운 대구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표지사진 | 대구FC

아래는 최근 다이아몬드 엔젤에 가입한 김옥열 (주)화신 대표, 이기환 거한건설(주) 대표.

계간 | 2018년 10월 10일 등록

등록번호 | 수성, 바00011

발행일 | 2019년 9월 25일

발행기관 | (주)엔젤클럽

발행·편집인 | 이호경

편집장 | 김용하

편집위원 | 김종두, 강정영, 손지훈, 박다운, 조은비

제작 | 멀티에드(대표 김정미)

포토그래퍼 | 하제연, 대구FC

디자이너 | 이지은

인쇄 | (주)케이프린텍(대표 한금재)

(주)엔젤클럽

42064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만촌동, 호텔인터불고 대구)

전화 | 053-602-7307

팩스 | 053-602-7306

이메일 | daeguangel@naver.com



COLUMN ESSAY

4 축구와 비즈니스

COVER STORY

10 Report
2019 히트 상품! DGB대구은행파크
엔젤스포노믹스를 꿈꾸다

14 Interview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SPECIAL THEME

22 Who
엔시오가 누구예요? 지금은 엔시오시대

26 Where
엔시오를 찾아서! 대팍에서 만난 얼굴들

28 Story
엔시오를 들려줘! 스토리가 있는 엔시오 속으로



ANGEL WITH US

- 32 다이아몬드 엔젤 列傳
이기환 거한건설(주) 대표
- 36 엔젤과 문화
송준기 대구세계합창축제 조직위원장
- 40 엔젤 기업탐방
(주)다운PLUS 대표 박민천 엔젤
- 44 Photo Essay
- 46 엔젤 브리핑
- 50 Angel & Life
- 52 엔젤 포토존

DAEGU FC REPORT

- 56 대구FC 소식
- 60 엔젤 앤 플레이어
- 김선민(MF), 김동진(DF) 선수
- 신창무(MF) 선수

HALF TIME TALK

- 68 Angel Insight
- 니들이 R리그 알아?
- 흙 속의 진주를 찾아서 : 박기원 엔젤
- 춘천 가는 길 : 박성수 엔젤
- 76 현장을 가다
팀 K리그 VS 유벤투스FC 관람기
- 78 안용모의 세계의 축구 현장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구장을 가다
- 82 특별기고
대구FC엔젤클럽을 알리자

ANGEL CAR DIARY

- 86 엔젤카 다이어리
- 100 엔젤클럽 SNS 접속방법
- 101 엔젤클럽 스폰서
- 102 다이아몬드 엔젤
- 104 엔젤 명단
- 115 엔젤클럽 가입방법
- 116 엔젤클럽 가입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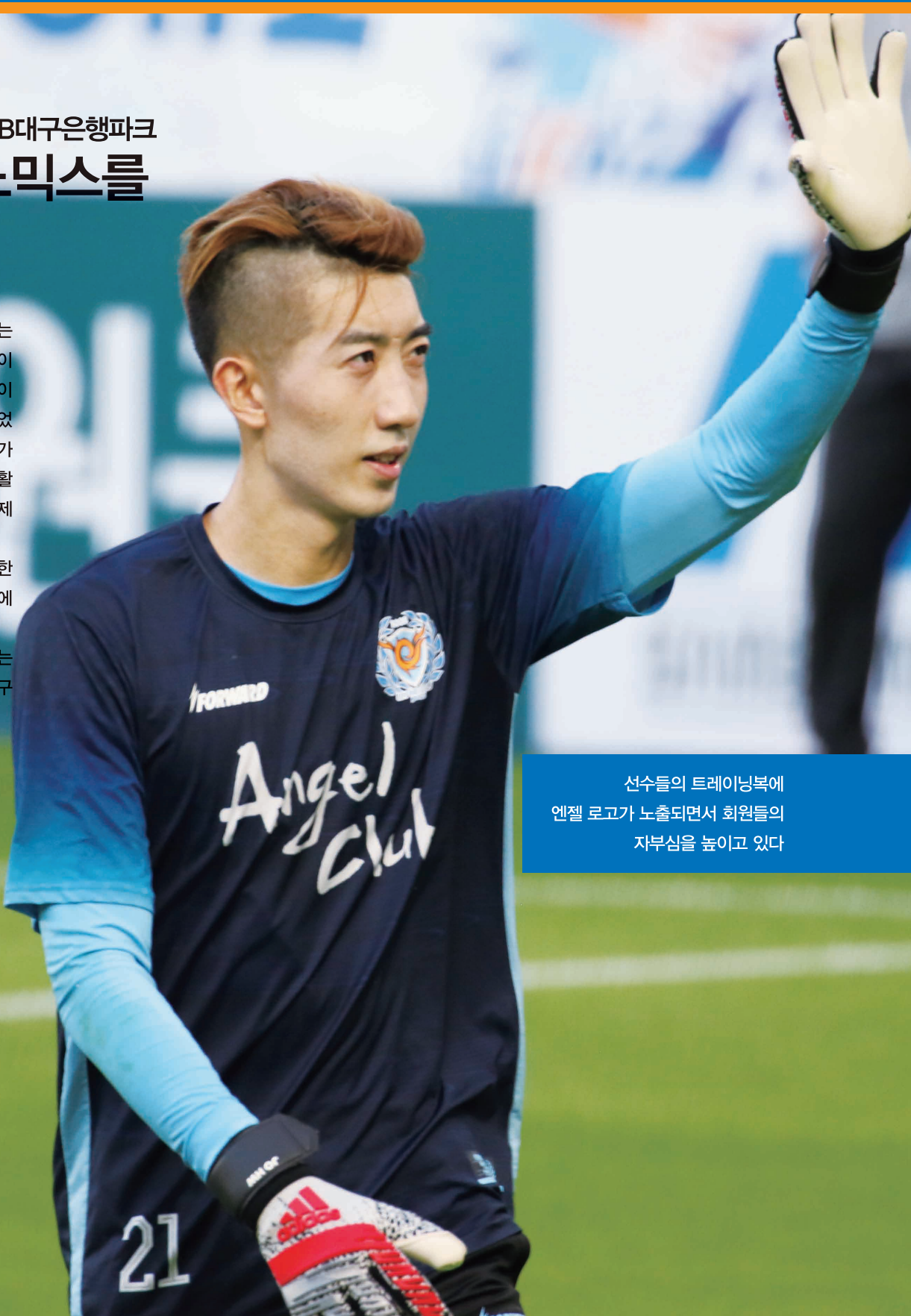


COVER STORY

스포츠는 살아 있다. 엔젤스포노믹스

2019 히트 상품! DGB대구은행파크 엔젤스포츠노믹스를 꿈꾸다

2019년 한국축구 붐의 중심지는 단연 DGB대구은행파크, 대팍이다. 대팍은 연일 매진 행진을 이어가면서 1만 관중 시대를 열었으며, 중계효과도 뛰어나 광고가 줄을 잇고 있다. 주위 상권은 활기차고, 경기가 열릴 때면 축제 한마당이다. 대구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출범한 대구FC엔젤클럽도 이제 대팍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스포츠를 통해 경제를 일으키는 스포노믹스. 엔젤이 꿈꾸는 대구 사랑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선수들의 트레이닝복에 엔젤 로고가 노출되면서 회원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있다

Photo by epitone_fc38

초기 ‘시민구단’ 명분에서 이제는 ‘경제효과’로

대구FC엔젤클럽(이하 엔젤클럽)이 DGB대구은행파크(이하 대팍) 시대를 맞아 ‘스포노믹스’를 꿈꾸고 있다. 스포노믹스(Sponomics)란 스포츠(Sports)와 경제(Economics)의 합성어로 스포츠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뜻이다.

엔젤클럽의 경우 2015년 출범 당시만 하더라도 ‘축구사랑을 통한 대구사랑’이 핵심 콘셉트였다. 지역에서 뿌리내린 중장년층이 ‘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를 고민하다 찾아낸 것이 ‘위기에 빠진 시민구단 대구FC를 명문자립구단으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런 ‘명분’은 당시 초기 멤버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 둘 지역의 기업인과 전문직으로 번져나갔다. 릴레이식으로 확산되던 이들의 명분은 프로축구의 ‘프로’라는 의미 대신 ‘시민구단’, ‘우리 팀’이 핵심이었다. 당시 대구FC는 2부리그 강등, 텅 빈 경기장, 스타플레이어 부재 등 ‘프로축구’라는 관점에서 상품성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신 ‘국내 최초 시민구단’과 ‘위대한 시민의식’을 매치업시켰다. 평소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초창기 멤버들은 대구FC를 ‘집’이 아니라, 대구시민이 주인이 되어 가슴으로 안고 가야 할 ‘우리 팀’으로 인식하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했다.

초창기 멤버들은 소수였지만, 대부분 오피니언 리더들로 홍보 효과는 컸다. 이들은 구단에 대한 직접적인 후원금은 물론 대구FC 홍보와 시민의식 확산을 위한 광범위한 활동을 펼쳤다. 자체 비용을 들여 계간으로 엔젤클럽 매거진 <시티오브엔젤>을 발간했고, 엔젤 전용 앱을 만들었다. 엔젤클럽과 대구FC 관련 컨벤션 행사 개최는 물론, 온·오프라인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구단을 홍보하고, 시민구단의 존재를 알렸다. 여기에 엔젤들의 직접적인 비용 외에 재능기부가 잇따랐다. 초기 엔젤클럽의 목표는 시민의식, 주인의식을 일깨우는 것이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대구FC를 살리는 것이 대구를 사랑하는 길이고, 거기에 시민이 주인으로 나서야 한다고 외쳤다. 마침내 이런 외침들은 지역 곳곳에 퍼져나갔다. 지역 언론에서도 ‘대구DNA와 엔젤’ ‘대구사랑운동’ ‘시민의 힘은 강하다’ 등의 내용을 다루는 등 엔젤정신과 잠자는 대구정신을 깨웠다. 엔젤클럽 ‘대의명분’의 시절이었다.



대구FC엔젤클럽은 전용구장 시대를 대비해 건립 전부터 ‘만 원의 만원’ 캠페인을 전개했다. (사진은 대구스타디움에 든 만 원의 만원 홍보 영상)

스포노믹스를 실감케 하는 DGB대구은행파크 경기장 내 광고



‘대팍’의 대구은행 네이밍 라이츠 ‘대박’

‘이상주의자’ 같은 엔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으나 엔젤클럽은 2017년 초기 1,004명 회원 유치를 달성하면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 분기점에는 ‘대구 축구전용구장(현재 DGB대구은행파크)’이 있었다. 당초 ‘시민구단’이라는 대의명분으로 엔젤 회원들을 확대하고, 대구FC 홍보에 나섰던 엔젤클럽은 새로운 메시지가 필요했다. 바로 ‘축구’였다. 2~3년 동안 대구스타디움을 경험한 엔젤 회원들. 그곳에는 ‘명분’만 있고 ‘축구’는 없었다. 마침내 축구전용구장이 첫 삼을 뜨면서 엔젤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바로 ‘코즈마케팅’의 시대다. 코즈마케팅은 하버드대 마이클 포터 교수가 제시한 공유가치창출(CSV : Creating Shared Value) 전략의 실천 방안으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익과 개별 기업 및 개인의 이익을 동시에 얻는 게 목표다. 엔



1호 다이아몬드 엔젤 (주)삼보모터스가
대박 전광판에 노출되고 있다.

젤클럽은 우선 축구전용구장이 생길 경우, 대구지역 축구문화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런 변화가 비즈니스로 연계될 때 대구는 축구를 통해 '지역사회통합'(명분)과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경제적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다. 코즈마케팅의 개념을 활용한 것이다.

우선, 엔젤클럽은 축구전용구장 완공을 앞두고,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장과 함께 경기장이 가득 차는 '관중효과'가 크다고 보고, 월 1만 원이면 대박을 만원시킬 수 있다. 엔시오(엔젤+소시오 : FC바르셀로나의 팬 모임) 활성화에 주력했다. 바로 '만 원의 만원' 캠페인이었다. 엔젤클럽 회원들은 구단에 요청하여 '만 원의 만원' 캠페인을 전광판을 통해 홍보했고,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지를 뿌렸다. 자체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각종 모임에 방영했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축구전용구장의 가치를 알렸다. 축구전용구장은 대구에 새로운 스포츠문화시대를 열 것이라고 소리 높여 외쳤다. 대구지역의 각종 경제모임에서 엔젤클럽과 대구FC의 가치를 홍보했다. 스포츠산업의 가능성을 알렸다. 이런 노력과 함께 대박이 개장되자, 그 효과는 놀라웠다. 많은 사람들이 대박에서 스포츠의 참맛을 느끼고, 축구가 갖는 지역통합의 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식은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됐고, 대구FC에 대한 벤치마킹과 함께 엔젤클럽에 대한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의 대박 매진과 관중 1만 시대가 전적으로 엔젤의 공이라 할 수는 없지만, '만 원의 만원'과 같은 캠페인이 한몫한 것은 틀림없다.

엔젤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대박 시대를 맞아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꿈꾸고 있다. 그 길 역시 '대구사랑'이라는 명분과 맞닿아 있다. 이에 따라 엔젤클럽 집행부는 올 초부터 매주 회의를 개최하고, 어떻게 하면 대박과 대구FC를 근간으로 스포츠와 문화, 관광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지 고민하고 있다. 답은 먼 데 있지 않았다. 결국 엔젤 회원이었다. 엔젤클럽 회원 대부분이 기업인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이 경기장에 모여 축구를 즐기면서 비즈니스의 기회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스포츠마케팅 통해 대박을 스포노믹스의 거점으로 개발

앞서 언급한 코즈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시민구단이라는 '명분'만 강조했다면, 이제 여기에 상품가치가 있는 '대박'과 '축구'를 바탕으로 마케팅과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접목할 수 있다. 무엇보다 건설, 서비스, 디자인, IT, 의료, 문화, 관광 등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엔젤들이 활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대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대구는 국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스포츠믹스'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많은 엔젤클럽 회원들이 경기장을 찾고, 스포츠를 즐기고 대구를 사랑하면 시민구단 대구FC의 재정 자립도는 높아질 것이며, 자연스럽게 대박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선순환적 구조가 완성되는 셈이다.

물론 과제도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박의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으며 성적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요즘처럼 분위기가 좋을 때 상품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성적 외에 경기장으로 엔젤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경기장 내 엔젤을 위한 홍보 공간 개발과 각종 교류의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거듭 밝히지만, 엔젤의 맨 파워는 강하다. 그 맨 파워가 대박에서 더 빛을 발할 때 대박은 스포츠와 비즈니스, 모든 면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한국축구 히트 상품 대박이 이제는 스포노믹스의 히트 상품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⁴⁾

엔젤의 성지 대박에서 엔젤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Photo by 하제연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대구축구의 희망을 적립하다

대답. 대구FC엔젤클럽 이호경 회장 | 사진. 대구FC엔젤클럽, DGB대구은행 홍보부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과 이호경 대구FC엔젤클럽 회장은 구면이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지난해 7월 17일, DGB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이뤄졌다. 김태오 회장이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이호경 회장은 당시 2018년 러시아월드컵에서 국가대표로 승승장구했던 조현우 선수의 사진에 친필 사인을 받아 김 회장에게 전달했다. '축구를 통해 대구를 사랑한다'는 엔젤정신을 전달한 것이다. DGB대구은행 역시 시민구단 대구FC를 통해 대구를 더욱 사랑해달라는 의미가 포함됐다. 접견실에서는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인 대구 축구전용구장의 모습이 한 눈에 들어왔다. 두 사람은 창가에서 미래의 'DGB대구은행파크'를 내려다보며, 여기에 대구축구뿐만 아니라 대구의 미래가 있다고 예견했다. 실제로 요즘 대구는 한국축구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묵묵히 대구FC를 후원하는 언성히어로(Unsung hero) 김태오 회장이 있다. DGB대구은행은 대구와 대구축구의 희망을 적립하는 희망은행이기도 하다. 대구축구의 희망을 적립하러 이호경 회장이 직접 찾아 나섰다. 김태오 회장은 대구FC엔젤클럽 매거진을 펼치며, 대구가 진정한 'CITY OF ANGEL'이 됐으면 좋겠다고 환하게 반겼다.

Q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처음 뵈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회장님도 잘 지내셨는지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지역의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곳곳을 누비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났다고 말씀하시니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과 함께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Q 들어오면서 DGB대구은행 본점 1층의 '위상재 인爲商在人-대구은행은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사람에게 달려있다'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회장님의 경영 철학이 엿보이는데요. 1년이라면 길지 않은 시간인데, 그 기간 동안 DGB대구은행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난해 6월 지주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여러 사정과 요청에 의해 올해 초 DGB대구은행장도 함께 겸직을 하며,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하루 24시간

축구전용구장이 설립된 후, 지역민들과 축구팬 여러분들이 온 가족과 함께 즐기고, 인근의 공원처럼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보내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에 보답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이제는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DGB대구은행, DGB금융그룹을 만들어가기 위해 혁신적인 변화를 기반으로한 디지털화와 글로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위상재인爲商在人'이라는 말에서처럼 이러한 모든 변화는 결국 사람에서부터 시작되고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전 직원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고자 저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대구축구도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도 DGB대구은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대구FC와 DGB대구은행파크가 한국축구 열풍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구FC의 메인 스폰서로서 소회가 어떠신지요.

DGB대구은행은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대구FC의 메인스폰서로 꾸준히 후원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FA컵 우승과 러시아 월드컵에서 조현우 선수들의 선전을 지켜보며, 메인스폰서로서 뿌듯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축구전용구장이 설립된 후, 국내 프로축구 사상 최초로 경기장의 명칭사용권에 대한 제의가 있었을 때는 기업의 홍보 목적보다는 지역민들과 축구팬 여러분들이 온 가족과 함께 즐기고, 인근의 공원처럼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열띤 응원 속에 선수들이 더욱 큰 능력을 발휘한다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홍보로까지 이어질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 진심이 통했는지, 아시아챔피언스리그와 프로축구에서 대구FC 선수들이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최근 K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며, 지역민과 축구팬들의 열정이 시너지를 발휘함으로써 현재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Q 대구FC는 DGB대구은행 로고가 있는 유니폼을 입고 DGB대구은행파크에서 뛰는 팀이니 각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 대구FC는 어떤 의미인지요.

대구FC는 DGB대구은행을 떠올리기에 앞서 모든 대구시민들의 친구이자,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후원을 통해 DGB대구은행의 로고가 있는 유니폼을 입고 운동장을 누비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으며 많은 팬분들께서도 같은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서 응원을 해주고 있지만, 대구FC는 DGB대구은행을 위한 선수가 아닌 우리 '대구'를 위한 선수들이며 동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FC 선수들이 열심히 경기장에서 땀 흘리는 만큼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DGB대구은행의 로고를 빛내며 제3의 홍보맨이 되어주는 모습들은 저희에게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입니다.

Q 사실 저는 대구축구가 이렇게 바뀌도록 큰 역할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회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구축구와 전용구장의 가치를 알아보시고, 차원이 다른 지원을 하셨다고 봅니다.

- 1 DGB대구은행에서 지난 해 첫 만남을 가진 이호경 대구FC엔젤클럽 회장(왼쪽)과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오른쪽)
- 2 김태오 회장이 2018 FA컵 우승 시상식에서 대구FC 선수단, 그리고 내빈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과찬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네요. 먼저, 대구FC 선수들의 아버지이자 친구인 조광래 대표이사님께서 선수들을 잘 이끌어주시고, 전용구장 건립과 지원에 힘써주시는 권영진 대구시장님과 앞에 계신 대구FC엔젤클럽의 이호경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대구FC를 사랑해주시는 대구시민 여러분의 열정이 더해져 지금의 대구FC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열정에 DGB대구은행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영광이지요.

조현우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의 대구FC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들 중 조현우 선수의 눈부신 활약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러시아월드컵과 각종 국제대회에서 신들린 선방을 보여주며, 대구의 위상,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치며 대한민국 축구의 부흥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선수이지요. 저희 DGB대구은행이 메인 스폰서로서 조현우 선수를 어찌 응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조현우 선수에 대한 응원은 당연한 것이며, 이는 조현우 선수뿐만 아닌 우리 모두에 대한 응원의 마음도 함께 담겨있습니다.

Q 더 놀라운 것은 바로 DGB대구은행파크입니다. 회장님 참 뵈었을 때 제2본점 접견실에서 전용경기장을 내다보며, 그 가능성을 얘기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전 직원의 공모로 이름이 붙기도 한 만큼 애착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경기장 명칭 공모 당시 저희 직원들의 공모 열기가 뜨거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DGB대구은행파크라고 네이밍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대형 금융사보다 작지만 강하고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저희 DGB대구은행처럼 우리 대구FC도 세계 명문 구단으로 거듭나리라는 염원을 담고, 대구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공원에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파크'라는 명칭을 담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임직원 모두는 'DGB대구은행파크'를 자랑스러워하며, 경기가 있는 날이면 많은 임직원들이 경기를 보러 가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Q 대구FC가 승리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특판 DGB대박예금', 대구은행 카드 결제 시 DGB대구은행파크 매점 할인 등 은행이기에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마케팅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또 앞으로 어떤 스포츠 마케팅을 염두하고 계신지요.

스포츠와 연계된 마케팅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케팅과 이벤트는 결국 고객에 대한 편의와 즐거움 그리고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DGB대구은행에서는 대구의 대표적인 스포츠라 할 수 있는 야구, 축구 그리고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은 골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대구FC가 최근 지역민과 축구팬 여러분들께 큰 사랑을 받으며, DGB대구은행도 다양한 마케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FC에 대한 성원이 한층 더 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저희 DGB대구은행처럼 우리 대구FC도 세계 명문 구단으로 거듭나리라는 염원을 담고, 대구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공원에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파크'라는 명칭을 담았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들이 대구FC의 성공과 함께 지역민과 축구팬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려 모두가 Win-Win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Q DGB대구은행파크가 대구의 사랑방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연고 프로팀 경기장에 지역의 주요 경제인들이 모여서 축구를 보면서 비즈니스도 한다고 하는데, DGB대구은행파크도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DGB대구은행파크는 대구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고, 경기가 있을 때마다 기업인, 공공기관 관계자 분들을 포함하여 소모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공통의 관심사와 흥미를 가지고 DGB대구은행파크에서 만남을 갖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를 관람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경기장에 모여 같은 팀을 한목소리로 응원하고, 함께 받을





1



2

구르며 승리를 만끽한다면 자연스럽게 친밀도도 높아지고,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논의된다면, 그 성과나 성공률도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요?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행'이라는 말처럼 백마디 말을 듣기보다 한 번의 경험에 더 크게 느껴지실 테니, 지금 성공해야 할 비즈니스가 있다면, 꼭 한번 경기장에 방문하셔서 그 기분을 만끽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 특히 대구FC엔젤클럽 회원 중에는 기업인들이 많아 벌써부터 DGB대구은행파크에 많은 기업인들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분들이 커뮤니티를 형성, 지역기업들 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구FC엔젤클럽이 일으키는 이러한 스포츠비즈니스 활성화와 경제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비즈니스나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는 숫자로 표현되며, 그 성공 여부를

회원이 1,500여 명에 이르는 대구FC엔젤클럽 회원들이 지역 내에서 만들어내는 경제 효과는 숫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과 관계, 그리고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되지요. 그러한 성공의 요소 중 하나가 커뮤니티입니다. 현재 커뮤니티는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커뮤니티에 속하게 되고 이러한 연결은 우리의 삶을 지속시켜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커뮤니티는 곧 비즈니스와 직결이 되지요. 그런 점에서 총 회원이 1,500여 명에 이르는 대구FC엔젤클럽 회원들이 지역 내에서 만들어내는 경제효과는 숫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단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커뮤니티인 대구FC엔젤클럽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현물 후원과 재능기부는 물론, 지금 제가 인터뷰하고 있는 엔젤클럽 매거진에 이르기까지 대구FC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응원

하며, 앞으로 대구FC엔젤클럽의 행보가 저 또한 기대됩니다.

Q 대구FC엔젤클럽 회원 중 대부분이 중소기업인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DGB대구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같이 지역사회 끊임 없이 기여하는 배경이 있다면,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DGB대구은행은 지난 반세기를 지역과 그리고 지역의 중소기업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전체 대출의 70%가 기업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그중 90%를 중소기업에 지원할 만큼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급변하는 환경 속에 지역 주요 산업의 부진으로 인해 지역의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역에서는

DGB대구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DGB대구은행은 지역경제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기반 산업 및 취약업종에 대한 대출금 상환유예 제도를 대폭적으로 시행하였고,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무료 컨설팅 및 특별자금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으며, 보다 차별화된 금융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신사업 발굴사업과 함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최초로 설립되는 DGB Fium-Lab 및 창업클러스터 조성 등의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넣을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Q 이 외에도 DGB대구은행은 지역민 건강 증진, 문화 발전 등 지역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 문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향후 스포츠 문화 발전을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DGB대구은행, DGB금융그룹은 지난 반세기 동안 지역민들의 사랑과 열정으로 지금의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역민의 사랑에 보답하고, 지역의 대표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콘텐츠를 통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Q 대구FC엔젤클럽 발전을 위한 조언이나 바람이 있다면.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구단인 대구FC가 지역민의 사랑과 축구팬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시민구단도 명문구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사례의 뒤에는 지금 함께 계신 이호경 회장님을 포함한 대구FC엔젤클럽 여러분들이 있으십니다. 지금처럼 지역과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누구나 부러워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 커뮤니티로 더욱 발전하길 기원드리며, 또한 이러한 성공사례들이 널리 전파되어 스포츠를 통한 문화공동체가 지역의 시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축구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 1 지난 1월에 열린 FA컵 우승기념 축승회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2019년 대구FC 공식 유니폼을 전달하고 있다.
- 2 DGB대구은행파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배지숙 대구시의회의장, 조광래 대구FC 대표이사, 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선수들이 웃는다! 또 하나의 엔젤, 엔시오

SPECIAL THEME

WHO

ANCIO



엔시오가 누구예요? 지금은 엔시오시대

엔시오! 월 1만 원으로 대구사랑 실천

대구는 지금 '엔시오시대'다. 대구FC엔젤클럽(이하 엔젤클럽)의 정신을 공유한 엔시오제도 도입에 따라 엔젤문화도 풍성해지고 있다. 엔시오는 '엔젤'과 '소시오'를 합친 이름으로 엔젤클럽과 스페인 프로축구팀 FC바르셀나의 정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엔젤클럽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월 1만 원으로 대구사랑을 실천하는 시민단체이다. '만 원으로 만원만족 관중을 만들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엔시오 가운데는 서울, 경기도 등 타 지역에서 진정한 후원의 뜻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도 있어, 엔젤정신의 모범을 보여준다. SNS 상에서도 소액으로 자신이 응원하는 팀을 후원할 수 있어 개인스폰서라는 자부심이 생긴 것은 물론 혜택까지 많으며 반응이 뜨겁다. 또한 축구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등 활동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엔젤 배지를 카드와 함께 사용하며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순수한 후원정신 문화로 승화시켜야

엔시오 가입 후 엔젤클럽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다. 엔시오 밴드에 우선 가입해 활동하다가 엔젤의 뜻에 감동해 엔시오가 된 박성호 엔시오는 주위에 엔시오 활동을 알리던 중 원동국 엔젤(디아이크리아동대문 대표)을 추천했다. 박성호 엔시오는 최근 자신도 엔젤로 변신, 엔젤클럽 운영이사로 활동하며 엔시오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정구환 엔시오는 시즌 전에 엔시오에 가입한 경우이다. 그는 개막전 당시 대구로 오는 KTX 승차권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는 등 '사석불가'를 실천했다. 타 지역에 있지만 대구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 그는 “작은 액수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시즌 전부터 후원하게 됐다.”고 말한다. 수도권에 살면서도 여러차례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내려왔을 정도다. 그는 경기 관람도 중요하지만, 후원의 정신에 더 끌렸다고 말한다. 앞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엔시오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다.

이규현 엔시오는 순수한 정신으로 후원을 시작했다. 8만 3,000원과 1만 원 사이 중간 정도의 후원제도 마련되었으면 한다는 그는 요즘 서울에 있는 대구사람은 대구FC때문에 살맛이 난다고 말한다.

입장권 정책 변경은 올 시즌에는 혼란이 올 수 있는 만큼 내년에 새롭게 조정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월 1만 원은 엔시오 회비로 하되, 30% 정도 할인 정책을 두는 것에 긍정적이다. 다만, 자리는 엔젤존이 아니라 전 경기장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광저우전 때 경기장에 갔다가 엔시오의 존재를 알고 가입한 대학생 오승준 씨. 아직 학생 신분인 만큼 현행 제도에 만족했다. 정원호 엔시오는 지난해부터 대구FC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보



Photo by 김은중

대구FC를 사랑한다면 지금 엔시오로!

- 회원 수** 475명(2019. 8. 29 기준)
가입방법 엔젤클럽 홈페이지, 앱
가입혜택 - 한 시즌 12경기 관람 혜택 (후원금만큼)
 - 엔시오 멤버십카드
 - 엔젤클럽 배지 증정

엔시오 밴드를 소개합니다



<https://band.us/@fcdagu>

학생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대구FC의 소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회원들끼리 팬심을 함께 나누고 티켓 품앗이도 하며 자유롭게 교류하니 대구FC 응원이 두 배로 즐거워집니다!



며 대구FC와 가까워졌고, 월 1만 원 정도라 부담없이 엔시오에 동참하게 됐다고 한다.

엔시오에서 엔젤로, 시민이 주인이 되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엔시오 열기는 대단하다. 더불어 엔시오 밴드 또한 뜨겁다. 특히, 엔시오 중에 엔젤의 활동을 확인하고, 엔젤로 경로를 바꾸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최미연, 최윤연 자매는 엔시오에서 엔젤로 돌아왔다. 최미연 엔젤은 DGB대구은행에 근무하는 대구FC의 후원천사이다. 두 자매는 예전에 아버지가 대구FC 주주공모에 참여한 1대 주주이다. 그 영향으로 이번에 대구사랑에 나섰다. 아버지에게 이어 딸들도 엔젤로 새로운 대구FC의 주주가 된 것이다. 대구FC에 대한 내리사랑! 제2의 시민주주 운동, 엔젤! 시민구단만이 가질 수 있는 스토리이다. 엔젤도 마찬가지다. 시민구단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위대한 시민정신이 엔젤로, 대구FC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국내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신이며 이 정신이 대구축구 붐을 만들고 대구를 변화시키고 있다. 엔시오에 가입했다가 엔젤로 갈아탄 많은 이들 덕분에 아름다운 엔젤 스토리는 끊이질 않는다.

일부에서는 엔시오로 추천받았으나, 엔젤을 자청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 검색 중 팬 카페에서 엔젤클럽을 알게 되어 엔시오에 가입한 강홍규 엔시오는 장성옥 신창공업사 대표를 엔시오로 추천했다. 즉각 엔젤카를 타고 출동한 대구FC엔젤클럽 김종두 사무총장은 장성옥 엔젤을 보고 가슴 뻘뻘했다고 한다. 젊고 열정 가득한 장성옥 대표는 부친으로부터 가업을 잇고 있다. 스포츠가 좋아서 기여하고 싶어 엔시오 추천을 받았으나, 엔젤로 시민구단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현장에서 열심히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모습과 그 속에서도 시민구단 대구FC를 위해 후원하는 모습은 아름다움 그 자체이다.

요즘에는 경기 종료 후 팬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엔시오에 가입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리양보' '자발후원' '대구사랑' 등으로 엔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자연스레 엔시오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엔젤의 슬로건 '축구는 대구다! 대구는 엔젤이다!'가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슈퍼울트라 그레이트 엔젤, 엔시오! 

WHERE

엔시오를 찾아서! 대박에서 만난 얼굴들

ANCIO

김기주, 신형섭 엔시오



직장 동료이자 절친인 김기주, 신형섭 엔시오는 대박이 생긴 이후로 프리미어 리그를 즐기듯 대구축구 맛에 푹 빠졌다. 선수만큼 뜨거운 대구FC엔젤클럽의 열정에 반해 엔시오로 가입했다는 그들의 응원 메시지를 들어 본다.

Bom Dia! We are Daegu! 팬으로서 항상 열정적인 경기를 보여주는 대구 FC 선수들에게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와 함께 대구FC를 응원해주시는 대구 FC엔젤클럽 엔젤, 엔시오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대구FC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는 엔시오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세징야, 김대원 선수의 열렬한 팬인데요, 두 선수! 대구시민 모두가 항상 가축처럼 응원하고 있습니다! 세징야 선수가 공만 잡으면 가슴이 설레고, 김대원 선수가 그라운드를 누빌 때면 그 씩씩한 모습을 닮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대구시민들에게 훌륭한 선수로 기억되기를 기원합니다. 일교차가 큰 시기, 혹시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서 춥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엔젤, 엔시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열띤 응원과 함께 경기장에서 뽀개주세요. 대구FC 화이팅!

김령경 엔시오



회사 대표인 조승우 엔젤의 추천으로 엔시오가 되었다는 김령경 씨. 엔시오가 된 이후 축구에 대한 애정은 물론이고 대구FC엔젤클럽 홍보에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한다며 환하게 웃음짓는다. 대구FC의 상위 스플릿을 기원하며 메시지를 전한다.

직장, 집, 직장, 집. 반복되는 패턴에 무료함을 느끼던 어느 날 조승우 대표의 권유로 인생 첫 축구를 직관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축구 물이나 선수들을 잘 몰라 걱정했지만, DGB대구은행파크를 가득 메운 관중들과 그들을 위해 죽어라 뛰는 선수들의 모습을 마주하면서 저도 모르게 “쿵! 쿵! 골!”을 외치고 있었죠. 지금은 대구FC에 푹 빠져서 홈경기가 있는 날이면 빠짐없이 경기장에 나갑니다. 물론 유니폼도 모으고 있고요! K리그 흥행의 중심에서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 우리 선수들 항상 응원합니다. 열심히 뛰는 모습이 너무 좋지만 부디 부상만큼은 조심하길 기원합니다. 상위 스플릿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리고 대구FC와 대구FC엔젤클럽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멋진 콘텐츠도 많이 만들겠습니다. 대구FC, 그리고 대구FC엔젤클럽 감사합니다!

김준현, 문요한 엔시오



김준현, 문요한 엔시오는 함께 홈 경기가 있을 때면 어김없이 DGB대구은행파크를 찾는 직장 동료다. 대구FC의 열렬한 팬인 만큼 지난 5월에 엔시오에 가입해 더 큰 합성과 열정으로 대구FC를 응원한다며 힘찬 승리의 목소리를 보낸다.

저희는 올 시즌 대구FC 경기를 보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본 듯 일상생활에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시즌 초반의 반짝 흥행일까 싶어 주변 사람들까지 꼬드쳐 대박을 가곤 했는데, 얼마 전 7번째 매진을 기록했더군요. 대구FC와 대박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대구FC의 자라는 활동량이라고 생각해요. 지치고 쓰러질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뛰는 모습을 보며 응원하는 힘을 얻습니다. 지고 있더라도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기에 응원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팬서비스는 정말 최고예요. 한편으로 올 시즌 성적이 너무 좋아 우리 선수님들을 다른 곳에서 데려갈까 걱정됩니다. 오래오래 대박에서 함께해요. 대구FC, 대구FC엔젤클럽!

김기나 엔시오



지난 5월 대구FC엔젤클럽 엔시오가 되고 난 뒤 대구FC 덕후가 되었다는 김기나 엔시오. 경기 때면 가장 먼저 달려와 관중석 맨 앞줄에서 응원을 하는가 하면, 선수 얼굴이 들어간 부채 굿즈를 직접 만들어 추천 릴레이까지 펼치고 있다.

요즘은 대구FC 경기가 있으면 그 전날부터 설렘니다. 예전에는 월드컵 아니면 관심 없었지만 요즘 대세는 대구FC라고 떠들썩하니 찾아보기 시작했죠. 대구FC엔젤클럽 홈페이지에서 엔시오에 대해 알아보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덕질의 시작이었습니다! 좋아하는 김대원 선수가 1득점하는 것을 두 눈으로 처음 본 그날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하도 소리를 질러, 후두염이라네요.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제가 엔시오에 가입하고, 대구FC를 늘상 보러다니니 주위 사람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엔시오를 전파했죠. 특히 저희 병원 원장님인 정재민 엔시오와는 마주칠 때마다 늘 축구 이야기꽃을 피운답니다. 내년에는 전 홈경기를 직관할 계획입니다. 하이라이트 장면을 제 눈에 꼭 봐야겠습시다! 우리 대구FC 선수들 다치지 말고 오래오래 선수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지켜보겠습니다!

STORY

엔시오를 들려줘!
스토리가 있는 엔시오 속으로

ANCIO

열정맨!
축구를 외치다

구본일 엔시오

“시민의 힘으로 대구의 구단을 응원하고 대구를 부흥시키자는 대구FC엔젤클럽의 철학이 저를 엔시오로 이끌었습니다.” 경북 하양에서 음식점 ‘라쿤푸마라탕&마라상귀’를 운영하고 있는 구본일 엔시오. 그의 가게에 들어서는 순간 ‘마라탕’ 내음보다 진한 대구FC팬의 향기가 먼저 사람을 반긴다. 한쪽 벽면에는 대구FC 유니폼과 사진들이 가득 전시되어 있다. 구본일 엔시오는 대구FC 서포터즈 ‘구름’에서 활동하다 지난 4월 엔시오가 되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 네 아이의 다복한 가장으로서, 생업을 책임지는 대표로서 본분을 다하는 그의 축구사랑은 심이 없다. 대구사람이기에 대구FC를 응원한다는 그는 소문난 대구FC 홍보대사다. 주위에 대구FC를 전파하는 것은 물론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마저 그가 전시한 대구FC 기념품들을 보고 자연스레 팬이 된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언제나 그럴듯 DGB대구은행파크에 먼저 도착해 엔시오는 물론 팬들에게 깃발을 나눠주고 응원을 리드한다. 선수단이 경기장에 출근할 땐 직접 행렬을 이끌고 ‘에스코트 응원’을 나가 나팔을 불고 응원가를 부른다. 일도, 응원도 앞장 서 밀고 나가는 열정맨 구본일 엔시오. 직접 뛰지는 못하지만 그라운드를 누비는 심정으로 온 목소리를 다해 응원한다. “축구는 ‘목소리’예요. 경기장에서 있는 함꼐 소리치고 선수들을 북돋워주면서 서로 마음으로 주고 받을 때 진짜 축구 맛을 알 수 있죠.” 그의 목소리가 있기에 오늘도 대박 그라운드가 펄떡인다.

축구 덕후!
엔시오로 나눔을 실천하다

이규현 엔시오

“대구FC가 시민의 힘으로 태어난 만큼 더 많은 대구시민들이 엔시오가 되어 자신의 재능을 시민구단에 환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FC엔젤클럽 이규현 엔시오. 그는 현재, 경기도 용인에서 교직 생활을 하며 엔시오로 활동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축구가 무작정 좋았어요. 비록 신체조건 때문에 축구 선수의 꿈은 포기했지만, 팬으로서 축구를 사랑하고 대구FC를 후원하기로 마음먹었죠.” 지난 2002년 대구FC 창단 당시, 초등학교생이었던 이규현 엔시오는 돼지저금통을 몽땅 털어 대구FC 시민주에 힘을 보탬 만큼 축구사랑이 각별했다. 대학 진학과 직장생활로 비록 대구를 떠나 있지만 서울·수도권 원정 경기 때는 열 일 제쳐두고 운동장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언제나 카메라가 들려있다. “렌즈에 담긴 그라운드는 축구의 또 다른 매력이지요. 물리학을 전공하면서 천문학에 관심이 많아 카메라를 구입했는데, 요즘엔 별 사진보다 대구FC 선수들 사진을 더 많이 담게 돼요.”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을 자랑하는 이규현 엔시오는 자신이 촬영한 대구FC 경기 사진들을 엔젤클럽으로 보내오는 등 엔시오로서 또 다른 축구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축구사랑은 또 다른 측면에서 나눔의 실천이라 생각해요. 대구FC엔젤클럽에는 축구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한 직업과 취미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축구사랑만큼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시민구단을 위해, 우리 엔젤클럽을 위해 환원한다면 세상이 더 따뜻하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ANGEL WITH US

등에 지면 짐, 가슴에 안으면 사랑



구름 속 용, 바람 같은 호랑이(雲龍風虎)
이기환 다이아몬드 엔젤(거한건설(주) 대표)

막일꾼에서 건설회사 대표로 역경 이겨낸 ‘다이아몬드’



Photo by 하제연

다이아몬드는 아름다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높은 온도와 압력 속에 태어나는 특성 때문에 역경을 이겨낸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이름에 걸맞은 ‘다이아몬드 인생’이 바로 이기환 거한건설(주) 대표다. 그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중퇴했고, 일당을 받는 막노동꾼으로 거친 세상에 뛰어들었다. 마침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은 40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는 탄탄한 건설회사를 일구어 냈다. 특히, 역경의 과정을 잘 아는 터라 삶이 고단한 사람들에게 대한 이해가 깊다. 그래서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마침 거한건설 대구사무소에서 만난 이기환 대표는 입술이 터져 있었다. 피곤한 기색이 완연했다. 9월 초 카자흐스탄으로 의료봉사를 마치고 막 귀국했다고 한다. 인터뷰를 미루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았지만, 미리 잡힌 일정이라 어쩔 수 없어 양해를 구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대표지만, 소탈한 표정으로 “그냥 편하게 차 한 잔 하고 가시라”면서 인터뷰를 고사했다. 자신을 다이아몬드 엔젤로 추천한 성점화((주)뉴프라이م 대표), 문경화 다이아몬드 엔젤(하얀얼굴예쁜몸매(주)로로피아니 대표)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버텼다. 사실 두 엔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니 여러 사정으로 이기환 대표를 먼저 추천했던 터였다. 몇 번의 설명을 거친 끝에, 인터뷰에 들어갈 수 있었다. 대부분의 엔젤들이 그러하지만, 이기환 대표 역시 스토리 보고였다.

‘난 대박 주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대박 응원

이기환 대표는 대구FC 홈구장인 DGB대구은행파크(이하 대박)에 올 때 편한 복장으로 온다. 어떨 때는 슬리퍼를 신고 오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가족과 함께다.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7살 늦둥이 딸 나겸이 손을 잡고, 안기도 하며, 마실 오듯이 경기장을 찾는다.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다.

“나 대박 주민이에요.” 이기환 대표는 지난해 말 수성구에서 대박 인근으로 이사를 왔다고 한다. 축구전용구장을 따라 이사 온 것이다. 평소 ‘공’으로 하는 스포츠라면 가릴 것 없이 좋아했고, 야구에 온 가족이 꽃혀 있었다. 솔직히, 대구FC는 잘 몰랐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 대구FC가 시민구단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우승을 하는 것에 크게 감동받았다고 한다. 대구FC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다. 자연스레 대구FC의 팬이 됐다. 말로 그치지 않고, 그는 집까지 옮기며 대박 주민이 되어 버렸다.

대구FC엔젤클럽(이하 엔젤클럽) 가입도 그즈음이다. 지인들로부터 엔젤클럽에 대한 이야기는 벌써 들었던 터라 대구FC의 선전을 보고 자신도 힘을 보태겠다며 나선 것이다. 처음에는 일반 회원(연 100만 원 후원)이었다. 평소 모임을 하며 엔젤을 추천했던 이상섭 엔젤((주)조아전자 대표)에게 엔젤클럽 사무총장



늦둥이 축구 공주님은 초바사맨(왼쪽)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직접 연락을 했다.

그렇게 시작된 엔젤 생활이 문경화 대표가 다이아몬드 엔젤로 가입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먼저 문 대표의 추천으로 일반 엔젤인 성점화 엔젤이 다이아몬드 엔젤이 됐고, 아너소사이어티* 멤버인 세 사람이 다이아몬드 엔젤로 의기투합하기로 했던 것이다.(이기환 대표는 대구 아너소사이어티 101호 회원이다.)

이기환 대표의 가세로 요즘 대박에는 다이아몬드 엔젤의 출석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모두 대구FC 유니폼을 입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있다. 해외에 나가 있거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경기장에서 합류한다. 그중에서도 이기환 엔젤은 중독 수준이다. 올해 목표를 전 경기 관람으로 잡고 있다. 홈경기는 물론 원정경기도 이기환 대표는 놓칠 수 없다. 무엇보다 평소 가족들과 함께 한 시간이 부족했던 터라 가족과 함께 원정에 나선다.

“평소에 일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한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걸 마음이 걸렸는데, 엔젤이 된 후 가족과 함께 타 지역으로 원정 가는 것은 또 다른 가족 여행과도 같습니다. 좀 일찍 출발해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회지도층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눔운동에 참여,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개인 고액기부자들의 모임으로 1억 원 이상 기부 또는 약정(5년)할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전국에는 1,870여 명의 회원이 함께 하고 있다.



●
1 거한건설(주)의 '송년의 밤' 행사
2 원정 경기도 마다하지 않는다. 가족과 함께 원정응원을 떠난 이기환 다이아몬드 엔젤
3 우리는 대박 주민(딸과 함께)

서, 같이 그 지역 음식도 먹고, 함께 응원도 할 수 있어 좋더라고요. 축구는 제게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가족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사업과 자신의 일에서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했지만, 가족들에게 늘 미안한 가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봉사활동이다. 15년째 하고 있는 ‘일만의 행복’이 바로 그것이다. ‘일만의 행복’은 이 대표가 지난 2006년 창립해 13년째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봉사 단체로 회원들은 매달 1만 원씩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일만의 행복 회원들은 현재 200여 명으로 학생에서부터 가정주부, 자영업자, 직장인 등 서민층이 주축이다.

이 대표는 바빠서 아이들과 보낼 시간은 없었지만, 대신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한다. 실제로 아이들 역시 일만의 행복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중요한 시험기간이 겹쳐도 예외가 없었다고 한다.

“긴 시간을 아이들과 보내지는 못했지만,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 같았어요. 요즘 세상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청소년들이 많지요. 저는 봉사활동을 통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힘들었던 자신 생각하며, 봉사활동과 직원복지 최선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는 동안 가족의 힘이 없었다면 그는 허망할 뿐이었다. 그래서 가족이 고맙다. 늦둥이 딸 나겸이도 마찬가지로. 아빠와 경기장을 찾으면서 대구FC팬이 된 이 축구 공주님은 ‘츠바사’ 선수에게 꽃혔다고 한다. 얼마 전 츠바사가 부상으로 팀에서 이탈하면서 어린 마음에 아쉬움이 컸지만 그래도 최고의 스타 ‘아빠’와 함께 가는 대박은 언제나 동화처럼 즐겁다. 츠바사가 돌아오면 꼭 사인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했다 한다.

소탈한 이기환 대표의 품성처럼, 거한건설 사무실 분위기는 참 편하다. 직원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것이 ‘회사를 운영하는 이유’라고 할 정도다.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직원 복지에 신경을 쓴다. 자녀의 대학등록금, 병원비까지 꼼꼼히 챙긴다. 그래서인지 아직 거한건설에서 퇴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자량은 바로 직원 누구도 퇴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이예요.” 그것만큼 심플하면서도 분명한 자량은 없다. 더구나 이 대표는 청소년기에 형편이 여의치 않아 학업을 중단하고 막노동에 뛰어든 기억이 있는 만큼, 직원들에게 자녀 교육만큼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다.

사실 이기환 대표는 대구공고를 1학년 다니다 중퇴했다. 대신 건설현장에서 막노동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막일꾼과 같지 않았다. 막일을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하나씩 만들어가는 건축 구조물을 보면서 놀랐다고 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위대한 벽돌공 이야기와 같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벽돌공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다’고 말하는 이야기처럼 그는 막일을 하면서도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았던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는 건축에 대한 꿈을 키웠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검정고시를 거쳐 야간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다. 낮에는 회사일에 매달렸고, 밤이면 공부에 여념이 없었다. 현장 반장을 거



로 스스로 열심히 해서 이루어내면 결국 운도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그의 철학을 엿볼 수 있었다. 이기환 대표의 정성과 열정이 오히려 ‘거한’이라는 호랑이를 타고 날았다는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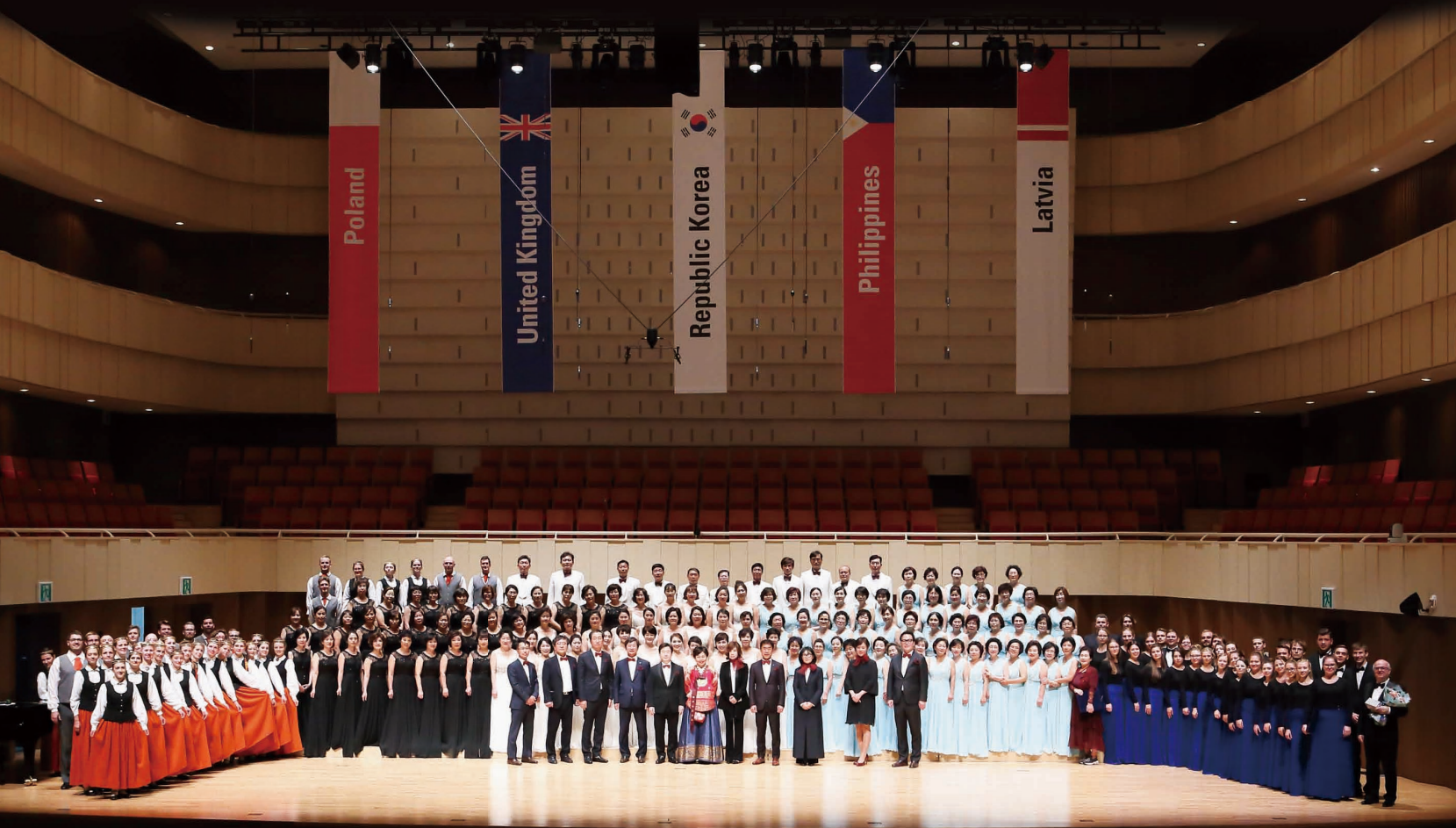
실제로 이기환 대표의 사무실에는 ‘운룡풍호雲龍風虎’라는 한자가 액자로 걸려있다. 사업 철학이 뭐냐고 질문하자, 이 대표는 가만히 손으로 액자를 가리켰다. “저는 좀 외향적으로 나서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빠지면 끝을 보아야 해요. 그런 저를 보고 어떤 분이 써주셨어요. ‘구름 속의 용처럼 은인자중하다’고도 과감할 때는 바람 속을 뛰어다니는 호랑이 같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엔젤클럽에 가입한 후 그는 요즘 행복하다. 대구FC가 올해 최고의 히트 상품이 되면서 대구인으로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이다. 엔젤클럽이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으로 대구FC를 지지하고 있으니 보람도 느낀 이기환 대표는 “다이아몬드다 일반 엔젤이다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엔젤의 정신으로 대구FC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후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일은 없을 테지만 설사 성적이 좋아지지 않더라도 변함없이 대구를 후원하는 진정한 후원천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송준기 대구세계합창축제 조직위원장(엔젤 자문위원) 시민에게 다가서는 즐거운 합창

가을이다. '가을이 오면' 대구의 공연장도 부산하다. 때맞춰 대구세계합창축제도 10월을 기다린다. 특히, 올해 합창축제는 파격적이라니 벌써부터 궁금하다. 전통적인 합창과 함께 시민들이 보다 쉽게 호응할 수 있는 공연이 대거 포함됐다고 한다. 대구세계합창축제(DICF)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준기 대구FC엔젤클럽(이하 엔젤클럽) 자문위원을 만나, 준비상황을 들어봤다.



지난해 열린 대구세계합창축제에서 환영인사를 하고 있는 송준기 조직위원장

합창은 인간의 목소리만으로 아름다운 화음과 감동적인 울림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치 있는 음악 장르입니다.

퇴근시간이 임박해지자 용학로로 차들이 밀려온다. 가을은 임박했고, 여름은 사위어 간다. 수성구 지산동에 위치한 지산치과 의원 5층 건물은 이곳에서 25년째 그렇게 가을을 맞고 있다. 한 곳에서 25년이나 딱하니 버티고 있는 힘은 뭘까? 터줏대감 같은 5층 건물의 문을 열면 수많은 이야기가 쏟아질 것 같았다. 진료시간이 넘었지만, 송준기 원장은 오늘도 바쁘다. 밀려드는 환자로 한바탕 전쟁을 치른 것 같다. 임플란트 치료가 전문인 그의 진료는 꼼꼼하기로 유명하다. 실제로 그를 찾아오는 환자 가운데는 20년을 넘긴 경우도 많다. 대부분 그때 치료한 임플란트가 여전히 든든한 것에 놀란다. 이런 진료 스타일은 평소 그가 추구하는 '치열함과 완벽함'에 뿌리를 두고 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과정이 길어지든, 비용이 더 들어가든 상관하지 않고, 언제든지 제대로 될 때까지 해요. 환자도 환자지만, 그래야 제 맘이 풀려요. 때로는 과하다 싶지만, 원래 성격이 그래요. (하하)”**

하지만, 송준기 원장은 말과 다르게 소탈했다. 인터뷰 중, 양해를 구하고는 돌아서서 진료복을 벗고 스스럼없이 옷을 갈아입었다. 설핏 그의 '등짝'이 그대로 보이더니, 금세 말쑥한 양복으로 나타났다. '누군가의 등 / 그걸 보고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 방향입니다(이병률 <끌림2>)'라는 시구처럼 그의 '등'에서는

신뢰가 느껴졌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한 사람의 '방향'이 드러났다. 옷을 갈아입자, 이제 그는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낸 원장에서 대구세계합창축제 조직위원장으로 돌아왔다. 송준기 원장이 합창제와 인연을 맺은 것은 5년 전쯤이다. 처음에는 조직위원이었다. 낭중지추囊中之錘라 하지 않았던가. 어떤 조직이든 한번 하게 되면 철저히 하는 터라, 사람들은 비록 그가 음악전문가는 아니지만, 합창제의 미래를 위하여 그에게 조직위원장을 맡겼다. 조직위원 중에는 이호경 대구FC엔젤클럽 회장을 비롯해 이동경, 김재홍, 박해대, 윤태경, 하운수, 심인철, 이형원, 김용범, 조용호 등 낯익은 엔젤들이 많다. 그만큼 조직이 젊어졌다. 비음악인 출신이라 오히려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고, 이번과 같이 파격적인 합창제를 기획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합창이라고 하면 다른 공연예술에 비해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합창은 인간의 목소리만으로 아름다운 화음과 감동적인 울림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치 있는 음악 장르입니다.”** 실제로 합창은 반주 없이 순수한 인간의 목소리만으로 감동을 준다. 화려한 공연문화에 익숙한 현대인에게 분명 또 다른 공연문화의 울림이다. 여기에서 올해는 순수한 합창음악과 함께 대중들이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무대도 함께 마련됐으니 기대가 크다.



“이번 합창제를 준비하면서 조직위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통적인 합창음악도 좋지만,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합창제가 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창제는 파격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전체 공연 중 70~80%를 쇼파이어로 준비해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합창제로 준비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많은 오셔서 새로운 합창문화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쇼파이어’란 ‘Show(보여주다)’와 ‘Choir(합창단)’의 합성어이다. 즉 노래를 비롯해 연주, 댄스, 연기 등 다양한 요소를 뒤섞어 종합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이번 축제는 전석 초청으로 이뤄지며 이를 통해 합창의 새로운 매력을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송준기 조직위원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대구세계합창축제가 뮤지컬과 오페라 축제와 함께 공연도시 대구의 대표 문화상품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한적십자, 로타리 등 주요 단체 이끌며 합창의 리더십 발휘
인터뷰가 길어지자, 자리를 옮겼다. 바로 옆의 지산 목련시장으로 ‘마실’ 가듯 걸었다. 도착한 곳은 편하디 편한 돼지국밥집. 말쑥한 외모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그는 돼지국밥을 즐긴다. 단골손님처럼 제 집 문 열 듯 들어서곤 익숙하게 주문한다. “수육 좀 섞어 주시고, 있다가 국밥 좀 넉넉히 말아주세요.” 하

루 동안의 피곤이 풀리는 듯 주인과 농을 주고받는 모습이 영락없는 평범한 손님이었다. 수육과 내장이 섞인 안주가 나오자 그는 맥주 대신 ‘콜라’를 시켰다. 격식 없이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내로라하는 단체의 리더로 수 십년을 살아온 그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락없는 소년의 얼굴이다. ‘얼굴이 동안이고 온화해 보인다’고 하자, 그는 손사래부터 친다. 식당으로 손님이 몰려 왁자해지면서 그도 송기원의 명저 <아름다운 얼굴>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청춘 시절을 소환했다. “어릴 때는 저도 못됐다고 했어요. 한번 인상 쓰면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현대 요즘에는 저를 보고 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아마 얼굴도 변하는가 봐요.”
합창시절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공부도 잘했던 그는 고3이 되자, 청춘의 특권처럼 방황했다. 공부에 손을 놓고, 해세 소설의 주인공처럼 청춘의 병을 앓았다. 결국 원하던 대학에 가지 못했지만 굳이 후회하지는 않았다. 어리석음이 있어야 지혜가 있듯이 방황이 있었기에 치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자체가 ‘아름다운 얼굴’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그는 그 후로 자신의 분야에 치열하게 살아, 오늘에 이르렀다. 병원일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했다. 국제로타리 3700지구(2009-2010) 총재가 대표적이었다. 최연소 총재였던 그는 로타리에서 자신을 넘어선 ‘초아의 봉사’를 배웠다. “당시

차차차기총재로 3년 전부터 총재수업을 했었지요.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인맥도 더 넓힐 수 있었고,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 가야 할지 설계도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부족한 제가 무사히 총재 역할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100년 이상 존속하고 있는 로타리에서 철저한 준비와 끊임없는 교육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했다. 봉사와 함께 자신의 삶에도 큰 전환점이 됐다. 올해 회장에 연임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회 역시 ‘봉사하는 삶’의 연장선상에 있다. 로타리 총재를 성공적으로 마친 그에게 또 다른 봉사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당시 회장이었던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이 그의 치열함과 봉사정신, 그리고 리더십을 높이 평가해 대한적십자사 대구지회 회장 자리를 추천한 것이다. 그는 적십자에서 일반 시민들의 위대함과 대구의 힘을 느꼈다고 한다. “대구지역에 적십자 활동하시는 분이 7천 명이 넘습니다. 모두 돈 한 톨 받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인구비율을 따져봤을 때 대구가 가장 높습니다. 솔직히 요즘 대구경제가 만만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봉사하시는 분이 많다는 것은 분명 대구만의 힘인 것 같습니다.”

엔젤의 함성은 대구가 하나되는 또 다른 합창

엔젤클럽도 마찬가지다. 송준기 엔젤클럽 자문위원은 엔젤의 목소리가 바로 대구시민들의 목소리라고 했다. “듣기로는 다른 지역에서 엔젤을 벤치마킹 하지만, 실제로 실현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대구사람이 지역사랑과 봉사정신에 남다른 DNA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점에서 송준기 자문위원은 이호경 회장과 강병규, 엄태건, 김완준 상임부회장 등 현 집행부와 엔젤 회원들의 헌신을 높이 평가한다. 4,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오늘날의 엔젤을 이룬 것도 놀라운 일이라고 했다. 대구FC가 올해 히트 상품이 된 것도 보이지 않는 엔젤의 기운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엔젤클럽 면면을 보면 지역 사회에서 내로라하는 분들, 그리고 개성이 강한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축구사랑을 통해 대구사랑을 하겠다’는 큰 뜻에 함께 의기투합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엔젤의 함성은 대구를 하나되게 하는 합창입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일로 바빠 엔젤에 신경을 그만큼 못쓰는 것을 미안해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엔젤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엔젤의 앞날을 위해서도 많은 고민을 한다. “엔젤정신은 이미 순수하고 아름다운 시민정신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송준기 자문위원은 “이를 보다 체계화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한다면 엔젤클럽은 대구를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4



- 1 합창축제를 위해 함께 수고해준 조직위원들과 함께 (하윤수, 이동경, 윤태경, 김용범, 조용호, 권정미 엔젤도 보인다)
- 2 구강구조가 뒤틀린 장애인 환자에게 치료봉사하고 있는 송준기 원장
- 3 지산치과의원 식구들과 즐거운 한때
- 4 지난 2017년 이호경 대구FC엔젤클럽 회장과 송준기 대한적십자사 대구지회 회장이 사회공헌 파트너십 협약 체결을 기념하고 있다.

송준기 대구FC엔젤클럽 자문위원은 1987년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제로타리 3700지구(2009-2010) 총재, 대구보건대학교 이사장, 민족통일대구광역시협의회 회장, 영남대학교AMP 총동창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구보건대학교 웰니스문화산업최고위과정 총동창회장,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지난해에는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을 수상했다.

(주)다운PLUS 대표 박민천 엔젤
**더 좋은 세상을 개발하는
 행복 디벨로퍼가 꿈!**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그 행복의 우선순위는 각기 다를 테지만, 자신이 살고, 숨 쉬고, 잠자는 주거공간을 갖는 것은 분명 행복의 조건이다. 오늘도 도시의 수많은 곳에서 그렇게 새로운 집들이 꿈을 향해 세워진다.

대구FC엔젤클럽(이하 엔젤클럽) 회원인 박민천 (주)다운PLUS 대표는 이처럼 주거공간 개발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 디벨로퍼(Happy Developer)’다. 동대구역 인근에 준비한 빌딩 사이를 저벽대다 찾아간 곳은 바로 박민천 대표의 사무실. 오늘도 그는 통찰력과 적극적인 개발 마인드, 여기에 면밀한 계획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춰야 하는 디벨로퍼(Developer)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복잡하게 이야기 했지만, 간단히 말하면 그의 직업은 사람들의 행복과 꿈을 개발하는 것이다. 당연히 도전정신이 필요하고 수많은 난관을 뚫어야 한다. 보람도 있을 테지만, 속앓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만난 그의 표정은 온화하고, 부드러웠다. 물론, 그 표정 속에 수많은 도전과 불면의 밤들이 있었을 것이다. 때로는 그만둬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는 독심 있게 밀어붙여 여기까지 왔다. 어렵게 청한 인터뷰는 그렇게 시작됐다.

지난 2005년이였다. 그동안 금융업에 종사한 그는 ‘우리 지역의 열악한 곳의 주거환경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으로 디벨로퍼로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처음 하던 터라 쉽지 않았다고 한다. 경험도 부족했다. 좌충우돌 했지만, 돌아보면 그 시간이 헛된 것은 아니었다. 힘든 여정을 거친 만큼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그럴수록 마음을 다잡고 밀어붙였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은 많이 안정을 찾았다고 한다. 듣고 보니 그의 삶은 도전과 포기할 줄 모르는 의지의 연속이었다. 것처럼 고단한 삶을 살아왔던 그가 이번에는 대구FC의 후원천사로 축구를 통한 ‘행복 디벨로핑’에 나섰다.

축구선수 ‘강토’ ‘강산’ 쌍둥이, 뒷바라지 못해 늘 가슴 먹먹

그 길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행복을 찾는 길이기도 했다. 힘들 때마다 언제나 큰 힘이 됐던 쌍둥이들이 축구 선수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도 ‘강토’ ‘강산’이다. 쌍둥이들은 아버지가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스스

● 쌍둥이 축구선수 ‘강토’(좌)
 ‘강산’(우)



로 ‘강토’와 ‘강산’이 되어 아빠를 든든하게 했다. 박 대표는 그것 이 늘 고맙지만, 한편으로 가슴이 ‘아슴아슴’ 하다. 아이들이 없 었으면 오늘의 그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더 미안하다. **“애들 경기 보러 간 적이 까마득합니다. 다른 부모처럼 해주지 못했어 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특하고 한편으로는 가슴 먹먹합니다.”** 아이들 이름은 박 대표가 지었다. 처음 쌍둥이라는 말을 들었 을 때, 저도 모르게 ‘강토’ ‘강산’이 떠오르더라는 것이다. 쌍둥이 들은 봄철 채마菜麻처럼 쑥쑥 자라, 지금은 서로 힘이 되어 그 라운드를 달리고 있다. 아버지의 피는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 다. 알고 보니 박 대표도 어린시절 반야월초등학교에서 아주 짧 게 선수 경험을 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부모님의 반대는 당연한 것이었다. 아쉽게 일찍 축구선수를 포기했으나, 축구에 대한 열 정은 남아 있었다. 그 열정이 아이들에게 이어졌다. 쌍둥이들 은 초등학교 반 대항 시합을 하던 중 반야월초 시덕준 축구감독 으로부터 가능성을 인정받고 선수가 되었다고 한다. 명문 반야 월초등학교에서 잘 자란 아이들은 포항스틸러스 U-15팀인 포 항제철중학교에 함께 들어갔다. 명문팀 유스 소속인 만큼 아무 나 가는 곳이 아니었다. 특히, 쌍둥이가 함께 입단한 것은 남다 른 일이었다. 포지션은 형 강토는 공격수, 동생 강산은 수비수 였다. 대구를 떠나 타지에 있었지만, 쌍둥이들은 형제애를 나누 며 쑥쑥 컸다.

입단 당시 재밌는 일도 있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모 축구 커 뮤니티에 이들의 포철중학교 입단 시절 이야기가 나온다. 쌍둥 이 모두 공격수였으나, 감독의 의견에 따라 포지션이 나뉘었다 는데 뒷이야기가 흐뭇했다. 커뮤니티에서 동생 강산은 ‘공격수 인 형은 발재간이 좋다’고 자랑했고, 형 강토는 ‘동생은 스피드 와 힘이 좋다. 수비수를 하면 잘할 것’이라며 서로 격려했다. 남 다른 형제애에 코끝이 찡했다.

어려운 시절, 아빠로서 늘 미안

박 대표는 자신이 힘든 시절, 아들들을 제대로 뒷바라지 못했는 데, 형제간의 우애를 쌓아가며 커가는 것이 대견했다. 더욱이 포항스틸러스의 유스팀이라 비용적으로도 도움이 됐다. 지금 생각해도 아이들이 고맙기만 하다. 힘들게 이어가던 사업에 전 념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이었다. 최근 조금씩 사업이 안정 되고 있는 만큼 쌍둥이들을 위해 좀 더 힘을 쏟을 것이라며 다 짐했다.

엔젤클럽 가입도 그에게는 의미 있다. 평소 알고 있던 엔젤클럽 이호경 회장이 ‘쌍둥이 아들이 축구를 한다’고 하자 두말없이 가 입하라고 했고, 본인도 흔쾌히 받아 들였다고 한다. 엔젤 가입 과 쌍둥이들의 성장이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대구축구 발전 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엔젤 가



입과 함께 그 역시 좋은 일들이 생겼다고 한다. **“지난해 이호경 회장에게 추천을 받았을 때만해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엔젤클럽에 가입한 후에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았어요. 막혔던 일들이 하나 둘 진 행되더라고요. 우연인지는 몰라도 참 신동했습니다.”** 단순한 축구 응원이 아니라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갖 고 제대로 된 시민구단을 만들어 대구를 바꾸자는 엔젤클럽의 목표에 그는 감동했다. 나아가 자신처럼 엔 젤클럽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뜻깊은 일을 하는 만큼, 우리가 사는 대구에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찬가지로, 대구FC도 진정한 시민구단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출신의 선수들을 더 많이 선발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박 대표는 말했다. 지역의 어린 선수들이 좋은 선수로 성장할 때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 고, 더 열정적으로 응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학부모가 최고의 팬이라는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학 부모 입장이 되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지역 출신 선수들이 대구FC에서 많이 뛰다면 더 많은 팬들이 응 원할 거예요. 우리 이웃의 자녀, 또 친구들이 경기장에서 활약을 하는데 누가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대구축구 발전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이들의 아버지 입장에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진정한 시민구단을 위해서는 대구 출신 선수들이 많이 뛰어야 한다는 것이 다.

한편, 박 대표는 엔젤클럽이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든든한 대구정신을 이어받아 대구FC가 진정한 시민구단 이 되는데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자신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우리 회사 이름이 다운플 러스입니다. 다운이란 순수 한글로 ‘좋은 것이 모이는 것’이라는 뜻이지요. 거기에 또 플러스가 되자는 것이 고요”**라는 박 대표는 **“앞으로 눈에 드러나는 큰 사업 보다는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 지역사회를 행복하게 디 벨로핑하여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라고 행복 디벨로퍼의 희망을 밝혔다.⁴⁾

● 신입 엔젤 가입식에서 대구 FC 파티팅을 외치고 있다. (오른쪽 네 번째)

PHOTO ESSAY

늘 경기장을 찾아주시는 팬분들의 사진으로 풍성한 Photo Essay가 만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장의 날라차기!!!(한희훈)
Photo by 김은정



📷 골 넣으면 매일 안아줄래!!!(홍정운)
Photo by epitone_fc38



📷 에드가, 쑈구리!(박병현)
Photo by 최하얀



📷 훈련이 즐겁니??(김대원)
Photo by 박정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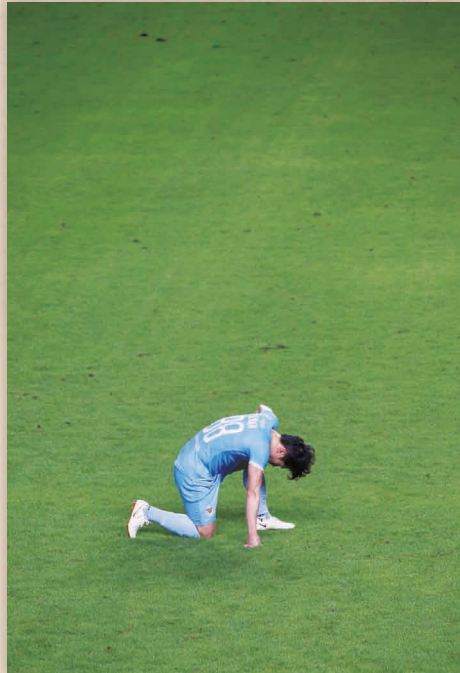
📷 저 불렀어요!(강윤구)
Photo by 박정환



📷 신혼여행 피지에서도 DGB커플티
Photo by 정구환



📷 다 쓰러져~ 오버헤드킥(에드가)
Photo by 이혜미



📷 무승부의 아쉬움... 5분만 더(김선민)
Photo by 조수빈



📷 내가 더 귀엽지
Photo by 이규현



📷 나 잡아봐라~(고재현)
Photo by 박정환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 참가!

국내 축구 붐 중심지 '대박'에서 최초 퍼포먼스 실시



대구FC엔젤클럽 회원이 한국 축구 붐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대박에서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에 참여, 풍선을 터트리고 있다.

최근 도심 속 축구전용구장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대구FC 홈구장 DGB대구은행파크(이하 대박)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 퍼포먼스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시민구단 대구FC를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대구FC엔젤클럽(이하 엔젤클럽)의 이호경 회장을 비롯 30여 명의 회원들은 지난 7월 6일 대구FC와 경남FC 홈경기가 끝난 뒤 그라운드에 모여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 퍼포먼스를 실시했다. 올 3월 개장한 DGB대구은행파크는 1만 2,000석의 축구전용구장으로 많은 시민과 축구팬의 발길을 모으며 연이어 매진을 기록하는 등 한국축구 붐의 중심지가 되고 있어, 이번 엔젤클럽의 닥터헬기 퍼포먼스의 의미가 남다르다.

대구FC 조광래 대표이사의 지령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이호경 회장은 “닥터헬기와 같은 응급수송 수단들의 이착륙 소음을 잠시만 참으면 많은 소중한 생명들을 구할 수 있다”며 실제로 엔젤클럽 회원들과 함께 풍선을 터트리며 그 소리를 체험했다. 이호경 회장은 “생각보다 소리가 큰 것 같지만, 대박의 뜨거운 함성보다는 크지 않다”며 “생명을 살리는 뜻 깊은 함성이라 생각하면, 응원 소리”라고 캠페인에 많은 참여

를 당부했다. 이어 이 회장은 “엔젤클럽은 축구사랑을 통해 지역사랑과 희망을 릴레이하는 시민단체”라며 “앞으로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도 릴레이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겠다.”고 말하며 회원들과 함께 풍선 터트리기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 회장은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의 다음 참여자로 국내 유일한 뮤지컬 축제인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을 성공적으로 치른 배성혁 디프집행위원장과 최근 대구 최초 5성 호텔로 인증받은 호텔 인터볼고 대구 서기수 회장을 지명했다. 엔젤클럽은 국내 최초 시민구단인 대구FC를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순수 시민단체로 지난 2016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현재 1,7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회원들은 명문 자립시민구단을 위하여 적게는 월 1만 원에서 매년 100만 원, 최대 1,000만 원 이상 후원하고 있다.

한편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은 닥터헬기 소음 인식도 개선을 위해 시작된 캠페인으로, SNS를 통해 사회 각 분야 저명인사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풍선을 터트리며 소음을 참는 것으로 이루어진 이벤트는 풍선이 터지는 소리가 닥터헬기 이착륙 소리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착안됐다. [4]

선수 여러분 '박장대소차醬大笑' 하세요!

박현주 엔젤(장아푸드 대표), 추석 맞아 대구FC에 전통된장 후원



1 박현주 엔젤이 올 추석을 앞두고 선수들에게 고향의 맛 전통된장을 후원했다. 2 조광래 대구FC 대표이사가 박현주 엔젤의 후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명절 때마다 대구FC 선수들에게 고향의 맛을 선사하는 엔젤이 있어 선수단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독심있게 우리 전통 된장을 생산하고 있는 대구FC엔젤클럽 박현주 엔젤(장아푸드 대표)이다. 박현주 엔젤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300만 원 상당의 전통된장을 선수단에 전달했다. 명절을 맞아 그 어느 때 보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은 것이다.

박현주 엔젤은 “추석 다음이 경기라 명절에도 고향을 가지 못하는 선수들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찡하다”며 “고향의 맛과 건강을 전해주기 위하여 정성스런 마음을 담아 보냈다.”고 선수들을 살뜰하게 챙겼다.

이번에 전달된 전통된장 역시 박현주 엔젤의 이름을 딴 전통된장 '박장차醬' 세트다. 박현주 엔젤의 '박차'자와 된장의 '장'을 합성한 브랜드다. '박장'은 경북 안동의 비옥한 토지에서 좋은 물과 햇살을 받아 키운 국내산 콩으로 빚은 전통된장이다. 제조 방법도 전통을 그대로 따랐다. 건조기가 아니라 옛날 방식 그대로 '구들'에서 메주를 띄웠다고 한다. 여기에 최고 6년 이상 숙성시켰다. 맛은 깊고, 영양도 풍부하다고 한다. 실제

로 된장을 만들 때도 콩 한 쪽, 소금 한 줌, 물 한 바가지라도 고르고 골라 정성을 들인다.

박현주 엔젤은 전통된장을 생산하면서부터 '숙성'과 '깊이'를 배웠다고 한다. 그대로 되는 된장이 없듯이, 시간을 거쳐야 맛의 깊이가 나온다는 것이다. 사람과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래서 엔젤클럽이 더없이 좋다.

지난해 가입, 운영이사로 활동 중인 박현주 엔젤은 “엔젤클럽의 정신도 대구사랑이 숙성에 만들어 진 것”이라며 “미력하나마 엔젤클럽 회원으로서 대구FC에 도움이 된다면 그 자체로 행복하다.”고 말했다.

박현주 엔젤의 후원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설명절에도 '박장'이 선수들에게 전달됐다. 당시 박현주 엔젤은 내년에도 선수들에게 전통된장을 후원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다.

올 시즌 대구FC의 선전을 기원한 박현주 엔젤은 “대구FC 선수들이 우리 '박장차醬'된장을 먹고 크게 웃는(大笑)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선수들에게 고향의 맛과 정을 전하겠다.”고 했다. [4]

“대구FC엔젤클럽 고마워요! 저도 베푸는 사람 될게요”

소아LCP 이겨낸 축구꿈나무 이승우(문경 모전초 5학년) 군에게
조현우 선수 유니폼과 사인볼 전달해



이승우 군에게 사인볼과 선물을 전달한 대구FC엔젤클럽 회원들과 조광래 대구FC 대표이사

대구FC엔젤클럽(이하 엔젤클럽)은 추석 연휴 중 DGB대구은행파크(이하 대팍)에서 뜻 깊은 행사를 펼쳤다. 소아LCP를 이겨낸 축구꿈나무 이승우(문경 모전초등학교 5학년) 군을 초대해 대구FC 조현우 선수의 사인볼, 조광래 대구FC 대표이사 사인볼, 조현우 선수의 유니폼과 200경기 기념 티셔츠 등 한 아름의 선물을 안겼다. 이 군과 가족들은 뜻하지 않은 엔젤클럽의 선물에 감격해하며 눈물을 흘렸다.

승우가 이처럼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되기까지 아이의 꿈을 지켜주려는 엄마의 지극한 사랑이 있었다. 마흔이 넘어서 얻은 귀한 아들 승우는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고 축구를 잘하는 아이였지만 2017년 겨울, 소아LCP라는 진단을 받았다. LCP(Legg Calve Perthes)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혈행장애로 초래되는 특발성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이다. 완치될 때까지는 축구를 할 수 없게 되었지만 다행히 승우는 수술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로부터 1년 8개월, 승우는 불편한 보조기를 장착한 상태로 학교와 병원을 오가며 지난 8월 6일 완치판정을 받았고 승우 가족은 완치 기념으로 지난 9월 1일 상주시민운동장을 찾았다.

골키퍼가 꿈이며 조현우 선수를 특별히 좋아하는 승우를 위해 승우 엄마는 이날 꼭 조현우 선수의 사인을 받아 승우를 행복하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미리 준비해간 사인지와 유성매직을 소중히 안고 밀리는 인파 속에서 40여 분을 승우와 엄마가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조현우 선수 사인은 받지 못했다. 그때 승우가 멀리 인파 속에서 사인을 하고 있는 안드레 감독을 발

견하고 “I love you”를 여러 번 외쳤다. 안드레 감독이 환한 웃음으로 승우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me too”라며 사인을 해주었고 함께 사진도 찍어주었다. 이어 고재현, 이준희, 강윤구 선수의 사인도 받을 수 있었다. 승우 엄마는 한 장의 사인도 못 받고 돌아서야 하는 상황에 아이에게 기쁨을 안겨준 안드레 감독과 선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대구FC 홈페이지 응원마당에 사연을 올렸다. 엔젤가는 조현우 선수 사인도 꼭 받고 싶다는 소망과 함께.

이 사연은 엔젤클럽 박성호 이사를 통해 엔젤본부 카톡방에 알려지게 됐고, 엔젤클럽 박기원 이사의 제안으로 엄태건 엔젤본부 상임부회장, 정영준 상임이사 등 엔젤본부 회원들이 함께 ‘우리가 돕자’고 의견을 모았다. 덕분에 승우네 가족은 지난 9월 14일 대구FC 홈경기가 열린 대팍으로 초대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엄태건 엔젤본부 상임부회장은 “엔젤클럽이 대구FC의 후원을 넘어 지역사회를 실천하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한다는 점에서 오늘은 매우 의미 있는 날이며, 앞으로도 엔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승우는 또 최근 문경시 축구협회로부터, 11월 9일에 있을 ‘문경시협회장기 풋살대회’에서 시축을 해달라는 초대장을 받았다. 승우 엄마 박미자 씨는 “승우는 아픔을 겪으면서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아픔을 잘 이겨낸 승우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준 엔젤클럽의 선행이 널리 알려져 더 많은 엔젤들이 더 넓은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승우가 축구를 좋아한 건 정말 승우 인생의 ‘신의 한 수’”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41**

Angel & Life

※ <Angel & Life>는 엔젤들의 자료 제공으로 이뤄집니다. 앞으로 많은 엔젤님들의 자료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대구FC엔젤클럽 강병규 운영본부 상임부회장과 엄태건 엔젤본부 상임 부회장이 지난 9월 11일 대구FC 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권영진 대구시장 초청 오찬행사에 참석했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및 대구FC 후원사 관계자, 대구FC 서포터즈, 대구FC 선수단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대구FC 클럽하우스 스카이 포레스트는 수성구 대흥동 대구체육공원 일원에 지상 4층(연면적 4,265㎡) 규모로 숙소 43실을 비롯해 웨이트 트레이닝실·시청각실·휴게실·식당 등 시설을 갖췄다. 도심에서 벗어나 있고, 현재 선수단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구스타디움 및 보조구장과 가까워 훈련과 휴식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완벽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호경 대구FC엔젤클럽 회장이 지난 8월 27일 대구광역시 체육관에서 열린 대구광역시체육관·장애인국민체육센터·대구FC 클럽하우스 합동 개관식에 참석했다. 식전공연과 개관식, 다과회 순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이호경 회장은 개관식 테이프 커팅을 한 뒤, 새롭게 건립된 체육회관과 대구FC 클럽하우스 등의 시설을 둘러봤다.



제3차 대구FC엔젤클럽 임원확대회의가 지난 9월 2일 호텔인터볼고 대구(만촌동)에서 열렸다. 이날 회장단과 상임이사, 운영이사 등이 참석해 그동안의 활동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을 성공리에 보내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조병래 엔젤과 박금화 엔젤이 신입이사로 추천되어 이날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준기 엔젤(주)대경맥주 대표)이 엔젤의 이름으로 된 수제맥주 ‘엔젤비어’를 후원했다. 경남전(8월 17일)과 강원전(8월 24일) 두 경기에 걸쳐 지원한 엔젤비어는 직접 생산한 토종맥주로 시원한 여름밤, 엔젤들을 행복하게 했다. 문준기 엔젤은 지난 9월 25일 전북원정을 떠난 엔젤에게도 수제맥주 ‘엔젤비어’를 후원했다. 한편 문준기 엔젤은 지난 8월 15일 대구테크노파크 성서 신기술산업지원센터에서 산학연 관계자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수제맥주산업발전협의회 총회에 참석했다. 협의회 활동을 통해 대구 수제맥주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회원들과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문 엔젤은 그동안 대구FC 홈경기 및 원정경기에 수제맥주를 지원한 바 있다.



조만현 대구FC엔젤클럽 부회장 ((주)동우씨엠 그룹 회장)이 지난 7월부터 국제로타리 3700지구 총재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조만현 부회장은 “사회생활 33년간 쉽 없이 채움을 위해 달려왔다”며 “비움이 없으면 채움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총재를 맡은 1년 동안 나눔을 통한 비움에 집중하겠다.”고 활동 철학을 밝혔다.



배성혁 대구FC엔젤클럽 부회장(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집행위원장)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호경 회장의 지명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배성혁 부회장은 지난 7월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덤프 지기, 사무국 관계자 등 20여 명과 함께 풍선을 터뜨리고 그 소리를 체험하는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노기원 다이아몬드 엔젤(주)태왕 대표)이 지난 6월 26일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관하는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 지원사업’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주거여건 개선에 이바지한 업체에 대한 정부포상, 무주택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주택임차자금 전달 순서로 진행됐다. (주)태왕은 국가유공자들의 주거 여건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알고 난 뒤부터 노후주택 무상 수리를 통한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종수 다이아몬드 엔젤, 최종해 엔젤이 지난 6월 26일 호텔인터볼고 대구 즐거움홀에서 열린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회장 이임식 및 취임식’에 참석했다. 이임하는 조종수 회장은 그동안 지역 건설산업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권영진 대구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협회 회원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또한 임기를 시작하는 최종해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협회를 중심으로 모든 회원이 하나로 힘을 모아 새로운 비전으로 대구를 재건하자”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왼쪽부터 이승현, 최종해, 조종수, 김성곤 엔젤)



이화선 엔젤(세계한인여성경제협회장, 화선(주) 대표)이 지난 6월 세계한인재단 주최로 열린 제3회 인류효도회복 계승대회에서 자랑스러운 어머니 대상을 수상했다. 인류효도회복 계승대회는 효행의 가치를 실현하고 이어가는 정신을 기리는 행사다. 이화선 엔젤은 섬유회사인 화선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대구지역 여성 기업인으로 이웃돕기 바자회를 비롯해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사진은 지난해 조현우 선수와 함께)



조승우, 박기원, 하제연 엔젤이 지난 6월 21일 대구시장 앞에서 열린 U-20 FIFA 월드컵 정정용 감독과 대구FC 고재현 선수 환영행사에 참석했다. 군악대 연주와 축하공연으로 이뤄진 이날 행사에서

조승우, 박기원 엔젤은 정정용 감독, 그리고 대구FC 소속으로 대구의 미래가 될 고재현 선수와 기념촬영을 하며 앞으로 K리그에서의 활약을 기원했다.

엔젤 포토존에서 엔젤의 날개를 달다!



Angel Photo Zone

엔젤 포토존에서 엔젤의 날개를 달다!

엔젤빌리지 앞에 조성된 엔젤 포토존에서
엔젤의 날개를 다신 분들을 기념합니다. 앞으로 포토존에서 촬영해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매거진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본 사진은 가나다 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박종철 엔젤 (주)우일건설



서상인 엔젤 NCT



손현구 엔젤(오른쪽) 스파이&룩 카케어



우경호 엔젤 제일약품



은영기 엔젤 한솔개발



전중달 엔젤 제이디건설



김남호 엔젤 더원창호



김종호 엔젤 우인바스텍



박금화 엔젤 서라벌대학



조병래 엔젤 디자인해밀



천해성 엔젤 하림조경





Pride of Daegu

D A E G U F C

R E P O R T

'팬 프렌들리 클럽상' 2회 연속 수상

2019 K리그1 '팬 프렌들리 클럽상' 2회 연속 수상

팬 서비스, 축구장 가는 길 조성, 마스코트 홍보 활동 등
1차에 이어 2회 연속 수상, 그린 스타디움상도 받아 2관왕 달성



자료제공. 대구FC

올 시즌 새 구장 DGB대구은행파크를 뜨겁게 달군 대구FC가 가장 팬 친화적인 활동을 펼친 구단에게 주어지는 '팬 프렌들리 클럽상'을 2회 연속 수상했다. 대구는 지난 8월 24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강원전 홈경기에서 '하나원큐 K리그1 2019 2차 팬 프렌들리 클럽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는 조광래 대구FC 대표이사와 마스코트 '빅토' '리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광래 대표이사가 프로축구연맹이 제작한 트로피를 받았고, 빅토, 리카와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 함께 팬 프렌들리 클럽 상을 축하했다.

대구가 '팬 프렌들리 클럽상'을 수상한 것은 지난 5월 1차에 이어 두 번째다. 대구는 경기가 끝난 뒤 사인, 사진 촬영 등으로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퇴근길 팬 서비스'와 '축구장 가는 길' 조성을 비롯해 마스코트 '리카'를 적극 활용한 홍보 활동, 하프타임 입단식, 'WE ARE DAEGU DAY' 개최, 그라운드 오픈 이벤트 등으로 대구만의 특별한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홈경기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게이트 변경, 무인 발권기 운영 시간 확대, 사인물 기동 부착, 티켓 뒷면에 경기장 지도 삽입, 매점 증설 등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대구의 홈 경기장 'DGB대구은행파크'는 지역뿐만 아니라 K리그 전체에서 핫플레이스가 됐다. 27라운드까지 대구의 평균 관중은 1만 378명으로 작년 대비 평균 관중이 3배 정도 증가했다. 그 결과 대구는 올해 1차 플러스 스타디움, 팬 프렌들리 클럽상, 2차 팬 프렌들리 클럽상, 그린 스타디움상을 수상하는 등 4관왕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다. 49

클럽하우스 'SKY FOREST' 입주

대구 축구 인프라 구축 마침표! 클럽하우스 'SKY FOREST' 입주

7월 23일 선수단 숙소, 식당, 트레이닝 시설, 휴게실 둘러보며 감탄
고성동 유소년축구센터, DGB대구은행파크 이어 대구스타디움 인근에 새 보금자리



자료제공. 대구FC

대구FC가 새로운 동지로 이동했다. 대구FC 선수들이 지난 7월 23일 숙소, 식당, 트레이닝 시설, 휴게실 등을 갖춘 새 클럽하우스 'SKY FOREST(스카이 포레스트)'로 입주했다.

새 클럽하우스 이름은 숲에서 나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듯 선수가 육성될 미래지향적 공간이라는 의미에, 팀의 상징색인 하늘색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아 'SKY FOREST(하늘색 숲)'로 명명했다. 'SKY FOREST'는 수성구 대흥동 대구체육공원 일원에 지상 4층, 연면적 4,265㎡ 규모로 지어졌다. 43실의 숙소와 웨이트실, 물리치료실, 휴게실, 식당,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도심에서 벗어나 있고 현재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구스타디움과, 대구스타디움 보조구장과도 가까워 선수단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다. 완벽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선수들의 휴식을 도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SKY FOREST'는 곳곳에 하늘색 팀 컬러와 'OUR CITY' 'OUR TEAM' 'WE ARE DAEGU'라는 슬로건, 엠블럼 등이 장식되어 선수들에게 소속감을 심어줄 예정이다. 이날 'SKY FOREST'에 이삿짐을 꾸민 선수들은 "쾌적한 시설에 휴식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새 경기장에 이어 클럽하우스까지 입주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좋은 성적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소감을 전했다.

클럽하우스 입주로 대구는 축구 인프라 구축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2016년 유소년축구센터를 개장한데 이어 2019년 3월 DGB대구은행파크 개장, 7월 클럽하우스 입주까지 그동안 차근차근 진행해왔던 사업들을 마무리하면서 명문구단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49

대구FC 마스코트 리카, 팀 K리그 팬 매니저로 서울 출격!

세징야, 조현우 소속 팀 K리그-유벤투스 친선 경기 응원 나서
이들간 팬 매니저로 리카 응원봉 나눔, 호응 유도 즐거움 선사



자료제공, 대구FC

대구FC 마스코트 ‘공슴도치 리카’가 서울로 출동했다. 지난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팀 K리그’ 친선 경기 응원을 위해 25일과 26일 양일간 팬 서비스를 실시했다. 대구FC 소속 세징야, 조현우 선수가 포함된 ‘팀 K리그’를 응원하기 위해 이틀간 팬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참여 이벤트를 마련해 팀 K리그 팬들을 만족시켰다.

지난 7월 25일 진행된 팀 K리그 오픈 트레이닝 현장에서는 ‘팬 매니저’로 변신한 리카를 만날 수 있었다. 리카는 일일 팬 매니저로 나서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한 질서 도우미로 활약했다. 또한 SNS 이벤트를 통해 리카 응원봉을 선물했다. 이 밖에도 호응 유도, 호우 세레머니 시연, 플라로이드 사진 촬영 등으로 오픈 트레이닝 현장을 찾은 100여 명의 K리그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 경기 당일에는 리카가 서울월드컵경기장 앞 광장에서 K리그 팬들을 맞이했다. 리카는 자신의 탄생스토리가 적힌 감쪽한 명함과 리카 응원봉을 팬들에게 나눠줬다. 이밖에도 플라로이드 기념사진 촬영, 인증샷 SNS 공유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팀 K리그’를 응원하기 위해 중흥무진 활약한 리카의 다음 행보가 궁금하다면 리카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면 된다. 리카의 모든 활동은 리카 오피셜을 통해 공유된다. 49

조광래 대구FC 대표이사, 2년 더 함께한다 2021년 9월까지 계약 연장

임기 종료 앞두고 재계약
대구 축구 붐 조성 공로 인정받아 2021년 9월까지 함께한다



자료제공, 대구FC

조광래 대구FC 대표이사가 대구FC 이사회로부터 재신임을 받았다. 다음 달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조 대표이사의 임기는 2021년 9월까지 연장됐다. 이로써 조 대표이사는 햇수로 8년 대구FC를 맡게 됐다. 역대 대구 구단 대표 중 최장 임기를 소화하는 것이다.

조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대구의 축구 붐 조성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2014년 9월 제5대 대구FC 단장으로 부임한 후 2016년 1부리그 승격, 2017~2018년 1부리그 잔류, 2018년 FA컵 등 수많은 성과를 냈다. 특히 올해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진출 성과를 이끌어냈다. 대구FC를 흥행 구단으로 성공시키며 조현우, 김대원, 정승원, 홍정운 등 일찍이 선수 발굴에 앞장섰다.

또한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대구FC의 새 축구전용구장인 DGB대구은행파크를 건립해 대구에서 비인기 종목이었던 축구를 인기 스포츠 종목으로 성장시켰다. 현재 ‘DGB대구은행파크’는 프로축구역사에 전무후무한 한 시즌 6회 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웠고, 평균 관중 1만 명으로 매 경기 90%의 관중 점유율을 유지하는 등 전국에서 찾는 지역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대구FC는 2019시즌 2회 연속 ‘팬 프렌들리 클럽상’을 차지했으며, 그 외 2019 1차 ‘플러스 스타디움상’, 2017 1차 ‘플러스 스타디움상’ 등을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앞으로도 조광래 대표이사와 대구FC는 K리그를 넘어 국내 프로스포츠 시장을 선도하고 다른 구단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49

김선민(MF), 김동진(DF) 선수 Welcome Home! 다시 대구 품으로



왼쪽부터 안상영 엔젤, 김선민 선수, 김동진 선수, 최태원 엔젤

대구FC의 '중원 엔진' 김선민 선수, '대구맨' 김동진 선수가 2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지난 8월 17일 경남전으로 복귀식을 치른 김선민, 김동진 선수. K리그1 후반전 힘을 보태줄 두 선수를 누구보다 뜨겁게 지지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안상영, 최태원 엔젤. 두 선수와 엔젤의 특별한 인연을 엿볼 수 있었던 더블데이트 현장으로 가보자.
인터뷰. 김선민 선수, 김동진 선수, 최태원 엔젤, 안상영 엔젤 | 정리. 박다은 | 사진. 대구FC

최태원 두 선수 환영합니다.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소감이 어떤가요.

김선민 먼저 대구FC 홈팬들께 감사드립니다. 말로만 듣던 대박을 실감했던 것 같아요. 웅장한 전용 구장이며, 팬들의 뜨거운 함성에 소름 돋았습니다. 대구FC가 강팀이 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김동진 경기 내내 몽클했습니다. DGB대구은행파크(이하 대박)에서 처음 뛰었는데, 느낌이 180도 달랐어요. 팬들도 많아졌고, 그만큼 응원 열기도 높아 절로 힘이 났습니다. 모든 게 새롭고 설렷죠. 전용구장이며 새로 지은 클럽하우스, 응원 열기...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이제 김선민 선수랑 제가 빨리 적응하는 숙제만 남았습니다.(하하하)

안상영 대박의 달라진 분위기에 힘을 얻었다니 뿌듯합니다. 그나저나, 대구FC의 달라진 위상에 자리에 대한 걱정은 없었나요.

김동진 당연히 걱정이 많았죠. 최근 들어 팀이 워낙 잘 나갔고, 2년 전과는 입지가 많이 달라져 복귀전을 치를 때만 해도 불안했죠.

김선민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대해 친정팀으로 복귀하는 즐거움만큼이나 '돌아가면 어찌지...'라는 걱정스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안상영 역시 그랬군요. 하지만 저는 이번 경기에 두 선수의 출전을 확신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베스트 일레븐에 두 선수가 딱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전역 전 세 경기를 연속으로 뛰었던 게 복귀전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김선민 감사합니다. 사실 생각보다 기회가 빨리 왔어요. 구단이나 팬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전력을 다해 뛰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안상영 그러고 보니, 오늘 우리가 특별한 인연으로 모이게 됐어요. 최태원 엔젤과 김동진 선수는 어떤 인연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최태원 김동진 선수와는 오래된 인연입니다. 2003년 김동진 선수가 대구 신흥초등학교 축구팀에 있을 때, 일본 대회에 팀을 주선해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공을 다루는 모습이 여간 아니라 꼭 지켜봤습니다. 아쉽게도 중·고등학교 때 대구에 유스팀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유학(?)을 갔는데 대학 때 결국 대구로 돌아오더군요. 얼마나 반갑던지... 그때 다시 만났어요. 초등학교 시절 제 눈에 쏙 들어왔던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 대구FC 선수로 활약해주니 너무 뿌듯하죠. 사실, 오늘 경기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오랜만에 뛰는 홈 첫 경기 인테 너무 잘해줘서 기특하고 흐뭇합니다.

최태원 안상영 엔젤은 김선민 선수와 어떤 인연인가요.

안상영 2017년 대구FC가 어려웠던 시절... 김선민 선수가 미드필드에서 알토란같은 활약을 했어요. 팀이 지더라도 김선민 선수의 키패스 하나로 위안을 삼았죠. 뛰어난 개인기로 찢러주는 그 패스!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함께 좋아해주더라고요. 당시 유니폼도 김선민 선수 등번호인 8번으로 맞춰 입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한 번씩 연락 주고받으면서 “대구FC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전역 후 꼭 돌아오라”며 부추겼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니 너무 좋네요.

최태원 김선민 선수 참 멋진 선수죠. 사실 김동진 선수도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거든요.

안상영 어허, 누가 더 엘리트인지 한 번 재볼까요?(하하하)

최태원 김동진 선수는 2016 시즌 대구FC 승격에 힘을 보탰고, 김선민 선수는 2017년 대구FC 1부리그 잔류를 이끈 핵심 중원이지요. 이참에 서로의 포텐셜을 이야기해보면 어때요?

김선민 동진이는 활동량이 훌륭해요. 적극적으로 뛰면서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그야말로 멀티플레이어죠. 현대 축구에서 가장 적합한 사이드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다 얼굴까지 잘생겼어요.(하하하)

김동진 선민이 형은 배우 유해진 씨를 닮았다는 댓글들이 많던데.(하하) 장내 아나운스에서도 ‘유해진 닮은 선수’라고 해서 팬들 모두 빵 터졌다고 하더라고요.(정작 김선민 선수 본인은 배우 이병헌을 닮았다고)

안상영 요즘 유해진 씨가 최고 인기남이에요. 예능이면 예능, 영화면 영화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우리 김선민 선수가 그마저도 꼭 빼닮았어요.

김동진 하하하. 사실 선민이 형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활동력과 패스력이에요. 작은 체구지만 깊이 전진하는 패스는 감탄을 불러일으키죠. 군 생활 2년 동안 섯덩이를 많이 들어서인지 몸이 더 다부졌어요. 수비력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안상영 오늘 김선민 선수 경기 뛰는 모습 보니까 확실히 몸이 벌크업된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다른 선수들과 부딪혔을 때 튕기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튕겨낼 정도로 투지력도 빛나고요. 경기 스타일이 군대식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하하하)

최태원 군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두 선수는 입대 후 아산 무궁화에서 함께 뛰었잖아요. 2년간 군 생활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김선민 아산에 있는 동안 리그에서 ‘한 가닥’ 했던 선수들, 국가대표급 선수들과 함께 뛰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이명주 선수’... 위대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장 안에서 감독의 역할을 해내요. 이명주 선수 말대로 하면 진짜 잘 된다니까요. 경기 운영 능력을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최태원 그만의 특별한 축구 철학이 있는 건가요?

김동진 공을 차는 레벨이 다르다고 할까요? 일단 폭넓은 시야를 갖고 있어요. 어느 위치에서든 주위를 살피고 기가 막히게 패스해요.

안상영 한살 위의 선수를 그렇게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대단한데요. 앞으로 선수생활에 많은 자산이 되겠어요.

최태원 지금까지 김동진 선수가 뛰는 경기는 거의 다 봤는데, 전역 후 경기를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철이 든 느낌이랄까...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지난 2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몸으로 익힌 것 같아 대견합니다.

안상영 대구FC에서 김동진, 김선민 선수 외에 100경기 이상을 뛴 선수가 몇 안 되죠. 두 선수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장점을 지닌 선수예요.

최태원 선수로서 대구FC는 어떤가요? 김동진 선수는 프로데뷔 후 대구FC 토박이로 팀을 지켰으니 더 잘느낄텐데요.

김동진 우선 대구FC는 선수들이 함께 숙소생활을 하니까 가족 같이 끈끈한 분위기가 있어요.

안상영 한 팀에서 여러 감독을 경험한 것도 특별한 경험이겠는데요. 지금의 안드레 감독은 어떤 분인가요.

김동진 감독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문화적 차이겠지만 안드레 감독은 브라질 출신답게 선수들을 잘 챙기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선수들이 해야 할 제 몫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거든요.

최태원 그렇군요. 김선민 선수는 울산, 안양, 대전 등 여러 팀을 경험했는데... 그만큼 대구FC만의 특징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나요?

김선민 대구FC는 ‘수비축구’가 특징입니다. 수비를 단단히 하는 방식이 저와도 잘 맞고요.

안상영 오늘 두 선수를 보니, 대구FC의 또 한 번 K리그 돌풍이 기대됩니다. 오늘로서 리그 후반기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팬들과 상위 스플릿에 대한 각오를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김선민 반겨주신 팬 여러분과 대구FC엔젤클럽에 진심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여세를 몰아 대구FC는 상위 스플릿을 넘어 4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동진 항상 대구FC엔젤클럽과 팬들이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덕분에 선수들이 많은 힘을 얻습니다. 오늘 복귀전을 무사히 치렀는데, 빨리 팀에 녹아들어 기존 선수들과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파이팅입니다.41

김선민(MF), 김동진(DF) 선수

열렬히 응원합니다~





엔젤의 아들 신창무의 아름다운 귀환
‘엔젤과 팬들에게 더 좋은 모습’ 약속

반가운 얼굴이 돌아왔다. 지난 9월 17일 상주상무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대구FC에 복귀한 ‘간판 허리’ 신창무 선수가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대구에 힘을 보탬 전망이다.

Photo by 대구FC



MF 94 신창무
생년월일 1992. 9. 17.
신체 170cm/67kg
주요경력
• 프로 통산 109경기 5득점 4도움
• 2014~2017 대구FC 72경기 3득점 2도움
• 2018~2019 상주상무 37경기 2득점 2도움

Photo by 대구FC

몸과 마음이 더 단단해져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17일부로 제대한 신창무 선수를 가장 반갑게 맞은 사람이 있다. 바로 신창무의 어머니이자 영원한 팬인 대구FC엔젤클럽 박기자 엔젤((주)무영 대표)이다. 지난해 1월 28일 신창무 선수가 입대할 때 같이 동행했던 박기자 엔젤은 “제대 전에 부상을 당해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부상이 크지 않고 재활과 훈련을 잘 하고 무사히 제대해 다행”이라며 “지금 팀이 상위권 순위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만큼 팀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아들의 복귀 소감을 밝혔다. 박기자 엔젤은 신창무 입대 당시 “창무가 입대하면서 대구FC에서 뛰지 못하지만 더 열심히 우리 팀을 응원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다. 그 후에도 엔젤 후원금 납부는 물론이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 경기장에서 대구FC 선수들을 열심히 응원하기도 했다. **“창무가 엔젤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을 잘 알고 있어요. 입대 당시 ‘더 좋은 선수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켜봐야 하겠지만, 상무에 있는 동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신창무 선수의 엔젤클럽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박기자 엔젤은 “아들이 팀에 복귀하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엔젤에게 인사를 전했다”며 엔젤들의 많은 사랑과 응원을 부탁했다. 한편 신창무 선수는 지난해 1월 28일 상주상무에 입대하면서 엔젤클럽 매거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상주상무에 있는 동안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엔젤에게 돌아오겠다”라고 아름다운 재회를 약속한 바 있다.**4***



지난해 1월 신창무 선수가 입대하면서 어머니 박기자 엔젤과 함께

HALF TIME TALK

피치 위에서 당신은 언제나 최고입니다

(왼쪽에서부터 베네딕토 코치, 홍정운, 세징야 선수의 아내,
그리고 에드가 선수 아내와 아이들)



니들이 R리그 알아? 흙 속의 진주를 찾아서



글, 박기원 엔젤
(대구FC엔젤클럽 엔젤본부 응원분과 운영이사)

뜨거운 여름 더위도 아랑곳 않는 R리그 현장

지난 7월 16일 오후 5시 대구스타디움 보조구장. 아직 폭폭 찌는 무더위는 여전했다. 마치 감춰진 세상의 또 다른 리그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대구FC의 K리그 홈구장이 대박으로 옮긴 탓에 대구스타디움의 함성은 사라졌지만, 또 다른 열정이 이곳에 새로운 전설을 만들고 있었다.

바로 R리그(리저브리그, R League)였다. 이날 대구FC와 상대한 팀은 부산아이파크다. R리그는 K리그1, K리그2가 섞여 참가한다. 이날 양 팀은 스코어 7:4, 총 11골을 주고받는 접전 끝에 대구가 승리했다. 물론, 승리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열정은 그보다 더 값지다.

바람 한 점 없는 여름날의 더위를 함께 한 엔젤클럽 회원들도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다. 소수의 인원이었지만, 그 사랑과 애뜻함은 대박 못지않았다. 실제로 엔젤클럽 엔젤본부 응원분과를 중심으로 R리그 선수들에 대한 응원이 절실하다는 주장과 함께 최근 많은 엔젤들이 R리그를 찾고 있다. 아직까지 R리그가 낯선 만큼, 많은 엔젤들이 K리그와 R리그를 구분하지 못한다. R리그는 흔히 2군리 그라 불린다. 한 팀 내 주전 등 1군에서 뛰지 못한 2군 선수, 즉 리저브 선수들이 뛰는 무대다. 현재 총 14개 구단이 참여, A조(중부리그), B조(남부리그)로 2개조로 나뉘어 진행하고 있다. A조 리그는 8개 팀으로 구성되며 2라운드 로빈(팀별 14경기), 그리고 우리 대구FC가 소속된 B조 리그는 6팀이 참여해 3라운드 로빈(팀별 15경기)을 치르게 된다. 또 2부리그와 2군리그를 혼동하는 경우도 많다. 2부리그는 말 그대로 2부리그에 소속된 팀들의 리그이다. 한때 챌린지리그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엄연히 'K리그2'로 명명된다. 대구FC도 강등되어 2부리그에서 뛰는 적이 있다. 이에 비해 2군리그는 팀 내에 주전으로 뛰지 못한, 그러나 미래가 있는 선수들이 뛰는 리그다.

이청용, 기성용 스타 선수들도 R리그 출신

대구에서는 김대원, 정승원, 김우석 배출

R리그는 중간에 존폐를 거치며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지금은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육성하는 점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의 경우 이청용, 기성용 선수도 R리그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거듭났다는 점에서 한국축구 발전에도 의미가 있다. 대구FC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대구FC를 누비는 김대원, 정승원, 김우석 등이 R리그에서 착실하게 성장해서 오늘에 이른 선수들이다. 실제로 대구FC는 2016년 15전 10승 2무 3패의 성적으로 R리그 남부리그에서 우승하기도 했다. 지금도 대구FC는 미래 선수의 육성을 위해 R리그에 남다

1 폭폭 찌는 여름 R리그 현장을 찾은 대구FC엔젤클럽 회원들이 R리그 선수 점검을 나온 안드레 감독과 함께 하고 있다.
2, 3 R리그를 거쳐 김대원, 정승원, 김우석 선수 등 대구의 차세대 스타들이 배출됐다.(2017년 이들이 뛰던 R리그 경기)



른 공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2군리그 선수들은 '프로'라는 이름하에 철저하게 경쟁체제에 내던져진다. 통상 K리그1 팀의 스쿼드는 35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경기 출전 가능한 선수는 보통 18~20명 정도다. 그 외 선수들은 부푼 꿈을 안고 프로선수로 출발했지만, 현실의 높은 벽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들에게도 기회가 있다. 바로 R리그다. 감독 등 코칭스태프가 흙 속의 흑진주를 찾아내듯 선수들의 기량을 체크한다는 점에서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같은 프로이면서도 1군 선수에 비해 열악한 조건 속에 사력을 다해 뛰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으로 애뜻하기도 하다. 생소한 선수를 보았을 때, 너무 무심했나 하는 미안함이 들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가능성 있는 선수에 대한 기대치로 즐겁기도 하다. 이들이 성장하여 언제 1군 스쿼드에서 출전 기회를 얻을 것인지도 내심 기다려진다. 하지만, 그들 역시 '프로'이기에 이 공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엔젤이 필요한 것은 안타까움과 애뜻함이 아니라, 진정한 응원과 격려의 박수다.

엔젤은 물론 많은 축구팬 R리그 선수 응원 절실

무명이나 다름없는 선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를 알아주는 팬도 있구나' 하는 듯 은근히 좋아하는 선수의 그 표정에 엔젤들은 흐뭇하다. 실제로 고태규, 예병원, 오후성, 고재현, 윤종태 선수 등은 이미 엔젤클럽 회원들에게도 낯익은 이름이다. 그 외에도 많은 어린 선수들이 엔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힘이 되어주고 싶고, 그래서 더 마음이 간다. 운동장에서 마주치면 더 친하게 인사하고, 북돋아 준다. 대구FC를 사랑하는 팬과 선수라는 공동체의 운명이 아닌가 싶다.

흙 속의 흑진주를 찾는 길은 미래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엔젤클럽은 대박의 스펙타클한 분위기를 즐기면서도, 대구의 미래를 위해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젊은 선수들을 위해 올해부터 R리그 경기에 응원을 가고 있다. R리그의 팀은 관람 나온 주전 선수들과 허물없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구단에서도 주전 선수들에게 R리그 경기를 챙겨보도록 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운 좋으면 안드레 감독과 주전 선수들을 함께 볼 수 있다. 아울러 언젠가 R리그에서 뛰던 선수들도 스타급 선수로 자라 엔젤과 함께 관중석에서 옛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R리그 선수들에게 격려와 함께 파이팅을 보낸다. 여기에 더 많은 엔젤, 그리고 축구팬들이 이들의 가능성이 꽃필 수 있도록 R리그에 자주 나와 박수쳐주기를 바란다.4

올해 대구FC엔젤클럽(이하 엔젤클럽)의 주무대는 DGB대구은행파크(이하 대박)이다. 선수들의 열정적인 플레이와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 유럽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는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오늘날의 대구FC와 대박, 그리고 K리그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다. 수많은 영욕 속에 묵묵히 어려운 과정을 이겨낸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화수분처럼 쏟아지는 대구FC의 어린 선수들이 바로 그들이다. 어찌 대구FC뿐이겠는가, 화려한 미래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K리그의 어린 선수들이 오늘도 R리그라는 무대에서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다.



춘천 가는 길



글. 박성수 엔젤
(신화헬스엔드의료기)

춘천으로의 이끌림

6월 23일 서울전의 아까운 패배가 하루가 지나도 가시지 않았다. 지난 경기를 생각하니 더더욱 마음 한쪽이 쓰러온다. 지난 서울 원정 때 경기 종료 후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한 시간 동안 낮을 놓다 온 걸 생각하며 이번에는 시원하게 복수해 주리라는 믿음이 컸던 탓일까? 제주전까지 아직 일주일이 남았는데, 축구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려면 축구밖에 없지 않은가?

악몽을 꺾야 할 상황인데 이상하게 기분 좋은 꿈을 꾸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기분! 다음날 마침 일요일이고 일정도 없어 리그 일정을 찾아보았다. 눈에 들어온 강원과 포항의 경기, 그곳에 가면 지난 강원전에서 뒤흔던 강원팬 진영호 씨와 가족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극적인 날씨, 극적인 경기

강원팬 진영호 씨와 가족분들을 처음 만난 건 강원전과 U-20 대회 결승 단체 관람이 있었던 지난 6월 15일 DGB대구은행파크(이하 대박)에서였다. 자리에 앉자마자 1분 만에 들어간 김우석의 자책골에 이어 김대원의 득점, 전반 종료 직전 강원 조재완의 골로 2:1로 후반을 맞았다. 그리고 그대로 끝날 것 같았던 경기는 후반 종료 직전에 극적인 골로 강원과 사이좋게 2:2로 승점 1점을 나눠 가졌다. 이날 경기는 날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2:1로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장대비가 쏟아졌다.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하늘에서 BB탄 총을 쏘는 것처럼 구슬 같은 게 떨어지더니 곧이어 경기가 중단되고 대피하라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S석에 있던 그라지에 서포터즈는 우박을 맞으면서 스탠딩석을 지키며 응원했다. 잠시 후 재개된 경기에서 보답이라도 하듯 후반 종료 직전 류재문의 극장골이 터져 기분 좋게 3:1로 승리했다. 곧 이어지는 U-20 경기에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기다리며 잠시 대박 인근에서 휴식을 취했다.

축구를 통해 맺은 소중한 인연

U-20 결승전을 기다리며 대박 근처에서 배회하던 중, 대박 1층 시민삼겹살에서 엔젤클럽 회원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향했다. 하늘색과 주황색 유니폼이 한 데 어우러져 적과의 동식을 하고 있었다. 엔젤본부 이사님들께서 회식하던 중 성점화 다이아몬드 엔젤님이 옆에서 식사하던 강원팬 진영호 씨 가족분들을 함께 모시자고 하여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했다. 부부와 아들, 딸, 4인 가족이셨는데 자제분 둘 다 진로가 축구라고 해서 관심이 생겼다. 성점화 다이아몬드 엔젤님은 두 자제분들에게 축구도 열심히 하고 응원도 열심히



다음날 마침 일요일이고 일정도 없어 리그 일정을 찾아보았다. 눈에 들어온 강원과 포항의 경기, 그곳에 가면 지난 강원전에서 뒤흔던 강원팬 진영호 씨와 가족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 1 춘천송암스포츠타운
- 2 2019년 6월 23일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강원FC VS 포항스틸러스 티켓





1 강원팬 진영호 씨 가족들과 춘천 송암경기장에서
2 춘천에서 강원팬 진영호 씨 가족과 함께

히 하라고 용돈을 주셔서 자녀들은 물론 부모님들도 감동했다. 축구를 통한 대구와 강원팬의 소통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다. 서로의 칭찬과 격려 속에 분위기는 무르익고, 함께 U-20 경기 관전을 하기로 했다. 전광판에 나오는 선발 라인업에 강원FC 이재익, 이광연 선수가 나오니 옆에 있던 강원 아이들은 방방 뛰며 자랑스러워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대구 FC와 강원FC가 서로 다른 구호로 응원했으나 이제는 두 팀 모두 대~한민국 한목소리로 응원했다. 하늘색 대구 유니폼과 주황색 강원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경기를 보니 지나가던 시민들은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경기가 지날수록 아이가 추워하는 것 같아서 가지고 있는 유니폼과 엔젤 재킷을 덮어 주니 주변 대구팬들이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경기 결과는 아쉬웠지만, 서로 다른 응원팀을 가진 팬들이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에 서로 뿌듯해했다. 다음에 만날 것을 기약하고 서로 명함을 주고받았다.

춘천 가는 길

6월 24일, 지난 경기 때 받은 명함으로 연락을 했다. 때마침 진영호 씨도 가족들과 함께 경기 관전하러 갈 계획이라 했다.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3시간 30분이 걸리는 여정이었지만 생각보다 가까웠다. 수도권 고속도로보다 차가 밀리지 않고 통행량이 적어서 운전하기도 수월했다. 지난해 강원 원정에 가본 적이 있어 경기장은 익숙했다. 새 경기장 같은 종합운동장, 팀 스토어 앞은 랜덤박스 이벤트로 북적였다. 하지만 대박보다는 확연히 인파가 많아 보인 않았다. 팀 스토어 앞에서 진영호 씨를 만났고, 티켓을 받았다. 강원 서포터즈 나르샤가 있는 N석 가변석이라 하늘색 대구FC 유니폼을 입고 가기 껄끄러워 다시 사복으로 갈아입고 온다고 하니, 대구 유니폼은 괜찮다며 입고 입장하라고 하셨다.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대구와 강원은 사이가 나뉘었던 적이 없었고 한때 '대대강광'이라는 애칭과 함께 1부리그, 2부리그에서 함께 희로애락을 느꼈으며 거기에서 K리그1 승격 동기라 좋게 봐주시는 강원팬분들이 많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 그렇게 강원 홈 서포터즈가 있는 N석에 갔고 미리 도착한 진영호 씨 가족분들이 맞아주신 가장 앞자리로 갔다.

춘천으로 원정(?) 온 강원팬들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도착해 여유가 있었다. 잠깐 화장실 가려고 경기장을 배회하던 중 대구 유니폼을 입고 있는 나에게 몇몇 강원팬분들이 '대구팬인 것 같은데 어찌 오셨나?'며 물어봤다. 진심으로 강원 응원하러 왔다고 말씀드렸고, 진심이 통했는지 진지한 대화가 이어졌다. 그분들은 대구FC와의 인연을 잘 알고 있었다. 2016년 2부리그 시절, 평창 알펜시아스키점프센터 경기장에서 열렸던 강원과 대구의 경기에서 혼자 걸어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허진 씨를 평창 읍내까지 태워다 드렸던 기억을 꺼내면서 그때부터 대구FC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말하셨다. 그때도 강원과 대구는 함께 승격하자며 약속했었고, 그 해 그 약속이 정말 현실이 되어 두 팀이 같이 승격해 정말 기뻐했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대박, ACL에 처음 진출해 성과를 거둔 점, 그리고 상반기 리그에서의 의미 있는 성적을 부러워했다. 그중에서 대구에서의 작은 축구전용구장 성공이 좋은 본보기라며 강원에도 대박 같은 경기장을

짓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강원은 대구와는 사정이 달랐다. 강원은 강릉, 춘천, 원주 등 인구가 분산되어 있고 각 지역에 팬들이 흩어져 있어 섣뚱 어디에 경기장을 지으려면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했다. 본인도 강릉에서 두 시간 이상 걸려 춘천에 왔다고 하였고 옆에 있던 분은 수도권에서 살면서 매번 홈경기에 방문하신다고 했다. 실제로 진영호 씨 가족분들도 원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경기를 보러 한 시간 이상 달려 춘천으로 왔다. 오히려 춘천시민보다는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 보였다. 홈경기를 한 시간 이상 달려서 관람하는 열정에 나도 모르게 숙연해졌다.

1열, 골대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고도 믿기 힘든 춘천 극장

선수들이 입장할 때 K리그 주제곡 'Here is the glory'가 퍼지면서 나도 모르게 들떴다. 오늘 하루만큼은 강원 서포터즈 나르샤가 되어보자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경기에 몰입했다. U-20 대회에서 멋진 활약을 펼친 이광연 골키퍼가 기대되었고, 주변 나르샤분들도 첫 선발 출전하는 이광연 선수에게 박수를 보냈다. 강원은 경기 초반부터 라인을 높이 올리며 강한 압박을 보여주었으나 슈팅 정확도가 떨어지며 번번이 역습 찬스를 내주었다. 결국 완델손에게 두 골을 내주며 0:2로 전반전을 마쳤다. 하프타임 때 아까 마주친 그 강원팬분들을 다시 마주쳤다. 오늘은 안 되는 날 같다며 이미 패배를 예상했다. 그분께 대구팬인 제가 지원 왔으니 오늘은 무조건 이길 것이라며 후반전 때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다. 그분은 너무 기대는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첫 데뷔선발전을 하는 이광연 선수를 격려했다. 다시 맞이하는 후반전, 경기 시작 후 10분이 지나 또 실점했다. 다들 망연자실하며 표정이 굳어진 것이 보였다. 대구 유니폼을 입고 있던 나는 좌불안석이 었다. 또 다시 실점해 0:4가 되니 주변에서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축구에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 시점일 것이다. 만약 대구FC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나는 잠깐이라도 경기장을 빠져나갈 고민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가변석에서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때 들려오던 구호, '정신 차려 강원'이 가변석 전체로 퍼졌고, 그 소리를 듣고 선수들이 반응했을까? 곧 이어 베테랑 정조국이 제리치와 교체되어 들어오고 분위기가 전환되었다. 공이 박스까지 전달되기 힘들던 강원은 정조국이 투입되며 과감한 돌파로 박스 안까지 이어졌고 좌우에서 흔들려대니 포항 수비진이 허둥지둥하며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결과는 조재완의 골로 이어졌고 1:4 한 점 차로 따라붙었다. 가변석 분위기는 동점골 넣은 것 이상으로 기뻐했고, 울고 있던 아이는 울음을 푼 그치고 한 골이라도 만족하는 듯했다.

그때 또 다시 들려오던 구호, '할 수 있어 강원'이 가변석 전체로 퍼졌다. 축구는 흐름과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원이 또 한 번 증명했다. 나르샤가 뒤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니 선수들은 자신감 있게 골문으로 향했다. 이어 발렌티노스의 골이 터지고 2:4가 되면서 관중석에 있던 전 관중은 모두 기립했다. '할 수 있어 강원'이라는 구호는 정말 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전광판 시계가 멈춘 90분부터 기적이 연출되었다. 조재완, 정조국의 골로 동점이 되면서 이것마저도 기적이라 해도 무방한데, 정조국의 추가 골로 0:4였던 경기는 5:4의 대역전극으로 끝이 났다. 뒤돌아보니 기쁨에 겨워 눈물 흘리는 분들

그때 또 다시 들려오던 구호, '할 수 있어 강원'이 가변석 전체로 퍼졌다. 축구는 흐름과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원이 또 한 번 증명했다. 나르샤가 뒤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니 선수들은 자신감 있게 골문으로 향했다. 이어 발렌티노스의 골이 터지고 2:4가 되면서 관중석에 있던 전 관중은 모두 기립했다.





- 1 강원팬 진영호 씨 가족들과 엔젤들이 함께한 식사자리
- 2 안상영 엔젤이 발간한 <축구는 대구다, 대구는 엔젤이다> 책과 엔젤클럽 매거진, 그리고 대구FC 마스코트인 '빅토' 학용품 세트와 '리카' 담요를 선물하는 모습
- 3 대구FC 김대원 선수 사인을 전달받은 진영호 씨 자녀 하은, 하람

도 있었고 너나 할 것 없이 어깨동무하며 열광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경기가 4점 차로 지고 있더라도 끝까지 자리 지키고 응원하는 나르샤, 그에 보답하듯 포기하지 않는 선수단. 모두가 완벽한 강원에 감동했다. 감동의 여운이 가시지 않아 대구로 가는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나르샤는 선수단 버스 앞에서 카니발(승리 후 경기장 밖에서 하는 응원)을 하였고 강원 응원곡을 부르며 같이 동참했다. 가사는 자세히 몰라도 마치 미친 사람처럼 따라하니 확성기를 들고 있던 나르샤 콜리더가 멀리 대구에서 온 분도 있다고 소개해주셨고, 박수를 받았다. 한참 이어진 카니발이 종료되고 그분께 달려가 강원의 FA컵 선전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그분도 대구를 응원하고 있다며 화답해주셨다. 선수단 버스가 떠난 후에도 이어진 카니발이지만 끝까지 응원을 포기하지 않은 강원 서포터즈 나르샤가 승리의 기쁨을 충분히 즐기기에 모자란 시간이었다.

그 이후의 이야기

8월 24일, 대팍에서 올 시즌 3번째 강원과의 경기가 열렸다. 경기 며칠 전, 진영호 씨에게 이번에도 대구 원정을 오는지 물어보았다. 가족들과 같이 내려온다는 답변을 받았다. 마침, 그날 엔젤본부 뒤풀이 모임이 있어 경기 후 초대해도 되는지 주최자에게 물었다. 당연하게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다들 진영호 씨 가족분들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었고 꼭 초대해달라고 부탁했다. 진영호 씨도 가족들과 논의 후 흔쾌히 수락했고 그렇게 대팍 근처 축발집에서 함께하는 뒤풀이 모임이 성사되었다.

경기는 3:1 대구 승으로 끝났지만, 종료 휘슬을 불기 전까지도 안심할 수 없던 경기였다. 4점 차를 뒤집는 강원의 저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일 수도, '병수불'의 위력이 시즌 내내 이어지고 있는 강팀이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진영호 씨 가족분들에게 경기 결과에 대해 위로의 말을 꺼내려던 찰나, 따님인 하은 양이 하는 말이 인상 깊었다. "우리 쪼잔한 사람 아니에요, 대구가 잘했어요." 경기 결과를 바로 수긍하고 축구 그 자체를 즐기는 듯 어른스러운 멘트였다. 보통 경기 결과가 아쉬우면 다음 경기 전까지 1주일 동안 괴로워하는데 하은 양의 어른스러운 태도에 경이로움을 느꼈다.

뒤풀이 장소로 이동 중 돌아가는 원정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는 강원 서포터즈 나르샤 대열을 만났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나눴다. 서로 박수를 쳐주는 훈훈한 장면도 연출되었다. 그렇게 뒤풀이 장소에 도착했다.

먼저 먼 길 원정 오신 진영호 씨 가족분들을 위해 선물 증정식이 있었다. 우리 엔젤클럽은 작게나마 선물을 준비했다. 안상영 엔젤이 발간한 <축구는 대구다, 대구는 엔젤이다> 책과 엔젤클럽 매거진,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대구FC 마스코트 '빅토' 학용품 세트와 '리카' 담요를 드렸다. 특히 하은 양과 하람 군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이 느껴졌다. 성점화 다이아몬드 엔젤님은 지난번 모임에 이어 또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셨다. 가족분들이 진심으로 기뻐한 이유는 단순히 선물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전달했기 때문이 아닐까.

맛있는 족발을 함께 먹으며 훈훈한 이야기가 오가던 찰나, 우연히 조광래 대구FC 대표이사님이 같은 곳에 식사하러 오셨다. 타 팀 팬이지만 특유의 온화한 미소와 사투리로 강원팬 가족들을 반가이 맞아주시고 아이들을 보듬어 주셨다. 아이들은 말로만 듣던 조광래 대표이사님을 직접 대면해 유니폼에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으며 감격했다. 조광래 대표이사님도 훈훈한 광경을 보고 흐뭇해하셨다. 화합의 건배 제의도 계속되었다. 강원FC를 선창하면 대구FC를 외치고, 반대로 대구FC를 외치면 강원FC를 외치기도 했다. 엔젤클럽의 영업 비결(?)도 전파하고 강원FC에도 제2의 엔젤클럽이 탄생하길 바라는 진심도 전했다.

또한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듣고 조언도 해주며 사람 사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렇게 시간은 금방 흘러갔고 다음에 상위 스플릿에서 다시 재회하길 바라며 모임을 마무리했다.

며칠 뒤, 하람 군이 대구FC에서 김대원 선수를 가장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태건 엔젤클럽 상임부회장님께서 사인볼과 사인지에 친필 사인을 받아 진영호 씨 자택으로 직접 보냈다. 하람 군과 하은 양이 받자마자 코팅을 하며 감격했다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 연락을 받은 엄태건 상임부회장 또한 흐뭇해하셨다.

축구는 민간 외교

강원FC 경기장에 대구 유니폼을 입고 갔는데 강원팬들이 이렇게 반겨주실 줄 상상하지 못했다. 그건 아마도 예전에 대구 서포터즈 허진 씨와 강원팬분들의 훈훈한 미담이 소개되어 좋았던 기억만 있었던 것은 아닐까? 지금도 대구FC 팬들은 축구로 민간 외교를 하고 있다. 대구FC 그라지예 소모임 '구름'은 대구 FC 경기를 보기 위해 방문한 일본인 토모야 씨를 진심으로 환영하였고, 그분은 대구FC에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갔다.

또한 히로시마 원정 경기에서 유니폼과 머플러를 교환한 대구FC 서포터즈 그라지예와 엔젤클럽은 훗날 대팍에서 히로시마 원정단과 반갑게 재회하기도 했다. 대팍에는 매 경기마다 수많은 원정팀과 팬들이 방문한다. 경기 전후반 90분 동안은 적이다. 선수들은 그라운드 위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우리 팀과 상대 팀 서포터즈는 선수들을 위해 쉴 새 없이 응원한다.

하지만 경기가 종료되면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각팀 선수들은 상대 팀 선수들에게 존중의 의미로 인사를 한다. 어느새부터 정착된 K리그만의 문화다. 엔젤클럽은 아이러니하게 원정석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한다. 경기 종료 후 원정팀은 원정석에 인사를 하고 라커룸으로 들어가기 전 엔젤석 앞을 지난다. 그때 수고한 원정팀 선수들과 원정 서포터즈에게 박수를 보낸다면 어떨까? 선수라면 대구FC라는 팀에 오고 싶어 할 것이고 원정 서포터즈라면 대구라는 도시와 대구시민들에게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갈 것이다. 경기장 내에서는 치열하게 응원전을 주고받더라도, 경기장 밖에서는 서로를 인정하고 덕담이 오간다면 대구FC에 대한 좋은 기억만 가지고 훗날 다시 돌아올 것이다. 타 팀 팬들과 서로 Respect를 공유한다면, Here is the glory 더욱더 큰 영광이 될 것이고, Here is the happy 우리는 더욱더 행복해질 것이다.4*

경기 종료 후 원정팀은 원정석에 인사를 하고 라커룸으로 들어가기전 엔젤석을 앞을 지난다. 그때 수고한 원정팀 선수들과 원정 서포터즈에게 박수를 보낸다면 어떨까? 선수라면 대구FC라는 팀에 오고 싶어 할 것이고 원정 서포터즈라면 대구라는 도시와 대구시민들에게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갈 것이다.

팀 K리그 VS 유벤투스FC 관람기

글. 손지훈(대구FC엔젤클럽 주임)



세계적인 빅클럽 유벤투스와 맞서 싸우다

지난 7월 26일, 팀 K리그와 유벤투스FC의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일반 팬이 아닌 대구FC엔젤클럽의 대표로 간다는 것에 감회가 남달랐다. 오전에 사무실에서 엔젤클럽 머플러를 챙기는데 괜히 비장함(?)마저 느꼈다. 드문드문 축구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을 보니 벌써부터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했다. 대구FC에서는 조현우, 세징야 2명의 선수가 팀 K리그 베스트로 뽑혔다. 특히, 조현우 선수는 전체 투표 1등, 세징야 선수는 필드플레이어 중 1등으로 뽑혔다. 대구FC가 축구 붐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았다. 서울역에 내려 지하철로 갈아타고 서울월드컵경기장에 도착했다. 경기 시작 4시간 전이었지만 열정이 넘치는 축구팬들로 광장은 매우 분주했다. 예약한 표를 발권하기 위해 사람들은 비를 맞아가며 긴 줄에 섰다. 매

표소 임시 부스까지 설치해 놓아서, 발권이 비교적 신속히 이뤄져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경기장에 입장하고 착석을 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역시 호날두의 파급력은 대단했다. 관중들이 입은 유벤투스 유니폼 대부분이 등번호 7번 호날두였다. 유니폼으로 인한 수입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처럼 대구FC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도 몇몇 보였다. 타지에서 보니 더욱더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 사진을 찍으며 경기를 기다리는 중에 의아한 점이 생겼다. 경기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선수들이 나와서 몸을 풀지 않았다. 조현우 선수와 송범근 선수도 몸을 풀다가 곧장 들어가 버렸다.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아니나 다를까, 경기 10분 전 유벤투스 선수단 사정으로 경기가 지연된다는 알림이 전광판에 나왔다. 생전 처음 겪는 일에 당황스러웠지만, 관중 모두 별 항



의 없이 곳곳이 기다렸다. '일반 K리그 경기였다면 과연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 호날두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 유벤투스 선수들은 오후 8시 10분에 도착을 했고, 그제서야 몸을 풀기위해 그라운드로 뛰어나왔다. 어찌됐던 관중들은 큰 함성으로 선수단을 맞이했다. 1,000억 수비수 데 리히트, 아르헨티나 대표팀 선수 이과인 등 세계적인 선수들을 실제로 보니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팬들이 가장 기다리던 호날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교체 명단에는 이름이 올라가 있었고, 계약에 45분 이상 뛰는 조항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선발 출전은 아니더라도 관중 모두가 큰 기대감에 차 있었다. 경기가 시작되고, 팀 K리그는 예상과는 달리 유벤투스에게 뒤쳐지지 않고 대등하게 맞서 싸웠다. 경기 초반 오스마르의 환상적인 중거리 골과 유벤투스의 잘 짜여진 팀플레이에서 나오는

섬세한 골에 관중들은 매료되었다.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호날두의 모습이 전광판에 비춰질 때마다 관중들은 소위 미친 듯이 열광했다. 호날두도 화답하듯 손을 올리며 제스처를 취했다. 경기가 무르익을 무렵, 세징야가 대포알 같은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자신의 우상 호날두 앞에서 골을 넣고, 그의 세레머니를 펼쳐보였다. 관중들은 세징야를 연호했고, 세징야 네이밍이 마킹된 유니폼을 입은 나는 엔젤클럽 머플러를 흔들며 미친 듯이 열광했다. 우리 선수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기뻐다.

경기의 주인공은 '세날두' 세징야

그렇게 전반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었다. 45분 이상 뛰기로 계약했다는 호날두는 여전히 벤치에 있었고 모든 관중들은 당황하며 불안해했다. 경기는 흘러가고, 유벤투스가 선수 교체를 할 때 모든 관중이 애타게 한목소리로 "호날두!"를 외쳤지만 호날두는 그 자리 그대로였다. 후반전에도 양 팀은 멋진 경기력과 멋진 골들로 관중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발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을 텐데 팀 K리그의 실력은 정말 놀라웠다. 경기 종료 시간이 다가오고, 나를 포함한 관중들은 호날두의 모습이 전광판에 비춰질 때마다 아유를 보냈다. 심지어 라이벌인 리오넬 메시를 연호했다. 그렇게 아유와 함께 3:3 동점으로 경기가 끝났다. 호날두는 팬들에게 인사조차 없이 곧장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눈물을 흘리며 부모에게 찡얼대는 아이들의 모습과 욕을 하며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관중들이 보였다. 무슨 사유로 사인회에도 불참하고, 경기에 결장하며 계약을 어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피치 밖에서 호날두의 모습은 프로페셔널 하지 않았다. 대신 세징야가 떠올랐다. 세징야는 골을 넣고 호날두 대신 호날두 세리머니를 했다. 오히려 프로다웠다.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이번 경기에서 풀타임으로 뛰는 것이 한편으로는 염려됐지만, 세징야는 팬들이 있었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경기는 아유 소리로 마무리되었다.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호날두가 나오지 않은 것에 그다지 큰 불만은 없었다. 세계적인 빅클럽 유벤투스와 대등한 경기를 펼친 세징야와 K리그 선수들을 뵈기에 행복했고, 유벤투스의 스타들이 있었기에 즐거웠다. 한편으로는 빨리 DGB대구은행파크에서 K리그 선수들을 다시 보고 싶을 뿐이었다. 더구나 우리 대구FC 최고의 스타 세징야가 경기 MVP에 선정되어 너무 기뻐다. 그날 세징야는 있었고, 호날두는 없었다. 호날두 노쇼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의 열기와 아름다운 양 팀의 경기력의 잔상은 길이 남을 것 같다. 대구로 돌아가면 세징야에게 더 많은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 박수에는 그날의 영웅 세징야에 대한 찬사도 포함되어 있다.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구장을 가다

글. 안용모 엔젤(전 대구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스칸디나비아의 불꽃 노르웨이

금년 1월 신비의 대륙 남극 탐험에 이어서 7월에는 북극 탐험에 나섰다. 7박 8일의 북극 탐험에 이어서 한 달간의 여정을 이용해 노르웨이의 섬 로포텐제도의 헤닝스베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국내 방송에도 소개된 축구장을 찾아갔다. 엔젤이 된 이후에 어딜 가나 축구장부터 달려가는 일정으로 계획을 세우게 된다.

지난해 세계 축구팬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던 2018 FIFA월드컵이 프랑스의 우승과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온라인 스포츠 매체인 스포츠바이블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구 경기장 5곳’을 소개했다. 노르웨이 북부 로포텐제도의 작은 어촌마을에 건립된 축구장. 지역주민을 위한 스포츠 시설이지만 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특징과 독특하고 장엄한 주변 풍경을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멋진 축구장으로 불리는 곳을 찾았다. 노르웨이는 국토 중앙과 남서부가 넓은 고원지대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어업 및 임업 국가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광업과 제조업이 발달했다. 특히 해저 유전 개발을 기점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업·중공업에 기반을 두고 눈부신 경제 성장을 했다.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여행지 1위에 선정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수많은 여행자가 오늘도 노르웨이로 향한다. 신이 내린 피오르드 지형과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고대 바이킹 유적까지, 노르웨이의 매력은 열 손가락으로 꼽아도 부족하다. ‘겨울왕국’ 노르웨이는 오로라가 펼쳐지는 겨울도 좋지만, 여름만이 가진 매력도 많은 여행지다. 여름은 우리나라 봄, 가을 날씨 정도로 야외 활동 하기 좋다. 특히 7월엔 여러 도시에서 다양한 축제가 펼쳐지며, 해가 지지 않는 백야현상 시기에 진가를 나타내는 여행지들을 즐길 수 있다. 노르웨이는 수만 년 전 북극의 빙하가 대지를 깎고 지나가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선과 피오르드가 탄생했다. 오로라, 눈썰매 그리고 한여름 극지에서 볼 수 있는 밤중의 태양이 있는 곳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오슬로. 도시 여행, 스발바르 제도의 북극 탐험 등 노르웨이는 즐길거리로 가득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사체 ‘로포텐제도’

노르웨이는 남북으로 2,000km 길게 뻗은 나라다. 노르웨이 북부 지역의 중심지이자 북유럽의 파리라 불리는 트롬쇠에서 본토와 이어진 아름다운 다리를 건너거나, 보되에서 배를 타면 사람들이 가장 극찬하는 풍경 속으로 갈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알려진 로포텐제도는 뾰족한 바위산과 구불구불한 피오르드 해안선, 바다 가운데 수백 개의 섬이 점점이 박혀있어 그 아름다움이 알프스에 비견되는 곳이다. 진짜 노르웨이는 오슬로 보다는 저 북쪽 로포텐제도에 숨겨져 있다.



섬들마다 아름다운 경치와 박물관, 마을들이 산재되어 있다. 각 섬들은 해안선을 따라 로맨틱한 가도의 터널과 다리들로 연결되어 있다. 이곳은 해가 지지 않는 백야현상으로 초저녁처럼 환하다. 피오르드, 미드나이트 선, 오로라, 트레킹, 자연스포츠, 하이킹, 박물관, 먹거리, 즐길거리 등 이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신비의 청정지역이다.

이곳에서 4박 5일을 보내며 어부들의 마을인 발스타드에서 〈세계테마기행〉에 소개된 3대째 어부생활을 하고 있는 비르겐 씨와 함께 대구잡이를 나가기도 했다. 세계 최대 대구 생산지인 로포텐제도는 북극해 인근의 대구들이 산란을 위해 돌아오는 곳으로, 바다 위에 떠있는 어부들의 숙소나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전통가옥 로르부(Rorbuer)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노르웨이가 왜 행복한 나라가 되었는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로포텐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림 같은 헤닝스베르 마을

로포텐제도의 가장 큰 도시인 스볼베르에서 20km 떨어진 헤닝스베르(Henningsvaer) 마을. 아름다운 해안길을 따라가면 섬처럼 바다 한 켠에 자리하고 있는 작은 어촌마을로 멋진 경관을 자랑하는 아치형 콘크리트 교량을 건너 닿게 된다. 마을 입구, 흡사 전쟁터의 장벽처럼 엮여져 있는 대구 덕장이 눈길을 끈다. 옛날에는 대구를 잡는 어업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관광산업이 주를 이루는 인구가 500명 조금 넘는 작고 아름다운 마을이다. 한적한 어촌 마을 헤닝스베르와 메인 아일랜드인 로포텐제도 사이의 관문에서 섬의 전망을 보기 위해 교량 위에 멈춰 서면 아름다운 장관이 펼쳐진다. 멋진 피오르드 해안선과 헤닝스베르를 구성하는 섬들이 예쁘게 흩어져 있다. 이 작은 섬들은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고 해안과 바위 그리고 마을은 선착장으로 이어지며 섬을 한 폭의 그림처럼 이어간다. 물 위의 방파제처럼 일렬로 멋지게 늘어선 로르부의 붉은색 목조 건물에 감탄하게 된다. 골목과 바위섬 그리고 해안가를 걸어서 아름다운 헤닝스베르의 속살을 보며 해안 산책로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작은 섬의 가파른 산과 언덕은 예쁜 집들과 흔들리는 보트 돛대에 숨 막힐 듯한 배경을 여행자에게 드러낸다. 겨울에 폭설이 내리면 헤닝스베르 교량은 물론이고 여행자들은 발이 묶인다. 이동하기 위해 눈이 멈출 기상 조건을 기다려야 한다는데 그 설경에 빠지려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니 미소가 번진다. 헤닝스베르를 중간쯤 걸었을 때 벽면에 낙서처럼 누군가 ‘Venice of the North’라고 써 놓은 것이 눈에 들어왔다. 바다 하구가 마을 중심까지 들어와 물의 도시 베니스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로포텐 마을 중 손에 꼽히는 아름다운 풍경을 지닌 북극의 베니스라는 말에 수궁이 간다. 로포텐에서 물가에 지어진 집들을 쉽게 볼 수 있었지만, 헤닝스베르가 특별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 스볼베르에 배낭을 맡겨 두었고, 이 날의 숙소는 발스타드(Balstad)에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룻밤

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아쉬웠다. 하루 정도는 여기저기 걸어보고 머물고 싶은 마을이었다.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키며, 판타지 영화 속 배경 같은 마을을 산책하다 보니, 첫 만남의 흥분된 감정이 몸과 마음에 담백하게 재워져 한결 뿌듯해지고 여유로움까지 느껴진다. 마을 해안가 여기저기 로르부가 줄지어 있어 인간의 속소리는 이름이 쓰인 나무 물고기 조각이 벽면에 매달려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주인장 이름의 문패나 팬션의 방 이름표 같으려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행자들이 마시는 진한 커피 향과 따뜻한 음식 냄새가 웃음소리와 함께 밖으로 퍼져 나온다. 문득 참 부럽고 외롭다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좋은 풍경의 헤닝스베르를 과연 죽기 전에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 섞인 푸념이 입가에 맴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구장, 헤닝스베르 스타디움

아름다운 섬 로포텐제도의 헤닝스베르에 가면 거친 바위섬을 깎아 만든 독특한 축구장이 있다는 소문을 방송과 신문으로 본 적이 있어 찾아 나섰다. 지난해 월드컵 후 스포츠바이블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구 경기장으로 소개한 노르웨이 북부 로포텐제도의 작은 어촌마을에 건립된 축구장. 담장 대신 대서양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고, 파도와 바닷새 소리를 들으며 축구를 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구장이란다. 이 축구장의 이름은 헤닝스베르 스타디움(Henningsvaer Stadium)이다. 빙하와 안개로 덮여 있는 산, 작은 바위섬으로 연결된 골목길과 굴곡진 수로를 따라 이어진 해안선 로르부와 바다로 둘러싸인 노르웨이의 작은 섬은 멋진 게임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환경이 되고도 남을 것 같았다. 헤닝스베르제도에 있는 작은 어촌마을의 축구장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풍경으로 다가왔다. 해발 6m 높이에 위치한 헤닝스베르 축구장은 스탠드가 없다. 그래서 아마추어 축구 경기에만 사용된단다. 하지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곳에서 공을 차고 경기를 하고 싶다는 욕망이 하얀 파도의 포말처럼 일어난다. 이곳에서 뛰고 달리고 차고 싶었다. 축구장 입구는 어부들이 설치해 놓은 대구 건조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축구장은 2000년대 후반에 드론으로 찍은 사진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단다. 현재 Henningsvaer IL 축구클럽이 Ole Johan Wiik의 리더 하에 관리하고 있다. 헤닝스베르 마을 사람들이 축구를 많이 좋아하고 즐겨서 이곳의 아마추어 선수를 위해 만들어졌다. 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향기가 넘쳐나는 헤닝스베르 스타디움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듯한 매력의 축구장이다. 여유로운 바닷바람의 향기가 매력적인 공간에 위치한 축구장은 자연과도 잘 어우러지는 것 같다. 피오르드 해안으로 둘러싸인 작은 바위들 사이에 그림처럼 펼쳐진 축구장은 파란 잔디의 색깔과 매혹적인 경관으로 살아 숨 쉬고 있다. 이곳은 경기 시에 거칠게 태클하거나 서두르지 않아도 되며, 스탠드가 없어 모든 걸 다 보지 않아도 경기가 오롯이 마음에 머문다. 주위의 바위가 모두 스탠드 역할을 하므로 별도의 스탠드가 필요 없어 보이기도 했다. 경기장의 맑은 공기도, 자연과 어우러진 은근한 여유로움도, 이 경기장 속에 차분히 머물고 싶어지는 이유다.

함성 대신에 들리는 파도 소리로 마치 경기 속 주인공이 되어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대자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자신을 만나게 되는 곳 같았다. 유명 경기장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간직한 축구장은 이곳 주민들의 표정에서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축구장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그곳에서 태극기와 세계 제일의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깃발을 흔들며 대구 FC의 필승을 기원했다.

헤닝스베르 스포츠 팀은 1927년에 설립되었으며, 이곳에서 자란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포츠 팀에 있다. 주로 활동이 많은 축구를 하고, 큰 상금은 많은 사람들의 열정적인 노력의 결과로 이어졌단다. 또 대구FC와 같은 자원 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오늘과 같은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몇 년 동안 헤닝스베르에 있는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문을 개방하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 축구팀과 청소년을 위한 축구시리즈 게임을 운영하고 있다며 자랑스러운 설명을 들었다.

경기 전이나 경기가 끝나고 승패에 상관없이 한가로이 걸어 다니며 즐길 수 있는 이 축구장은 빨간 등대와 더불어 완벽한 주변 바위 언덕들이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그 바다엔 순백의 요트들이 자유로이 드나든다. 바다와 나란히 이어진 도로를 따라 늘어선 노천카페에는 자유와 소소한 일상, 축구장의 이야기가 행복한 표정으로 숨어 있는 듯 했다. 축구장 언덕에 올라 한



- 1 해안선 수로를 따라 이어진 북유럽의 베니스 헤닝스베르 마을의 로르부
- 2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구장이 있는 헤닝스베르 마을 안내 표지판
- 3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 클럽으로 운영되고 있는 헤닝스베르 스타디움. 많은 아마추어 경기를 소화하며 경기 날은 마을 주민들과 여행자들의 축제날이라고 한다.

눈에 보이는 탁 트인 경관은 여행자의 자유와도 닮았다. 빨간 등대, 초록의 그라운드와 하얀 골대가 주위의 파도와 함께 바람 따라 물결치는 듯하다. 상쾌한 공기가 부푼 마음을 달래주고, 흡사 축구장에 온 자동차처럼 대기하고 있는 배들은 해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 갈매기 소리와 가끔 터지는 바위 위의 서터 소리는 이 축구장을 향한 여행자들과 축구팬들의 진한 감정 표현 같았다.

이렇게 예고 없이 경기 없는 날 훌쩍 찾아와 혼자서 걸어도 좋고, 주변 바위에 올라 축구장을 내려다보며 캔맥주나 진한 커피 한잔의 향에 취해도 좋은 곳이다. 축구장의 아쉬움을 뒤돌아보며 주위로 대구 덕장이 사열하듯이 서있는 골목길을 따라 축구장을 나섰다. 우체국을 겸한 슈퍼에 들어가 기웃거리며 엽서와 우표를 사도 환하게 맞아주는 헤닝스베르. 편안하게 마음으로 다가오는 친구 같은 마을의 아름다운 축구장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다.4

‘Angel Day’ 행사 제안 대구FC엔젤클럽을 알리자



대구FC의 경제적 후원자
대구FC엔젤클럽(이하 엔젤클럽)은
대구시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는 대구FC의 흥행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단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홍보 동영상
노출과 깃발 응원 퍼포먼스
등과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엔젤석과 서포터석을 제외한
라이트팬들에게는 엔젤클럽이
어떠한 단체인지에 대한 정보
전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대구FC의 한 명의
팬으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 중인 많은 엔젤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엔젤클럽을 알리며 더
나아가 더 많은 회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Angel Day(가칭)’ 행사를
제안하려 한다.

스플릿 돌입 전, 홍보 효과 극대화 예상

먼저 행사 날짜는 이번 시즌 스플릿 돌입 전 홈경기 중 하나 혹은 엔젤클럽 창단 일(1월과 2월) 또는 창립총회(7월 25일)로 추려보았다. 스플릿 돌입 전이라고 굳이 제한을 둔 이유는 일반 팬들에게 스플릿 경기는 매 경기 치열한 경기로 여겨지기 때문에 엔젤클럽 행사를 하기에는 스플릿 경기 시기가 부적합하다고 여겨졌다. 또한 이번 시즌을 제시하는 이유는 대구FC가 관중몰이를 하고 있어 홍보에 적합한 타이밍이기 때문이다. 다른 옵션으로 제시된 엔젤클럽 창단일은 시즌 중이 아니므로 관중 동원이 어렵고, 창립총회는 창단이라는 정당성과는 온전하게 들어맞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스플릿 돌입 전 홈경기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전 구장 단위의 깃발 퍼포먼스로 ‘임팩트’를

첫 번째는 전 좌석 깃발 퍼포먼스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엔젤클럽에서 재활용하는 깃발이지만, 비용이나 회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다소 저가의 깃발을 전 좌석에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함이 좋을 듯하다. 지급된 깃발을 경기 전 그리고 하프타임 깃발 흔들기 퍼포먼스의 응원도구로 활용하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회수가 아닌 지급을 함으로써 일반 팬들이 가져가서 보관하게 된다면 엔젤클럽의 노출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아직 전 구장 단위의 깃발 퍼포먼스는 한국에서 많은 시도가 된 적이 없다. 대구FC가 K리그를 선도하는 구단으로서 이러한 퍼포먼스를 한다면 큰 임팩트를 남길 것이다.

외치자! ‘We are Daegu’

두 번째는 엔젤클럽 회장단 시축 및 ‘We are Daegu’ 구호 제창이다. 엔젤클럽 행사의 취지와 맞게 엔젤클럽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단이 등장하여 시축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듯하다. 또한 이미 대구FC에서는 선수들 입단식을 진행할 때 ‘We are Daegu’를 외치고 있다. 엔젤클럽 행사에서 대표단이 이러한 구호를 팬들과 같이 외칠 수 있다면 대구시민, 대구FC 서포터즈, 대구FC 구단 그리고 엔젤클럽이 모두 대구 아래 하나라는 의미를 표출시킬 수 있다.

장내 아나운스로 효율적 홍보

세 번째는 장내 아나운스를 통한 홍보다. 전광판을 통해 이미 많은 엔젤클럽 홍보 영상이 노출되고 있지만, 일반 팬들에게 아직 엔젤클럽의 존재는 생소하다. 경기 전 행사를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장내 아나운스를 통해 엔젤클럽 가입 방법, 가입비 그리고 혜택의 정보를 전달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홍보가 될 것이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많은 미디어 노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지역 신문 혹은 더 나아가 전국구 스포츠 신문의 기자들이 엔젤클럽 행사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게 된다면,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엔젤클럽을 노출시킬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FC가 자생 구단으로 나아가는 길에 앞장선 엔젤클럽이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대구시민들에게 각인이 된다면 단체의 성장에도, 대구FC의 성장에도 모두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구단 대구FC가 새로운 성공 사례를 써내려 갈 수 있도록 열렬히 지원 중인 엔젤클럽이라는 단체는 더 많은 팬들의 관심과 감사를 받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한다. ⁴⁾



글. 오동근
(조지아공과대학교 의공학과)

ANGEL CAR DIARY

엔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엔젤카가 간다!





엔젤카 다이어리!

대구·경북 곳곳 누빈

엔젤전령사의 에피소드

엔젤카가 간다. 엔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올해 들어 엔젤카는 20,000km 이상 달렸다. 대구는 물론 경북지역도 예외는 없다. 일부에서는 엔젤카를 보고 반갑다며 사진도 찍어 보낸다. 가끔은 전화를 하며 '뒤에 있습니다! 파이팅!'이라고 응원해준다. 엔젤카는 축구사랑, 대구사랑을 릴레이하는 사랑의 전령사다. 만나면 모두들 환영해준다. 아름다운 이야기와 시話が 쏟아진다. 지난 3달 동안 엔젤카와 함께한 엔젤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사진, 김종두(대구FC엔젤클럽 사무총장)

엔젤카는 대구FC엔젤클럽(이하 엔젤클럽) 이호경 회장이 지난해 엔젤클럽 사무국 업무용으로 기증한 것으로 단순한 차가 아니라 엔젤의 정신을 담았다. 특히 엔젤카 후원 소식이 들리자, 비회원인 윤경일 (주)글로벌에스피 대표가 엔젤카 디자인은 물론 최고급 래핑까지 무료로 후원해 감동을 자아냈다. 엔젤카는 엔젤클럽 사무국 업무는 물론 엔젤클럽 회원 방문, 타 지역에 원정도 다니며 곳곳에 엔젤정신을 심고 있다.

※ 8월말까지의 엔젤카 다이어리입니다. 혹시 빠진 신 분이나 9월 이후 엔젤카 방문 엔젤은 다음 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2019. 6. 4

박한석 엔젤(가운데)

팔공산엔 축구천사가 산다

굽이굽이 팔공산 순환도로를 따라 엔젤을 찾아갑니다. 명산 팔공산에도 엔젤이 삽니다. 박한석 엔젤(팔공CC 대표)님이 반가이 맞아주십니다. 7월 11일 대구FC 홈경기에 꼭 오시겠다며 약속하셨습니다. 박한석 엔젤님은 회장단과 엔젤의 열정을 보고 감동했고, 엔젤클럽 회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진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만년 하위인 대구FC가 오늘에 이른 것은 엔젤의 역할이 크다고 앞으로도 더 나은 대구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엔젤카 하산길을 직접 배웅해 주셨습니다.



2019. 6. 4

김승필 엔젤

엔젤 후원은 계속된다

오늘도 씬 없이 엔젤 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엔젤카가 방문한 분은 김승필 엔젤(삼성프린팅솔루션 대표)입니다. 축구를 무척 좋아하지만 최근에는 업무가 너무 바빠 중계로만 대구FC 경기를 보며 응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가지 못하지만 잊지 않고 선수들을 후원하며 엔젤의 의무를 다해주고 계십니다. 시간을 내서라도 꼭 대박에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엔젤의 후원은 선수들을 춤추게 합니다.



2019. 6. 5

윤민환 엔젤(오른쪽)

치맥킹! 엔젤킹 되다!

한주의 정점 수요일! 오늘은 윤민환 엔젤(치맥킹 대표, 사진 오른쪽)님께서 하루를 열어주셨습니다. 요즘 새로운 지점 오픈 등으로 바쁘게 보내는 등 엔젤 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시간을 내서 대박에 오기로 했습니다. 지난 인천 원정경기 때 범어동에 있는 치맥킹 수성점에서 엔젤과 함께 응원, 대승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때를 기억한 윤민환 엔젤은 이번에 황금점을 오픈하며 엔젤들의 단체 응원을 위하여, 40명이 들어가는 대형룸을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원정응원을 가지 못할 경우 이곳에서 단체 응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엔젤에 대한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마침 배종길 엔젤님(사진 왼쪽)이 지나가다 엔젤카를 보고 들어와 함께 인증샷을 남기셨습니다.



2019. 6. 13

최일식 엔젤

엔젤은 감동호르몬!

〈책은 도끼다〉의 저자 박웅현은 '감동 잘 받는 것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증인이 조승우 엔젤님이 추천해주신 최일식 엔젤입니다. 최근 들어 엔젤의 순수한 지역사랑과 봉사에 감동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축구를 좋아하던 최일식 엔젤님은 그동안 조승우 엔젤로부터 엔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지역과 축구를 위해 활동하는 엔젤의 정신에 고무되었다고 합니다. 여타 모임과 달리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엔젤의 순수성이 너무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박웅현은 '감동 잘 받는 사람은 일도 잘한다'고 했습니다. 감동맨 최일식 엔젤님은 그동안 국민은행 지점장을 지내다가, 100세 시대를 맞아 제2의 생활을 위해 최근 학교를 다니며 배움에 열중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시 감동받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SNS 마케팅을 통해 엔젤과 엔시오 홍보에 헌신하고 있는 조승우 엔젤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성욱 엔젤

웃는 얼굴 엔젤 얼굴!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후입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 이성욱 관장님께서 엔젤로 가입해주시면서 멋지게 한 주를 마무리해서 행복합니다. 이성욱 관장님은 매일타리더스아카데미 총동창회 동기분들을 통해 엔젤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으며, 얼마 전 협약식에 아쉽게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날 배성희 엔젤님과 함께 엔젤에 가입키로 했으나 급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조금 늦게 가입하셨습니다. 곧바로 주변에 좋은 분이 있어서 릴레이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금요일을 웃는 얼굴로 마무리한 만큼 내일 대구FC와 U-20 대표팀에게도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이성욱 엔젤님의 동참에 감사드리며, 배성희 엔젤님 등 이번에 단체로 함께 해주신 매일타리더스아카데미총동창회 여러분에게도 감동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9. 6. 13



2019. 6. 24

박준곤 엔젤

월요일은 엔젤로 시작

엔젤로 시작되는 희망의 월요일입니다. 김종두 사무총장이 추천한 박준곤 송곡문화재단 이사장님이 이호경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엔젤에 가입, 후원금을 바로 납부해주셨습니다. 박 이사장님은 축구에 대한 애정이 대단했습니다. 축구장에 가보진 못했지만 스포츠TV를 통해 대구FC 경기를 빠짐없이 챙겨볼 정도였습니다. 엔젤에 대해서는 재단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이호경 회장의 자세한 설명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간 나는 대로 꼭 경기장에 가서 응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엔젤에 가입하신 박준곤 이사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시간 내서 엔젤클럽 설명과 사인볼을 전달하신 회장님, 그리고 엔젤카를 몰고 다니며 추천해주신 김종두 총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 6. 24

구본탁 엔젤

스마일 먼데이!

스마일 먼데이! 웃으며 월요일을 마무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스마일약국의 구본탁 대표님이 엔젤에 가입하면서 행복하게 마무리합니다. 지난 번 대파에서 FC서울과의 경기를 보며 많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피치 위에서 혼신을 다해 뛰는 선수들의 모습, 그리고 이 선수들을 부모 같은 마음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엔젤! 그 사랑이 지역사회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침 이길수 대구시체육진흥과장님의 권유를 받고 주저 없이 바로 가입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엔젤클럽 회원으로 추천할 대상을 찾아 엔젤 가입 작업에 들어가시는 열정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월요일을 웃음으로 마무리하게 해주신 구본탁 엔젤님 감사드리고, 추천해주신 이길수 과장님 고맙습니다.



2019. 6. 27

이경숙 엔젤

햇살의 흔적, 엔젤의 흔적

장맛비가 그치니, 햇살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햇살의 흔적처럼 엔젤들도 흔적을 남기십니다. 오늘 엔젤카는 엔젤의 흔적을 따라 이경숙 (주)미식주 대표님을 찾았습니다. 엔젤의 흔적을 남겨주신 분은 천자우 엔젤클럽 자문위원님이십니다. 천자우 자문위원은 이경숙 대표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축구를 통해 지역을 사랑하는 뜻 깊은 봉사를 함께 하자.”고 추천하셨다고 합니다. 그 흔적을 따라 이경숙 대표님도 “평소 주위의 좋은 분들로 부터 지역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엔젤클럽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는데 함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가입키로 하셨습니다. 엔젤카와 촬영하는 모습이 비 그친 햇살처럼 밝고 환하셨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빗속에 남긴 반가운 햇살 같은 환함이었습니. 후원금도 바로 납부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경숙 대표님, 그리고 엔젤의 흔적을 남겨주신 천자우 자문위원님 감사합니다. 엔젤카는 이어지는 엔젤의 흔적을 찾아 다시 떠납니다. 엔젤클럽 파이팅!



2019. 6. 28

엄재국 엔젤

엔젤 액츄얼리

Angel actually is all around. 엔젤은 사실 어느 곳이나 존재합니다. 엔젤카가 세상 곳곳에 계신 엔젤을 찾아다닙니다. 마침 동구 혁신도시에 있는 엄재국 엔젤님((주)쓰리에이치 부회장)을 찾았습니다. 추천해주신 강정영 엔젤님도 동행하셨습니다. 엄재국 엔젤님은 엔젤카가 찾아가자 오히려 함께할 기회를 주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좋은 성적과 새로운 구장 대파에서 펼쳐지고 있는 엔젤의 응원 모습에 감동받으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되대로 적극 참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엔젤이 계셔서 든든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든든히 지켜주고 계신 엄재국 엔젤님, 그리고 추천은 물론 후원금 납부 안내까지 해주신 강정영 엔젤님 감사드립니다.



2019. 7. 4

김경록 엔젤

엔젤 가입하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

아프리카 속담에 '나무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엔젤 가입하기 가장 좋은 때는 '엔젤' 추천을 받은 '그때'입니다. 그 다음 좋은 날은 바로 '지금'입니다. 추천받고 바로 가입하면 아마 그때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신도DS판매(주) 신도대구사무기 김경록 대표님은 엔젤 가입하기 최고인 때, 추천받은 바로 '지금' 엔젤에 가입하셨습니다. 엔젤에 대해 어렵듯이 알고 있었지만, 오늘 주진현 엔젤(하늘나리 대표)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함께 추천을 받고, 바로 가입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좋은 때에 추천해주신 주진현 엔젤님에게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김경록 엔젤은 평소 축구를 좋아하는 터라 앞으로 시간이 나는 대로 열심히 엔젤활동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가입서 작성과 함께 후원 절차를 마치셨습니다.



2019. 7. 5

김형식 엔젤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은 요즘 '불금'이라 하여 들뜬 분위기이지만, 일부 종교계에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특정 종교인은 아니지만, 참 뜻깊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엔젤에게 금요일은 참 행복한 날입니다. 바로 주말에 대파에서 '우리들의 축제'가 열리기 때문이지요. 대파를 오시는 분이든, TV로 우리 선수들을 지켜보시는 분이든 맘 한 구석에는 언제나 기분 좋은 들뜸이 가득합니다. 이런 금요일을 더욱 값지게 하는 것은 우리 선수들에 힘이 되는 후원입니다. 대구시 북구 배드민턴협회장으로 스포츠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김형식 엔젤님((주)동인전력 대표)께서 후원금을 납부해주시며 뜻깊은 금요일을 열어주셨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축구팀 응원을 다닌 기억이 남드라는 김형식 엔젤님은 외곽지에 있는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반갑다고 하시며 세상 좋은 웃음으로 맞아주셨습니다. 김형식 엔젤님의 사랑에 금요일이 더욱 뜻 깊어집니다. 감사합니다.



2019. 7. 8

최은석, 도문경 부부엔젤

엔젤은 가족!

오늘 저 나직한 지붕 아래서 / 코와 눈매가 닮은 식구들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는 시간은 / 얼마나 따뜻한가

— 이기철 <네 컬레의 신발> 중에서

대박 엔젤부스에 있다보면, 엔젤은 아닌데 괜히 낯익은 얼굴이 많습니다. 표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엔젤의 아드님, 따님, 동생, 조카, 아내(가족은 닮아가는 모양입니다), 남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기철 시인의 가족 시 <네 컬레의 신발>의 따뜻한 시구가 저절로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오늘 저 대박 지붕 아래서 / 코와 눈매가 닮은 식구들이 한데 모여 대구를 응원하는 시간은 / 또 얼마나 따뜻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엔젤은 가족의 동의어인 것 같습니다. 요즘 부부엔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지난 주말 또 한 쌍의 부부엔젤이 탄생했습니다. 최은석 엔젤님(참조은병원 원장)의 추천으로 부인이신 도문경님께서 엔젤에 가입, 부부엔젤이 되셨습니다. 특히 주말 경기에는 아드님도 오셨습니다. 척 보니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최은석 엔젤님, 도문경 엔젤님 감사드리고, 월요일 아침이 훈훈해 지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수요일이나 그 어느 경기에서 ‘코와 눈매가 닮은 식구들이 대박에 모여 응원할 날’을 기대하며, 엔젤 가족 모두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건우 엔젤

또 행복의 충격!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오늘 행복의 충격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구건우 엔젤(PR네트웍스 대표)입니다. 엔젤카 역시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구건우 엔젤님과 통화가 되는 대로 바로 찾아보았습니다. 구건우 엔젤님께서 바쁜시 월요일 중에도 엔젤카를 환영해주시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이런 엔젤의 힘이 대구와 대구FC에 ‘행복의 충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건우 엔젤님 감사합니다.



2019. 7. 8

박민주, 이다혜 엔젤

행복의 충격!

참으로 이곳에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아니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올 곳은 아니다. 그곳에서는 아직도, 행복은 습관이 아니라 충격이다. 행복은 이 땅 위에 태어난 우리의 하나뿐인 의무이다.

— 김화영 <행복의 충격> 중에서

지중해를 사랑하고 번역문이 미려하기로 널리 알려진 김화영의 글입니다. 지금 바로 행복하고 싶은 사람, 행복에 충격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제격인 글입니다. 요즘 대박이 바로 행복이 의무인 땅, 엔젤로 다시 태어나는 행복의 땅입니다. 이 행복에 충격받은 두 청춘님들이 소리 소문 없이 엔젤에 가입하셨습니다. 20대의 두 청춘! 박민주(사진 왼쪽), 이다혜(사진 오른쪽)님입니다. 평소 대구FC를 관람하는 축구팬으로서 자연스럽게 엔젤클럽을 알게 되어, 대박을 찾았고 지금 당장 행복에 빠져들기 위하여, 의기투합 천사의 날개를 달았습니다. 친구분인 두 분은 아마도 최연소 엔젤일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엔젤 가입이 엔젤에게는 또 하나의 ‘행복의 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7. 8



2019. 7. 8

김재범, 김정현 엔젤

행복의 충격 3

우리가 사랑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하여야 할 것은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 김화영 <행복의 충격> 중에서

행복에 혼절한 날! 오늘이 지나기 전에 엔젤의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합니다. 30대의 잘생긴 두 청년분께서 또 다시 엔젤을 행복으로 혼절시킵니다. 김재범 선진회계법인 팀장님(사진 왼쪽)과 김정현 백년밥상 대표님(사진 오른쪽)이 주인공입니다. 김재범 팀장님은 평소 공운옥 엔젤(선진회계법인)님께 엔젤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고, 지역과 추구를 위한 엔젤의 모습에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김정현 대표님과 함께 엠태건 엔젤클럽 상임부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엠 부회장의 권유를 받고 엔젤에 가입하셨습니다. 월요일을 ‘엔젤데이’로 만들어 주신 김재범, 김정현 엔젤님, 그리고 엠태건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2019. 7. 8



2019. 7. 9

엠태건, 정호균 엔젤

엔젤의 풍경

말들은 저마다 자신의 풍경을 갖고 있다. 그 풍경들은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다르다.

— 김현 <말들의 풍경> 중에서

엔젤카가 엔젤사무국으로 가는 길에 자주 지나치는 곳이지만, 엔젤 두 분이 그렇게 들어서 있으니 그 풍경이 뭔가 다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살얼음이 낀 막국수를 막 먹고 나온, 두 사람. 포만감은 넉넉해진 위장뿐만 아니라 가까워진 두 분의 심장 거리만큼 밀도가 높습니다. 스벅 커피가 아니라도 한 손에 든 종이컵이 풍요로워 보이는 오후의 풍경입니다. 마침 거리를 지나다 들린 고향 같은 식당에서 두 분이 또 그렇게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박노식 영화배우를 닮은 정호균 엔젤(메디피아 대표, 사진 오른쪽)님은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후원금을 내주고 계십니다. 지난해 7월 5일 내고, 겨우 1년하고도 4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기억하시고는 “아이고, 내가 늦었다”시며 카드를 건네주시는데, 막국수가 괜히 콧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호균 엔젤님! 변치 않는 엔젤의 풍경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이 듬뿍 담긴 등뼈짐에 시원한 막국수까지 함께 내어주시고, 아울러 정겨운 풍경이 되어주신 엠태건 엔젤님! 고맙습니다.

이중호 엔젤

행복할 의무

월요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마무리는 이중호 엔젤님((주)세신정밀 대표)께서 해주셨습니다. 바쁜시 중에도 엔젤카의 방문을 환영해주시며 엔젤의 의무, 행복할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젊은 엔젤님들의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하루였습니다. 아울러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에 엔젤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충격’을 주신 엔젤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 7. 10

김중곤 엔젤

문지도 따지지도 않는

김중두 엔젤클럽 사무총장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엔젤카를 주차하고 급하게 사무실을 찾았는데, 김중곤 엔젤님(인슈미디어그룹 대표)께서 '문지도, 따지지도 않고' 카드를 꺼내놓고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를 가득 채워, 이런저런 일상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무총장의 얼굴에 반갑다며 반겨주셨습니다. 경기를 하루 앞둔 화요일 오후, 문지도 따지지도 않을 엔젤사랑이 넘칩니다! 대구의 힘입니다.



2019. 7. 11

주대중 엔젤클럽 자문위원

엔젤스토리아

엔젤카는 오늘도 출동했습니다. 곳곳에 건재하신 엔젤을 보면 대구의 힘을 느낍니다. 마치 헤로도토스의 '역사(히스토리아)'처럼 '엔젤의 역사(엔젤스토리아)'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엔젤카가 만난 엔젤은 바로 주대중 엔젤클럽 자문위원(함창교육재단 이사장)입니다. 언제나 찾아보면 행운의 선물로 2달러 지폐를 주시곤 하시지요. 신비의 2달러 지폐와 함께 후원금으로 대구FC와 엔젤클럽에 행운을 주셨습니다. 2달러 지폐는 미국 골드러쉬 때 긴 여정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겨낸다는 의미로 '2'라는 숫자를 좋아해 이후 화폐 단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편함 때문에 시중에는 잘 사용되지 않았고, 대신 몸에 지니면 행운이 따른다는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영화배우 그레이스 켈리가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로부터 받은 2달러 덕분에 모나코 왕국의 왕비가 됐다는 스토리도 있더군요. 가만히 되짚어 보니 지난해에도 맛있는 육회비빔밥과 함께 선풍 후원의 뜻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주대중 자문위원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드리며, 엔젤 여러분 모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 7. 12

김홍식 엔젤

찬란했던 순간

찬란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 매 순간을 찬란하게 만든다.

- 카잔차키스

이번 주는 경남과 전북전 무승으로 다소 다운된 분위기였지만, 엔젤은 찬란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엔젤과 엔젤이 신규로 가입하고,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납부해주셨습니다. 특히 엔시오의 경우 전북전 패배 후에도 이틀 동안 9명이 소리 소문 없이 가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홍식 TBC방송사업팀 차장님이 엔젤로 가입하시며 한 주를 마무리 했습니다. '진격의 다이아몬드 엔젤' 성점화님께서 추천해주셨습니다. 고맙고 고마운 한 주였습니다. 그야말로 매순간 찬란했던 엔젤이었습니다. 김홍식 엔젤님은 "경남과 전북전에서 분위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그동안 엔젤 이야기는 들었지만 직접 현장에서 느껴보니 진한 감동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금요일을 찬란하게 마무리해주신 김홍식 엔젤님, 성점화 다이아몬드 엔젤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매순간 찬란함을 만들었던 엔젤 그리고 엔시오,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 7. 15

박상열 엔젤

대박지교之交

'대박지교'. 요즘 대박에서 생긴 새로운 사자성어(?)입니다. '대박에서 맺은 우정'이라는 뜻이 될 텐데요. 대박에서 축구 보며, 대구를 응원하다보면 너도 나도 허물없이 한데 어울려 친구가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오늘 엔젤에 가입한 박상열 회계사(박상열공인회계사·세무사)님이 바로 '대박지교'의 좋은 예입니다. 박상열 회계사님은 말로만 듣던 대박에 최근 친구들과 함께 와서 응원하면서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친구분들과 함께 대구를 응원하며 깃발을 흔드니 모두가 친구처럼 친근하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마침 친구분인 김상덕 엔젤(부경TS 대표)님에게 엔젤 이야기까지 듣고는, 곧바로 엔젤과 '대박지교'를 맺어 버렸습니다. 특히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지역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신뢰 있는 친구니 그 얼마나 뜻 깊은 만남이겠습니까? '금석지교(金石之交, 쇠나 돌처럼 굳고 변함없는 교제)'의 인연을 실질적으로 맺어주신 박상열 회계사님, 그리고 추천해주신 김상덕 엔젤님 감사합니다.



2019. 7. 17

박정민 엔젤

세상이 움짤

마침내 / 세상이 움짤! / 한 순간이 없다면 한 생도 없는 것이다

- 천양희 <한 순간은 어디서 오나> 중에서

장마가 주춤한 7월, 엔젤카가 찾아 뵈 박정민 엔젤(칸 여행사 대표)은 요즘 자주 '움짤' '움짤' 하신답니다. 바쁜 일로 인해 아직 대박에는 못 갔지만, 엔젤의 열정과 대구FC 선수들의 화이팅에 움짤움짤 하신답니다. 그 움짤함에 감동해, 박정민 엔젤님께서도 후원금을 납부해주셨습니다. 또 한 번 세상이 움짤! 그렇게 엔젤의 정성이 더해지니, 세상이 '움짤'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엔젤의 정성과 사랑이 선수들에게 그렇게 '움짤' 전해집니다. 대구가 잘 나가는 순간! 어디서 올까요, 바로 엔젤들의 한 순간에서 옵니다. 휴가철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후원금 내주신 박정민 엔젤님 감사드립니다.



2019. 7. 17

하호만 엔젤

엔젤이 쏘아올린 볼

'엔젤볼'은 희망과 사랑, 열정의 상징입니다. 경기장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응원하시는 하호만 엔젤((주)도원주택개발 대표)이 이후의 시작과 함께 '엔젤볼'을 쏘아 올리셨습니다. 하호만 엔젤님은 후원금을 흔쾌히 납부하면서, 요즘 자주 경기장을 찾지 못하지만 우리 선수들을 늘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만간 바쁜 업무들이 정리되는 대로 대박으로 출동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호만 엔젤님과 함께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정영준, 이태훈 엔젤님께서도 처음부터 쉬지 않고 해마다 '엔젤볼'을 쏘아올리고 계십니다. 정영준 엔젤님은 요즘은 2군리까지 찾아다니시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고 계시지요. 후원금도 올해로 5년째 개근이십니다. 또 다른 개근상의 주인공 이태훈 엔젤님 역시 변치 않는 후원금 납부 외에 엔젤클럽 신문광고, 각종 디자인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계신, 뱃 속까지 엔젤계의 로맨티스트 중 한 분이십니다. 하호만, 정영준, 이태훈 엔젤님 세 분 모두 감사드리며, '엔젤볼'의 상징인 희망과 사랑, 열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19. 7. 19

김옥열 다이아몬드 엔젤

금강金剛의 지혜!

동양에서 '다이아몬드'를 이르는 말 가운데 하나가 '금강金剛'이라고 합니다. 깨뜨릴 수 없이 단단한 것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금강의 지혜'는 그 자체로 순수하고 단단하여, 샅된 것에 흔들리지 않고, 어디에 걸림 없이 의로운 마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대구FC와 대구의 발전을 위한 엔젤클럽의 단단한 마음이 금강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전북경기가 열린 날 김옥열 (주)화신 회장님은 성점화, 문경화 다이아몬드 엔젤과 함께 대박에 오셔서 엔젤클럽의 금강석처럼 순수하고 단단한 정신과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익을 바라지 않고 대구를 위해 순수하게 후원하고, 승리에 기뻐하며, 패배에도 오히려 선수들을 격려하는 것에 감동받으셨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처럼 단단하고 찬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강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김옥열 회장님은 이런 분위기 속에 당시 신입엔젤 가입식에서 다이아몬드 엔젤이 되시기로 하셨습니다. 김 회장님은 "지역과 대구축구 발전에 든든한 후원자인 엔젤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가입 일성을 밝히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김옥열 회장님의 가입으로 앞으로 엔젤클럽이 더 '금강'처럼 단단하게 대구사랑을 이어갈 것이라 기대됩니다. 큰 뜻 내어주신 김옥열 회장님, 그리고 추천해주신 성점화, 문경화 다이아몬드 엔젤님! 감사드립니다.



2019. 7. 22

예춘호, 장수미 부부엔젤

다행이다

나쁜 짓하고 꾀꾀한 마음일 때 죄지은 마음 /
빌 수 있는 돌부처가 계시다는 것이 /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중략)
내일은 누군가 쓰다 남은 행운이 내게 다가 /
울 것 같은 설렘이 있다는 것이 /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 이권 <다행이다> 중에서
스포츠가 왜 드라마이겠습니까. 가끔은 뜻하지 않던 승리가 오고, 때로는 뭐가 이렇게 안 풀리나 싶을 정도로 답답하고... 그래서 열정에 들떠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감에 하루 종일 꿀꿀한 기분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대구FC가 있어, 또 엔젤이 있어 '얼마나 다행입니까!' 함께 기뻐하고, 또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푸념도 하고 그러다 다시 용기 내어 함 해보자하고 의기투합하고... 또 얼마나 '다행'입니까.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또 엔젤님들이 변함없이 후원금을 납부하시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요, 지난밤의 패배로 자칫 실망스러울 수 있는 날 '그래도 엔젤이 있어 다행'임을 보여주신 예춘호, 장수미 부부엔젤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침 일찍 함께 후원금을 납부해주셨습니다. 두 분은 직접 앞에 나서시지는 못하지만 뒤에서 언제나 후원하고 응원하겠다고 하셨지요. 두 분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시집 이름이 '아버지의 마술'입니다. 엔젤의 마술처럼 다행스럽게도 '행운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패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설렘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엔젤이 있어서요.



2019. 7. 25

김우일 엔젤

엔젤의 의무를 다하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엔젤의 의무를 잊지 않고, (주)김생교육 김우일 엔젤님께서 후원금을 납부해주셨습니다. 바쁜업무 속에 경기장을 찾아 직접적으로 응원은 못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항상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목요일을 찬란하게 마무리해주신 김우일 엔젤님 감사드립니다.



2019. 7. 26

정호윤 엔젤

금요일 오후를 밝게 연 반가운 소식

최원식 엔젤님(건축사사무소 리더) 소개로 엔젤클럽에 가입해주신 정호윤 엔젤(건축사사무소 청연)을 소개합니다. 정호윤 엔젤님은 건축사 축구동호회에서도 골키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엔젤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대구FC 홈경기를 직관하던 중 선수들의 열정적인 모습 매료되었으며, 자녀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가입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후원금도 흔쾌히 바로 납부해주셨습니다. 엔젤클럽 일원이 되신 걸 환영하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 8. 12

김진성 엔젤

열혈남아熱血男兒!

언제나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 열혈남아 김진성(푸르덴셜생명)님! 엔젤카가 찾아가자 시원시원한 웃음으로 맞아주셨습니다. 김진성 엔젤님은 축구를 좋아하는 아들과 함께 대구스타디움에서 축구를 관람하며 엔젤클럽을 처음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마침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김강수 엔젤님의 권유에 선포 엔젤클럽에 가입하시고, 후원금도 바로 납부해주셨습니다. 같이 계시던 김강수 엔젤님도 기쁜 마음으로 회원증을 들고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대구FC 후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2019. 8. 13

문홍국 엔젤

엔젤에 끌리다



2019. 8. 14

김정희 엔젤

축구천사와 엔젤카

나를 길들여줘... / 가령 오후 4시에 네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 생텍쥐페리 <어린왕자> 중에서

김정희 엔젤(김정희건강피부관리실 대표)님! 제가 찾아뵙는다고 전화할 때부터 행복해지셨다니 감사합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잘 모르고 엠태건 부회장의 권유로 얼떨결에 가입하셨죠. 다 압니다. 하지만 고맙습니다. 잊지 않고, 찾아볼 때마다 반가워하고 행복해주셨습니다. 모르셨겠지만 김정희 원장님도 어느새 엔젤에 길들여 지셨어요. 제가 어린왕자가 아니지만, 그래서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전화드리고 출발하면서부터 행복해졌답니다. 김정희 엔젤님께 길들여졌나봐요!!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후원해주셔서... 이제 대박에도 길들여질 때가 됐습니다. 기다릴게요.(엔젤카로부터)

어쩌면 우리 인생의 네비게이션은 한 사람의 등짝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친구, 아름다운 사람. 닮고 싶은 어떤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누군가의 등. 그걸 보고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방향입니다.

- 이병률 <골림2> 중에서

대구사랑, 축구사랑의 길을 안내하는 '엔젤 네비게이션'을 따라 문홍국 뉴부림고속관광(주) 대표님께서 축구천사가 되셨습니다. 문 대표님은 친구와 함께 대박 E석에 경기 관람을 오셨다가, 건너편에서 엔젤깃발을 흔드는 사람들이 궁금하셨다고 합니다. 친구분으로부터 '엔젤클럽'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엔젤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고, 감동받으셨다고 합니다. 단순히, 감동에 그치지 않고 바로 엔젤사무국으로 직접 전화를 하셔서 자발적으로 가입, 엔젤사랑에 동참하셨습니다. 특히, 문 대표님은 중, 고등학교 시절 축구선수로 활동하실 정도로 축구에 대한 애정이 깊으신 분입니다. 우리 엔젤님들의 '등짝'을 네비게이션 삼아 축구천사가 되신 문 대표님은 즉석에서 '엔젤의 의무'를 마치셨습니다. 서로 등을 기댈 수 있는 엔젤가족이 되신 문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문 대표님의 든든한 등판을 보고 또 다른 분들이 엔젤의 길로 걸어오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2019. 8. 14

전성봉 엔젤

초원의 빛, 대박의 빛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어 / 나도 같은 생각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 또 어떻게 새로 시작해야 할지

- 핑크 마티니 노래 <초원의 빛> 중에서

전성봉 엔젤(오케이포인트마트 대표)님은 그동안 사업장 일로 정신없이 바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엔젤 활동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이제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경기장에 나오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동안 엔젤클럽과 대구FC의 소식은 틈틈이 챙겨보셨다고 하시며 변함없이 후원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한 숨 돌리고 경기장에 나오시면 핑크 마티니가 부르는 '초원의 빛'처럼 푸른 잔디와 뜨거운 함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삶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2019. 8. 14

김태건 엔젤

어마어마한 일

사람이 온다는 것은 /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

그는 / 그의 과거와 / 현재와 /

그리고 /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 정현중 <방문객> 중에서

엔젤로 산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엔젤 한 분 한 분 모두 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안고 대구사랑을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또 한 분이 엔젤로 오셨습니다. 이 또한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바로 김태건 골프원 대표님이십니다. 같은 이름을 쓰는 '태건 브라더스'의 엠태건 엔젤본부 상임부회장(태준메디칼 대표)님이 그 길을 인도하고 직접 마중까지 가셨습니다. 김태건 대표님은 별다른 모임은 하지 않고 있으나 지역과 축구사랑으로 뭉쳐진 엔젤클럽의 뜻이 너무 좋아 참여하기로 결심하셨고, 엠태건 상임부회장의 적극적인 추천에 힘입어 가입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엔젤이 탄생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건 대표님, 그리고 추천해주신 엠태건 상임부회장님 감사합니다. 내일 대박에서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2019. 8. 16

박철형 엔젤

한빛 인연

2016년 엔젤이 되신 박철형 엔젤(한빛에너지(주) 대표)을 저문 오후에 엔젤카가 찾아뵈었습니다. 엔젤 사무국에서 그동안 찾아뵙질 못했는데, 모처럼 찾은 길에 예상치 못한 '행복'과 '위로',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행복이 오고, 항상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위로를 받고, 항상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답을 찾습니다. 참, 인생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풀리는 것 같습니다.

- 레오 버스카글리아 <인연의 시간> 중에서

박철형 엔젤님은 그동안 엔젤 사무국을 방문하지 못했지만, 늘 엔젤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외근하는 길에 들릴까 했는데, 이런 저런 사정으로 들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엔젤카로 사무총장이 직접 찾아오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찢리는 건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 미안했는데, 이렇게 감사해주시니, 예상치 못한 '행복'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여건이 되는 대로 엔젤님들을 자주 찾아뵙는 것.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박철형 엔젤님은 지난해 깜빡하고 내지 못했던 후원금과 함께 2년 치를 즉석에서 납부해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사무총장은 두 번 감동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박철형 엔젤님은 "바쁜 일정을 핑계로 자주 못나갔는데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도록 경기장에 가겠다"시며 "지역과 축구를 위해 열정을 보이는 엔젤회원 모든 분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하셔서, 돌아오는 내내 등판이 뜨끈뜨끈합니다. 엔젤이 행복이고, 위로며, 답입니다. 이번 주도 엔젤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 8. 20

김성관 엔젤

대박 가는 길

정말로 행복한 나날이란 멋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날이 아니라, 진주알들이 하나하나 한 줄로 꿰어지듯이, 소박하고 자잘한 기쁨들이 조용히 이어지는 날들인 것 같아요'

— 루시 모드 몽고메리 <빨강머리 앤> 중에서

엔젤 사무국에서 대박으로 가는 날이면 언제나 눈에 들어오는 김성관 엔젤(주)이슬나라 대표)님의 사무실. 칠성시장에서 대박으로 가는 길은 그래서 언제나 반갑습니다. 어디 이곳뿐이겠습니까? 엔젤카를 타고 이 도시를 다니면, 곳곳에서 엔젤의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가 맞는데...”라며 혼자 읊조리고 다닌 답니다.

엔젤인으로서 느끼는 행복이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주알 같은 엔젤분들의 흔적을 곳곳에서 느끼는 것. 또한 그 분들과 함께 자식 같은 선수들을 응원하고, 애뜻해 하는 것. 그러한 소박한 기쁨들이 이슬처럼 조용히 맺히는 날이 하루하루 이어지는 것... 오늘은 김성관 엔젤님께서 그런 기쁨을 주셨습니다. 늘 마음은 대박이지만, 일이 너무 바빠서 오르지 못했다고 하시며, 후원금을 곧바로 납부해주셨습니다. 평소 생활축구를 통해 늘 축구를 즐기고 계시며, 아드님도 축구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이슬 같은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주신 김성관 엔젤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 8. 27

이복희 엔젤

우리 곁에

저만치서 오히려 / 꼭 채우는 / 그 /
먼 가까이를 걸이라 해도 좋을 일이다

— 문신 <걸을 주는 일> 중에서

‘걸’은 물리적인 거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심정적이고 정서적인 거리입니다. ‘옆자리’는 낯선 이에게 내어줄 수 있지만, ‘걸’은 그럴 수 없습니다. ‘살 부비고 싶어지는 거리’입니다. 2016년 가입하신 이복희 엔젤(광덕전력 대표)님은 우리 앞에 자주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늘 엔젤 곁에 계신 분입니다. 별도 연락이 가지 않더라도 교박교박 기억하셨다가 매년 후원금을 납부해주시며 “그저 이러는 게 좋고, 대구가 잘되는 게 좋다.”고 하십니다. 천상 엔젤이시지요. 앞으로 대박에 꼭 나오라는 말에도 “찾아와서 고맙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가기가 쉽지 않겠지만, 할 수 있는 만큼 변함없이 후원하겠다”며 “오늘의 엔젤을 있게 한 집행부와 엔젤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엔젤 곁을 지키기로 하셨습니다. 이복희 엔젤님 외에도 수많은 분들이 묵묵히 우리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대구FC와 엔젤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2019. 8. 28

장극윤 엔젤

소중한 만남

사람 사이의 만남은 / 어마어마한 인생의 선과 면들이 /
한 점으로 일치하는 일인 거 같습니다 / 그만큼 소중한 순간입니다. /
오늘은 누구를 만나시나요?

— 최남길 <만남> 중에서

오늘은 장극윤 엔젤(영진수예침장 대표)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지역의용소방대장이라는 직책을 맡으면서 대박에 갈 시간도 없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 임무를 마쳤으므로 다시 엔젤로 돌아오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엔젤님들의 활동을 보면서 많이 미안했는데 이제 엔젤 활동에도 많이 참여 하겠다”는 장 대표님은 “카톡도 처음에는 부담이었으나 지금은 엔젤 소식을 듣고 하다 보니 적응이 되어 편안하다.”고 일부러 찾아주시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옆에 계시던 사모님의 도움(?)으로 흔쾌히 후원금도 납부해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2019. 8. 30

조영래 엔젤

가슴 뛰는 청춘

그대 / 가슴이 뛰다면 / 지금이 바로 / 청춘

— 최남길 <마음 가꾸기> 중에서

언제나 청춘! 늘 활력 넘치는 조영래(원형건축 대표) 엔젤은 엔젤카가 오자마자 ‘지금’ ‘바로’ 달려와서 반겨주셨습니다. 매사에 쾌활하신 조영래 엔젤은 만나면 늘 즐거운 분입니다. 조영래 엔젤님 역시 올해로 3년 째 꾸준히 축구사랑, 대구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참 엔젤이십니다. 여러 업무로 인하여 대박에 자주 오시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은 늘 경기장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평소 생활축구를 즐기시며 축구사랑이 남다른 조영래 엔젤님의 가슴 뛰는 대구FC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19. 8. 29

김현만 엔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 심수봉 <그때 그 사람> 중에서

가을 장마입니다. 어제부터 출창 비가 내리니 그리운 사람, 생각나는 그 사람이 많습니다. 김현만 엔젤(서원종합건설 대표)님도 그 중 한 분이십니다. 마침, 김현만 엔젤님이 2016년 2월 엔젤 활성화를 위하여 모였던 분들과 함께한 사진이 컴퓨터 한 곳에 남아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잊지 않으시고, 말없이 후원금을 납부해주셨습니다. 제주도에 일이 많으셔서 대박에 자주 못 와 아쉬워하고 계시지만, 꼭 시간을 내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지난번 대구FC가 제주 원정 갔을 때에 응원 가기로 하셨으나, 하필 출장이 잡혀서 경기장에 가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또, 엔젤카 해외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 때 경남FC 선수들이 함께 타고 있어서, 엔젤 회원이라고 했더니 경남선수들이 엄지 척 하며 박수를 보내 엔젤로서 뿌듯했다고 하십니다. 언제나 묵묵하게 대구FC를 사랑하고 엔젤임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김현만 엔젤님, 감사합니다.

Angel Club SNS 접속방법



카카오톡 접속방법

QR코드 검색 또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1. 카카오톡 상단에 있는 🔍 검색창 터치
2. 검색창에서 **대구FC 엔젤클럽** 입력
3. 친구추가 버튼 [+] 클릭 후 소식 받아보기



인스타그램 접속방법

QR코드 검색 또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1. 인스타그램 상단에 있는 🔍 검색창 터치
2. 검색창에서 **대구FC 엔젤클럽** 입력
3. 팔로우 버튼 **팔로우** 클릭 후 소식 받아보기



페이스북 접속방법

QR코드 검색 또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1. 페이스북 상단에 있는 🔍 검색창 터치
2. 검색창에서 **대구FC 엔젤클럽** 입력
3. 좋아요 버튼 [👍] 클릭 후 소식 받아보기



대구FC엔젤클럽 임원단이 대구FC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대구FC가 걷는 **꽃길**을 위하여!



대영에코건설(주) 이호경 회장



세영회계법인 강병규 운영본부 상임부회장



(주)태준메디칼 엄태건 엔젤본부 상임부회장



(주)JID 김완준 엔시오본부 상임부회장



(주)에드앤피알스미스
이태훈 상임이사



(주)다원아이디
정영준 상임이사



뉴스웨이 대구경북본부
강정영 상임이사



(주)대영씨앤디
송원배 상임이사



(주)창성산업
정소영 상임이사

Diamond Angel

대구FC엔젤클럽, 대구FC와 영원히!



이재하
삼보모터스(주)



진영환
삼익THK(주)



조종수
(주)서한



정태일
한국OSG(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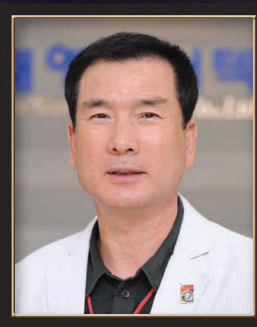
진덕수
대흥코스텍(주)



이익재
(주)세신정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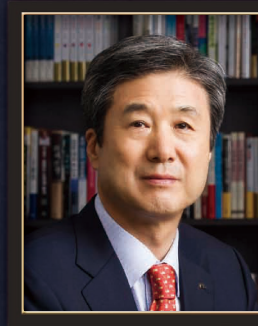
노기원
(주)태왕E&C



정태호
대영코어텍(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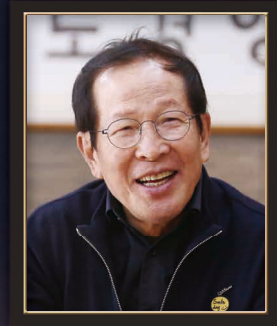
김동구
금복주



이충곤
SL그룹



백서재
(주)대영전자



권원강
교촌그룹



김상태
평화정공(주)



성점화
(주)뉴프라임



문경화
하얀얼굴예뻐몸매(주)로로피아니



박진현
(주)홀릭스

New Diamond Angel



김옥열
(주)화신



이기환
거한건설(주)

대구FC Angel Club 명단

엔젤클럽 자문위원			
성명	회사명	성명	회사명
권오섭	청구푸드시스템	송준기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지사
김성열	(주)아나	엄달현	대창엠코
김영채	안경회계법인	이병훈	대구 스텐레스
김충환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장익현	장익현 변호사 사무실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주대중	함창교육재단
도재영	주식회사 웅진기업	천자우	(주)에슬린
박명수	명진금속	하윤수	한국공조
박병구	대구미술협회장	하춘수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순복	대가대 미래포럼 리더스 클럽	허흥만	명성골프
반용석	반치과	장병배	상인성당

엔젤클럽 상임부회장		엔젤클럽 홍보사진자문단	
성명	회사명	성명	직책
강병규	세영회계법인	김흥만	엔젤클럽 홍보사진작가
김완준	(주)JID	박익진	엔젤클럽 홍보사진작가
엄태건	(주)태준메디칼	유병완	엔젤클럽 홍보사진작가

엔젤클럽 부회장			
성명	회사명	성명	회사명
권석원	동진건설(주)	신용범	한미산업
김재홍	대호약품	윤태경	바로본병원
김주성	광개토병원	이동경	(주)도원투자개발
김현만	서원종합건설	이승현	(주)동서개발
박해대	미래테크	조만현	(주)동우씨엠건설
배성혁	DIMF 조직위원장	황종길	성신내장건설
서정원	(주)대선		

대구FC Angel Club 명단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명	회사명	성명	회사명	성명	회사명
강민수	세영회계법인	구건우	PR네트웍스	김경태	리더스 금융판매
강민정		구덕모	중소기업 복지자원단	김고용	명종스틸
강병규	세영회계법인	구명임	(주)크린포시스템	김관식	더나은요양병원
강병균	에나멜치과 기공소	구미숙		김광덕	대구시 사격연맹
강병호	신경일염직	구본도	렉서스 대구	김광배	대영에코건설(주)
강보철	일진수지	구본택	스마일약국	김광수	한맥창호
강삼동	에이치	권경훈	강북연합정형외과	김국경	세영디앤씨
강성길	(주)디자인비전	권 광	행복을 심는 치과	김규일	세원이엔지
강성민		권대열	(주)부원	김규정	삼성생명
강신일	대영리츠건설	권병규	화인산업	김규혁	포워즈시스템
강윤석	주식회사 조안	권병균	행복을 심는 치과	김기섭	덕수복지재단 미소마을
강은주	한국일보	권상현	흥천사	김기완	
강의원	일신건설엔지니어링	권석원	동진건설	김기철	
강일규	대서산업(대서환경)	권성숙	결혼정보회사 바로연 대구지사	김기현	(주)기남금속
강일만	세신엔지니어링	권승진	인터볼고CC	김길복	대가대 미래포럼 리더스 클럽
강정숙	동재건설	권시원	중산도시개발	김길생	동화주택
강정영	뉴스웨이 대구경북	권 업	테크노파크	김남호	더원창호
강종구	현대코퍼레이션(주)	권연숙		김니나	세영회계법인
강준기	포머스	권영갑	EMS	김대경	
강철원	예일	권오길	한성건설주식회사	김대엽	(주)대영일루션
강태중	한도엔지니어링	권오복	(주)진명엘앤씨	김대진	
강해구	경민테크	권오상	변호사	김덕선	우진비철
강환수	(주)덕산코트랜	권오상	(주)대광솔라	김덕영	성서연합외과의원
건축사협회		권오순	(주)디에스시스템	김도현	(주)한국신재생에너지
고경아		권오춘	아름다운건설	김동국	DK 글로벌 코리아
고경집		권유미	서양화가	김동규	범서
고민환	상산건설	권일경	(주)위드	김동섭	대구가톨릭대학교
고백희	디자인 감	권장대	세화정공	김동연	우성디앤에이
고삼규	보광병원	권재원	아우노	김동용	
공영우	동성건재판매	권재행	한국다문화재단	김동우	World First
공윤옥	선진회계법인	권정미	S라인 포톤 테라피	김동읍	
공인옥	백향에스엔피	권주택	(주)갑산전기	김동재	골마켓
공제영	(주)신성건설	권준호	권준호 법률사무소	김동조	
곽기철	지우 씨앤디	권태경	태형기공	김만휘	(주)뉴욕바다가재
곽덕섭	(주)태명개발	권혁기	(주)산동개발	김말분	
곽동호	곽치과병원	권혁준	요셉 성형외과	김명수	대남건설
곽신혁	Eco Farm	권호겸	(주)풍림	김명용	명성
곽재환	중산도시개발	금윤식	골든브릿지	김명웅	DGB생명 AM사업부
곽재훈	운경재단	김갑태	동화주택건설	김명일	명일이앤씨
곽종준	메리츠화재(KMI에셋)	김강수	푸르덴셜	김명준	올플디앤씨
곽준성	삼성전자	김경록	신도대구사무기	김명진	한신타스가스
곽진섭	(주)금오조경개발	김경미		김무길	삼성전자 무비스 B2B

성명	회사명
김목진	대구서부지청
김미경	
김미숙	주원
김민석	서한
김민선	
김민태	제이와이 건설
김범대	미플러스의원
김범일	전 대구광역시청
김범현	한라이앤씨
김병렬	오성고속관광
김병오	필즈학원
김병찬	건축사무소한동
김봉찬	리치하우스
김상걸	미래새한 감정평가 법인 대구지사
김상덕	부경TS
김상도	
김상섭	티브로드 대구방송
김상섭	대구신문
김상수	청운신탁
김상수	히아브하나
김상완	한백종합기술공사
김상우	세무법인 대한
김상원	부호제어원
김상호	내일건설
김상훈	모던테크
김 석	삼덕아스콘
김석호	한도식품
김선일	상일종합관리
김성관	이슬나라
김성덕	소프텍코리아
김성렬	대성건설
김성률	
김성욱	유도리
김성은	(주)다무산업개발
김성준	지앤비 모터스
김성호	오상인터내셔널
김성호	성산종합건설
김세종	천궁산업개발
김세종	비즈니스컨설턴트
김송조	웰다잉토탈장례서비스
김송호	티브로드
김수범	성산종합건설

성명	회사명
김수현	한국청년회 대구지회
김수현	대성건설
김숙현	세원 공인중개사
김순덕	(주)신영도시개발
김순조	삼성생명COT
김승근	대구일보
김승우	KS상사
김승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김승필	삼성프린팅솔루션
김시보	백두산업
김시승	다원
김안순	화이트골드
김애경	
김양숙	교보생명
김양우	(주)티엔지코리아
김연창	
김영규	김영사종합상사
김영만	홀인원 로스트볼
김영숙	대구보건대학교 대외협력실
김영식	영진전공
김영식	굿락코리아
김영업	지디종합건설
김영주	주식회사 경북합판
김영준	
김영철	에스에스엘엠
김영택	일월건설
김영화	
김영희	구병원
김오동	명신종합건설(주)
김완준	(주)제이아이디
김외경	아미코젠
김용규	창녕참우축산
김용범	에스알
김용봉	와이쓰리
김용식	청맥산업
김용운	태하시스템
김용찬	(주)보광건설
김우일	김샘학원
김원수	세무사 김원수 사무소
김원은	우경정보기술(주)
김원희	동경Tour
김유석	늘봄심리치료연구소

성명	회사명
김윤곤	부성주식회사
김윤찬	CREDIT AGRICOLE investment Bank
김익수	(주)화산종합건축개발
김인수	대호화학산업
김인식	
김일권	삼성생명
김재범	선진회계법인
김재식	(주)디아이컴
김재엽	하우스탑디앤씨
김재우	삼일기업
김재우	대양정밀
김재율	(주)영림INT
김재필	주안
김재필	산록도시락
김재혁	잉글리쉬 유나이티드
김재현	삼성화재
김재홍	대호약품
김정달	현대동구서비스
김정미	멀티애드
김정수	경북대학교병원
김정수	김정수경영회계사무소
김정철	경북대학교병원 모발이식센터
김정현	백년밥상
김정희	김정희 건강피부관리실
김종구	로즈마리 여성산부인과
김종선	세광종합상사
김종원	금아의수족 보조기연구소
김종철	신흥버스
김종호	우인바스텍
김종호	케이원
김종환	메디피아이앤씨
김종훈	영남대학교의료원
김종희	김종희 플로라
김주성	광개토병원
김주현	(주)신안피피
김주형	웨딩쿨
김주환	경안플랜트, 경안솔라
김준현	지에이코리아
김준현	세무법인 대명
김준현	가람건축사무소
김준홍	대양포장
김중곤	인슈미디어그룹

성명	회사명
김중곤	ADT캡스
김지건	
김지관	(주)그린하니컴
김지미	(주)시마
김진기	영문산업건설
김진성	푸르덴셜생명
김진수	앤에이 골프
김진수	(주)천우
김진엽	송산엘앤씨
김진일	무창산업
김진태	팔공인터내셔널
김창식	경북합판
김창욱	새삼종합건설
김창호	
김창희	
김춘희	
김치호	도영건설
김태건	골프원
김태균	(주)에디커뮤니케이션즈
김태길	피앤에이
김태수	대구자동차정비조합
김태순	팔공온천 호텔
김태형	피앤에이
김태호	공간포유
김태훈	태경건설
김판권	명산
김한수	마이스산업연구원
김해용	인덕염공
김한만	서원종합건설
김현수	대호기업
김현숙	한국의학연구소
김현철	에이에이(주)
김형동	대구광역시
김형식	(주)동인전력
김호용	(주)건강누리
김호준	준 애니팜
김홍근	건축사무소 ADF
김홍대	한샘인테리어 전자관점
김홍석	디지털 신세기
김홍식	대경대학교
김홍식	TBC
김홍철	

성명	회사명
김환식	(주)한중 엔시에스
김휘중	
김홍만	엔젤클럽 홍보사진작가
김희곤	연세재활요양병원
김희동	크리에이티브박스디자인
김희찬	PEGDYCCO
나경성	엘리바덴 온천
나경윤	남부스타코
나상수	
나재승	모나코스토리
남경원	(주)경원덴탈
남규동	디에이치지(주)
남병환	
남재현	러버원
남호영	(주)청운이앤지
노규영	(주)명일품
노병수	영남일보
노승권	형산기업
노승희	SGI구미지점 미주대리점
노영균	안강삼성의원
노정섭	
노주호	대성아이디
노현영	코리아와이드경북
노혜영	
농협두류은행	
농협생명보험 대구지역총국	
농협손해보험 대구지역총국	
대한전문건설협회	
도건우	전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도문경	
도상현	
도원호	해성정공
도윤수	파사디골프
두준옥	
라병희	
류광열	원재산업
류시장	
류영애	세무사
류형우	대구예총
류효충	신라산부인과
류 훈	중앙세라믹스
모미영	

성명	회사명
문길남	신세계건설
문문문	디에스팩
문성균	홈스타홀딩스
문수영	
문순홍	찰스크라운코리아
문영일	태흥
문재혁	동아티오엘
문종혁	(주)동화건설
문준기	대경맥주
문현훈	덕영치과 기공소
문홍국	뉴부림고속관광(주)
문화갑	전 대구광역시청
민재철	뛰는 아이들
민춘홍	한국PIPE
박건철	
박경국	성우 아이디
박경식	이원의료재단
박경우	현창건설
박경진	헤나 씨앤디
박경환	변호사 박경환 법률사무소
박관식	명진BS치과
박근백	(주)엠엑스
박금화	서라벌대학
박기양	
박기원	아트건설
박기자	무영
박길상	남북의료기(DHC TOP)
박대진	이비팜
박동규	한국디자인 모형(주)
박동술	성동제통의원
박동천	박국투어
박두천	경북대학교병원
박두한	경북비닐마트
박래석	(자)삼우전자통신
박명규	(주)우진설비
박미경	삼성요양센터
박민주	
박민천	(주)다운PLUS
박병수	(주)동일스테인레스
박병욱	달인의 찜닭
박병준	에이씨보광
박상열	박상열세무회계사무소

성명	회사명
박석현	TBC
박성묵	대광문화인쇄
박성수	신화헬스앤드의료기
박성욱	(주)삼승BNC
박성준	
박성진	꿈그린
박성호	금강운수(주)
박성호	
박성훈	피닉스건설
박성희	AK메디
박세정	링크샵 커뮤니케이션
박소민	한국자유총연맹 여성협의회
박소이	미래테크
박순하	(주)코너스톤 자산운용
박승국	이시아요양병원
박승현	
박승환	(주)처갓집 통닭
박신영	하나무어
박신제	PSJ창업네트웍스
박언휘	박언휘종합내과
박영석	대구문화재단
박영준	삼성프린팅솔루션
박우용	대산라이팅
박우호	세영회계법인
박원득	한봉금속
박원진	가인건설
박윤경	케이케이(주)
박윤하	(주)우경정보기술
박은이	슈만
박익진	엔젤클럽 홍보사진작가
박인호	삼영이앤티
박재관	
박재범	
박재영	(주)헬시안디앤씨
박재현	신우씨앤티
박점희	플라워아트한국화원협회
박정기	일신종합건설
박정민	칸여행사
박정배	우방
박정희	
박종철	우일건설
박종호	삼정 종합 폐차장

성명	회사명
박종홍	금호개발
박종화	세보종합건설
박주현	대구과학대학교
박 준	게임물산(주)
박준곤	(재)송곡문화장학재단
박준규	이노커뮤니케이션즈
박준섭	박준섭 법률사무소
박중희	TS스틸
박지훈	고령축산물공판장
박 진	진보상사
박진숙	동일가구
박진우	효성종합건설
박진향	어번라이팅
박진환	유에이디
박찬력	경북봉투사
박찬원	문경시축구협회
박찬직	미성회계법인
박찬학	대구광역시
박창오	신화헬스앤드의료기
박창훈	선경산업
박철형	한빛에너지
박춘선	네네치킨 대구경북서부지사
박춘영	인터불고CC
박태민	뮤직라운지 펜트하우스
박태범	삼성생명보험
박태영	케이아이티
박태정	주원조경
박특환	박특환세무회계사무소
박한상	갑을상사그룹(주)
박한석	팔공 컨트리 클럽
박해대	미래테크
박해동	강북요양병원
박해연	유진재지
박현경	
박현욱	대구가톨릭대학교
박현주	장아푸드
박혜영	
박혜은	
박홍철	(주)신흥메탈
박홍식	NS디자인
박희경	도미니크
박희진	은성복어

성명	회사명
반정욱	미르건축
방용정	(주)로그
방우정	리더스
방천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구협의회
배경미	
배극중	씨앤비건설
배명수	근영토건
배문구	승창침장
배상원	상원종합식품, 오대양식품
배석우	에스와이하우징 대구경북총판
배성혁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배성훈	(주)성훈건축
배성희	고려아마하피아노
배영호	(주)영신에프앤에스
배우균	카이도 코리아
배인규	한남라이팅
배인호	성호건설
배장수	진명전력주식회사
배종길	IPM 코퍼레이션
배종찬	기성광고
배주락	(주)해성오피스탑
배창희	인덕텍스타일
배태관	백산자카드
배해민	(주)팔도에프씨, 토끼밀
배효삼	달구벌석건
백건호	경동BK
백경애	덕영치과기공소
백덕열	지오 종합건설
백무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백복현	
백순정	내추럴플러스
백승한	홍림
백영기	아름다운 사람들
백용환	미래테크
백운규	우림종합엔지니어링
백운일	백광테크
백을수	국제경호센터
백해자	동인간호학원
백현석	더블유병원
변창훈	대구한의대학교
변향숙	돈모닝 식당
변화곤	삼화건업(주)

성명	회사명
서기수	즐거운세상
서기승	동대구농협경제
서대구JC특우회	
서명수	가람컬리션(주)
서상인	
서상인	NCT
서상협	
서상화	현대개발
서성도	독일SEO 세오
서순옥	
서숙영	
서영규	이노치과
서영덕	색동가방
서용교	
서정우	신성기업
서정욱	광고회사 MSC
서정원	대선
서정원	효성그라비아
서종균	대경전력
서종환	(주)제일종합배관
서준덕	신세계영상의학과의원
서중호	아진산업
서찬곤	이하인바다
서찬교	대원전기
서철현	대구대학교
서태일	(주)에스티아이
서태현	산동개발
서형석	투썸플레이스
석경환	
석한수	(주)유에이건축사사무소
선명한	(주)썬이피에스
성경환	성경건설
성기원	(주)유창알앤씨
성달표	현대통상
성무용	
성병철	디자인USP
성부영	정일건설
성석훈	대덕건설
성수환	신영남산업 주식회사
성순화	피플라이프
성정용	신도시건설
소정호	미래테크

성명	회사명
손대권	DGB대구은행 시지지점
손동태	미래테크
손동현	동현케이블
손민호	동서가스
손병갑	로타리3700지구
손상명	신아개발
손상주	
손성태	성진포머
손수완	수경
손영훈	성도팩
손원배	태명악업사 태명헬스케어
손인락	
손인택	서한
손주달	(주)유원티이씨
손주옥	한국재무설계
손중배	유레카
손지영	삼성디지털프라자 수성점
손현구	스파이 앤 록 카케어
손형문	대진렌탈
송국영	태왕
송남희	본죽 시지점
송대선	
송미향	현대미주여행사
송석훈	우리연합의원
송원배	대영씨앤디
송정아	태양인 이제마 한의원
송정우	
송준호	한국PIM
송진오	아이에스메이드
송채은	
송춘희	아이투어
송해선	하나은행
송호정	(재)씨젠의료재단
신경우	부창솔라
신규창	신규창내과의원
신기영	ARSTOMA
신선영	대구미래대학교
신성철	(주)동원섬유산업
신성필	세양
신연화	밸런스워킹
신영필	주노캐피탈
신용범	한미산업

성명	회사명
신재열	안다미로
신재천	대구영화인협회
신정원	(주)한국센서 IT여성기업인회
신철균	다모 건축사
신철수	에나인더스트리
신현창	옥일디앤씨
신호철	플러스메드
신화섭	여행박사
신희득	(주)용성건설중기
신희영	보람회계법인
심건희	천지재건
심상형	
심왕국	대운포장
심인철	동명테크윈
안상영	(주)광진종합건설
안성용	앤디스코나
안용모	경일대학교
안유학	와이디자인랩
안조섭	미래테크
안종수	태권도협회회장
안준태	예진건설
안태현	태현전력
안홍윤	YH바이오사이언스
양대석	악령시 사람들
양승섭	대경
양승혁	인문사
양종호	현대자동차
엄경록	대철
엄관식	엄관식 수학교습소
엄복태	스타커뮤니케이션즈
엄용선	동네방네소식
엄재국	포맨
엄태건	(주)태준메디칼
여상훈	법무법인(유)클라스
여준혁	여성메디파크 병원
여태용	세계주류
예영숙	삼성생명
예춘호	요셉성형외과
오기우	엘리건스
오무선	OMS뷰티살롱
오순덕	
오재완	한국 키네티코 엔지니어링

성명	회사명
오정식	(주)다온산업
오진섭	오진섭세무사사무실
오택근	더좋은병원
우경호	제일약품
우덕구	(주)진성물류
이상현	더블유병원
우성진	(주)메가젠임플란트
우승민	스포츠와
우승수	
우영제	한영
우외태	유화 비엔피
우종곤	영인이엔씨
우주택	(주)명산
원동국	디케이아이러브동대문
유다건	경대 일어일문학과
유명상	대구한국일보
유병완	엔젤클럽 홍보사진작가
유효정	
윤경일	(주)글로벌에스피
윤귀자	삼성생명
윤남수	아석전기
윤덕근	침산올바른통증의학과의원
윤민환	씨애크이푸드
윤영만	
윤영수	우정건축자재
윤용득	교통시스템 연구소
윤종현	수성문화원
윤주석	주순개발주식회사
윤창섭	골든비
윤철식	(주)주성종합건설
윤태경	바로본병원
윤형돈	미래에셋대우
윤희영	디자인디오
은영기	한솔개발
의사회측구단	
이갑열	(주)상일종합관리-SL 산업개발
이강태	한국교통정보
이강하	산록로타리
이경곤	유성기초
이경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이경숙	(주)미식주
이경호	한길산업

성명	회사명
이경호	동대구신세계약국
이경훈	헤미리회원권 거래소
이관형	대원상사
이광해	아사다라
이기식	현대스텐
이기화	행복을 심는 치과
이다혜	
이대영	
이대우	기운산업
이대형	세계실업
이덕록	(주)서보
이도윤	(주)세광하이테크
이도희	대한주택건설협회
이돈관	(주)우수
이동경	도원투자개발
이동관	매일신문
이동균	군월드
이동명	자비스
이동섭	영남장애인신문사
이동성	홍맥 건축디자인
이동열	참좋은요양병원
이동원	변호사 이동원 법률사무소
이동원	현대자동차 앞산지점
이동현	우행주 건축
이동환	(주)폴도래
이동희	광덕전력
이두원	(주)DRK
이명욱	(주)이원
이명현	동광명품도어
이무철	금융기계
이문열	대신공영
이민화	백강
이민희	키친씨
이 배	
이병락	경북대학교병원 시설과
이병우	HOTEL 여기어때 대구역점
이병준	(주)남양산업개발
이복환	군민신문
이복희	광덕전력
이상길	대구광역시
이상섭	조아전자(주)
이상열	씨유킴퍼니

성명	회사명
이상탁	반도광학(반도옵티컬)
이상택	매일신문사
이상혁	(주)비토코리아
이상호	
이상훈	(주)화성이앤씨
이석우	삼진씨앤씨
이선찬	진성테크
이성구	마리아안임클리닉
이성구	대구의사회
이성도	주식회사 부광
이성동	금보건설
이성배	예가
이성엽	SL
이성욱	(주)부국철강
이성욱	웃는얼굴 아트센터
이성태	주식회사 풋살스포츠
이성하	BL 성형외과
이소윤	
이수동	(주)에스엠종합주류
이숙형	여행의향기
이승민	리알힐딩스
이승민	밸류마크 한경금융
이승진	나우산업개발
이승현	동서개발
이시연	DESIGN GROUP KHAN
이암우	옛밥사랑협동조합
이양구	(주)에코텍
이영순	
이영우	대광엔지니어링
이영웅	(주)디자인로움
이영준	선경건축자재센터
이영호	
이완철	(주)경상관광여행사
이용재	석문전기
이원영	평산개발
이원우	한은이앤씨
이원재	주식회사 핑거스냅
이원찬	아진산업
이윤성	대구동부순환도로
이윤희	그린사이언스
이윤희	미래테크
이윤희	한국알카리수 수성구 대리점

성명	회사명
이은수	
이은준	SJ힐딩스
이은호	대영건축사사무소
이용상	(주)한승계기
이웅찬	(주)건화
이인경	서울원복
이인선	대구경제자유구역청
이인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
이재남	DGB생명
이재덕	금성가구
이재덕	한국인의 밥상
이재익	가람테크
이재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재표	제이에프
이재혁	녹색연합
이재형	
이재호	한경회계법인
이재호	(주)한미인더스
이재훈	푸드원
이정미	아사무역
이정주	
이정현	현대자동차 대구중앙지점
이정훈	TPC
이정훈	(주)부성세라믹스
이종경	도원
이종만	미전커텐
이종복	삼해인더스트리
이종운	덕재건설
이종원	KOG
이종현	퓨리치
이주현	엘플러스
이주형	(주)엘컴
이준근	SSLM주식회사
이준철	태영전기
이준호	호신섬유
이중근	행정동우회
이중락	대구영화협회
이중원	원호금속
이중호	세신정밀
이지연	운경재단
이지완	명진BS치과
이지환	VIP응급환자이송센터

성명	회사명
이진백	지앤비 오토모빌
이진복	보람회계법인
이진수	(주)환경에이앤씨
이진호	풍산기연
이진환	삼원회계법인
이창근	극동1급정비공장
이창영	만촌1동성당
이창환	토담건축사
이창희	이코노식자재마트
이천기	국제자산신탁 대구경북지역본부
이충경	JUWEL J
이치우	대구음악협회
이철모	네네치킨 대구경북서부지사
이태현	법무법인마음
이태훈	애드애피알스미스
이필후	대구그린에너지센터(주)
이한일	드림병원
이해봉	(주)봄커뮤니케이션즈
이 현	(주)두강, 코디박
이현수	MG새마을금고
이현득	변호사 사무실 이현득
이형선	지성건설
이형원	일성침장
이형주	지엠 솔루션(주)
이호경	월드산업 주식회사
이호경	대영에코건설
이화선	화선(주)
이희도	아진주철
이희준	SGI 서울보증보험 대동대리점
이희채	이희채건축사사무소
인재현	
임건주	다운비엔에이
임광호	열린치과
임명섭	영남바론상조
임병욱	
임상택	위드고
임상훈	엔티엘 의료재단
임영미	DGB생명
임영태	농협 사월지점
임용규	
임재현	현대목재산업
임재형	원규

성명	회사명
임창광	KOG
임화자	예쁜유치원
임흥규	대평산업개발
장극윤	영진수예침장
장기석	주호산업
장기식	JCI
장기욱	연경반점
장기철	부강철강
장길화	(주)세안정기
장도미	Queens
장동렬	경산산업
장민우	대영금속
장병환	삼보이데아
장선윤	고문당인쇄(주)
장성욱	신창공업사
장성태	대한개발
장세주	한국포장산업
장세철	(주)고려건설
장수미	
장안중	석문전기
장연배	보광테크
장영자	(주)하이리빙
장용호	(주)나라산업
장우영	대구보건대학교
장욱진	화랑고무
장원규	화성
장원용	대구광역시
장윤제	장윤제연합치과의원
장재철	
장재태	
장재화	창녕참우축산
장정숙	지원환경
장정호	장정호 법률사무소
장종욱	아곰의 집
장철광	(주)유일
장팔술	
장팔환	부동산 개발 컨설팅
장혜정	백산부동산
장홍석	대원기계
전미조	효성복지재단
전병규	일신프라스틱(주)
전성근	SK반야월대리점

성명	회사명
전성렬	동양OA
전성봉	오케이포인트마트
전수근	삼명종합상사
전영호	팔공신탁
전용수	신동아관광
전용철	(주)근우정공
전익상	
전재관	
전재욱	(주)피플데이터
전종달	제이디 건설
전진길(영제)	(주)다원이앤씨
전태제	대구CC
전형노	메가미래라이프
정경용	민초심
정군섭	(주)대영산업
정규익	가구365.COM
정기욱	
정기은	분흥빛병원
정기출	삼성 대구법인지점
정모경	정원자카텍
정민교	대영모던텍(대영채비)
정병창	세종건설
정병환	대구광역시의회
정봉길	가조종합개발주식회사
정성인	GJ에셋
정성훈	(주)헬피니스(자기경영코칭학)
정소영	(주)창성산업
정수현	팔선생
정승진	한국OSG
정신유	(주)에이치디패널
정에스더	갤러리제이원
정연일	한패밀리병원
정연환	삼진이엔피
정영만	제이아그로
정영목	대한피앤씨건설
정영준	(주)다원아이디
정영철	제이스마인드의원
정용화	빠리바닷가제
정용화	(주)대서케미칼
정우필	서한
정원호	삼화봉재
정일균	(주)다운시스템

성명	회사명
정장화	주성안전기
정재간	대구대학교
정재석	주식회사 탐메디케어
정재호	초록들코리아
정정국	지엠이앤씨
정정아	국수꽃이피었습니다
정찬두	세기리텍(주)
정태경	대성건설
정택수	매일애드
정하용	동진특수인쇄
정한재	청운신탁
정현수	보곡이앤씨
정호균	메디피아
정호윤	건축사사무소청연
정홍표	홍성건설
조규현	건축사사무소
조극래	대구가톨릭대학교
조동희	향우회뉴스
조두석	애드메이저
조득환	(주)금강일텍
조만현	(주)동우씨엠건설
조민규	
조민성	동영염직
조병래	디자인해밀
조봉준	동일
조선웅	유마스팀 메디컬 그룹
조성수	에이엘테크
조승우	이지컴퍼니(주)
조영래	원형디앤씨
조영만	제이에이치
조용호	어펙시스템
조장형	나래파움
조정연	(주)대청디앤씨
조정욱	두손건축
조준근	대구광역시 학원 총연합회
조준호	태일
조지혜	제이커뮤니케이션
조철래	성지여행
조혁준	스카이 스투어디스 학원
조현수	한국케이블TV 푸른방송
조혜림	
주윤수	토정건설

성명	회사명
주진현	하늘나리
지용호	대한공조
진경훈	코앤큐
진광석	진성축산
진혜윤	보강디엠에스
차성범	(주)삼인프라임
차순봉	선우종합건설
차영규	민영산업
차영진	제일컴
차인석	대성엔팍스
차훈일	샘조롱 농업회사법인
천순화	퀸무역
천용구	가우
천종열	윤성건설
천종태	
천향구	연세클리닉
천해성	하림조경
최경목	수성정비센터
최경수	삼익테크
최고현	MBC
최규락	동양이엘
최길영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최대식	동경주산업개발
최동욱	한라개발
최두원	
최만수	인터불고CC
최명수	오성종합주류
최명환	정건사종합건축사사무소
최미경	법무사 최미경 사무소
최미애	뉴니케
최미연	DGB대구은행
최상대	화진기공사
최상무	오페라하우스 공연예술본부장
최석훈	남산병원
최선주	연호개발
최성문	크레텍 책임
최성욱	책임전력공사
최성종	통문어전문점(통문어가)
최성주	동진금속
최세욱	우경정보기술
최순미	(주)인터불고 여행사
최승규	한청지도자연합회

성명	회사명
최양원	(주)이루케미칼
최연판	KB국민은행
최영철	삼코
최영호	
최영훈	
최오원	이 렌트카
최용석	빠른감자탕
최용석	
최우각	대성하이텍
최우영	
최원식	건축사사무소 리더
최윤연	
최은미	대구세계합창축제 조직위원회
최은석	
최익진	풍국면
최인규	스마트아울렛
최인철	(주)에이스감정평가법인
최인호	명성티엠에스
최일경	명문텐탈
최일권	(주)현대중공업
최일식	
최재호	주식회사 골든크라운
최재홍	
최종춘	아인종합건축사사무소
최종태	솔트커뮤니케이션즈
최종택	세무사최종택사무소
최종해	동양종합건설
최주열	회원참사랑요양병원
최주희	
최준필	
최준혁	
최진오	한국디자인모형
최진환	(주)고려이앤씨
최창배	신항도시개발
최철환	광풍 퍼니처
최태원	대구축구협회
최한교	디스이즈모든
최해동	
최현희	아르데코무이
최호욱	(주)월성주택건설
최홍로	흥아공업사
추승철	

성명	회사명
추재엽	대영에코건설
추화엽	대성크린텍
코바체프	
태영경	
표병관	(주)지에스탑
하달용	삼건환경건설
하석배	계명대학교
하승우	하승우 내과
하정식	서보정밀
하제연(웅건)	레인보우스튜디오
하종범	
하충호	플러스컴
하태욱	에스크이앤씨(주)
하태준	영진종합건설(주)
하호만	(주)도원주택개발
한금재	(주)한국테크
한금재	케이프린텍
한도준	삼익키리우
한동근	의료법인해성병원
한동엽	방천시장 가족축발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상섭	대구 경상병원
한성교	(주)한빛 알앤디
한승훈	(주)유한상사
한영필	에스피코리아
한종건	바르미 호텔인터불고 대구
한 청	
한화용	금도에너지
함동호	에듀
허성규	우진시스템
허용훈	건화트렐러보그
허원희	HK GOLF
허정수	명진약품
허정호	(주)프리미엄에셋
허진걸	영산전기
허춘화	블랙앤화이트 대구점
허태조	한국산림보호협회중앙회
허필수	동성중공업
현대백화점 대구점	
현용환	(주)유성철강
현정규	(주)영진기공
홍기표	(주)에이플랜

성명	회사명
홍덕률	
홍민수	WOORAM
홍석준	대구광역시 미래산업 추진본부
홍석환	소방감리원 기술단
홍영돈	에스와이패널
홍영호	(주)바른로지스
홍장현	뉴영남인테리어
홍진수	세인트나인
홍철자	한국미술협회 서양화가
홍효정	세영회계법인
황세영	매천축산
황 영	푸르맘
황우곤	파인스트리트
황인혁	인성데이터
황재범	오리여인
황재철	노벨라스넵
황정철	제주소프링
황정현	성광전기설계사무소
황종길	성신내장건설
황주연	한솔해피니스 대구수성센터
황현호	인터테크주식회사
황현호	변호사황현호법률사무소

아름다운 대구·경북을 위해

금복재단이 함께합니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50억 후원
대구·경북체육성금 및 독도 후원금 지원
사랑의 쌀 지원 등 복지시설 후원
금복문화상 시상 및 예술인 후원

서문시장 화재 복구 성금 후원
포항·경주 지진 피해 복구 성금 후원
영덕 태풍 피해 복구 성금 후원
연말 따뜻한 동행 캠페인 성금 5억 후원



금복문화재단 금복복지재단 금복장학재단

경고·자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Come back



Jeon
MF 김선민

Photo by moon.park

Comeback

DF 김동진



대구FC엔젤클럽은 시민구단 대구FC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축구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결성된 뜻있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대구 전용구장시대 2019년에도 엔젤클럽은 다시 한 번 '대구시민의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시민구단 대구FC의 발전은 우리 대구의 발전과 같습니다.
대구FC를 명문구단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대구의 희망을 만드는 진정한 '시티즌 오블리주(Citizen Oblige)'의 실천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활동을 기대합니다.

가입문의

대구FC엔젤클럽 사무국
☎ 전화 053-602-7307
📠 팩스 053-602-7306

대구FC엔젤클럽 홈페이지
www.dgfcangel1004.co.kr

대구FC엔젤클럽 회원이 되면 매년 다음과 같은 의무가 생깁니다.

후원금 납부
- 다이아몬드 1,000만 원 이상
- 일반 100만 원 이상 / 자동이체의 경우 월 83,000원
- 엔시오 12만 원 이상 / 월 10,000원 ※ 엔시오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 자동이체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가 힘든 경우 일시납
(계좌번호 : 대구은행 505-10-166391-1)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엔젤 릴레이
- 릴레이 방식으로 추천

환경기 직접관람 응원
- 대구FC 홈경기 시 엔젤존 운영(DGB대구은행파크 W1, W2, W3)

각종 엔젤클럽 행사 참여
- 엔젤클럽 회원으로 대구FC 홍보 활동 적극 참여 권유

혜택

- 가입기념품
- 행사 참여
- 환경기 관람(후원금 액수만큼)

Angel Club 가입신청서

※ 가입번호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명				가입번호			
회사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상의 사이즈	
주소	※ 우편물 수령 주소						
E-mail				추천인			

후원 금액

- ☐ 월 83,000원 - 자동이체
☐ 1,000,000원 -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 1,000,000원 이상 - 사무국 문의

※ 후원금은 대구FC 계좌로 입금되며, 경비처리 관련 사항은 대구FC엔젤클럽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제 방법

☐ 계좌 이체 : 계좌번호 : 대구은행 505-10-166391-1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카드 결제 : 카드결제 시 사무국으로 통보바랍니다.

☐ 자동 이체 : 예금주 : _____ 생년월일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은행명 : _____ 계좌번호 : _____

개인정보 활용 동의

작성해주신 정보는 대구FC엔젤클럽 가입 및 혜택 제공 외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다.
대구FC엔젤클럽 가입을 위해 신청자 및 추천 대상자 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엔젤클럽 회원 추천

본인은 엔젤클럽 가입과 함께 엔젤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그 일환으로 주위의 뜻있는 분을 엔젤클럽 회원으로 추천한다.
※ 추천인이 있을 경우 엔젤클럽 사무국(아래 연락처 참조)으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사항

- 우편 발송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호텔 인터볼고 대구) (42064)
- 팩스 송부 : 053-602-7306, 메일주소 dauguangel@naver.com
- ※ 문의 사항은 대구FC엔젤클럽 사무국 ☎ 053-602-730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2019 대구FC엔젤클럽에 가입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FC엔젤클럽

2019 Daegu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대구세계합창축제

10.17 THU ~ 19 SAT
대구오페라하우스

- 17 THU 19:30** Rajaton 핀란드
아르스 노바 대한민국
- 18 FRI 19:30** Ligao National High School Voice Chorale 필리핀
The Archipelago Singers 인도네시아
ITE Show Choir 싱가포르
운경 遊(유)양상블 대한민국
애노을 여성합창단 대한민국
- 19 SAT 17:00** 광주여협합창단 대한민국
컬러풀 코러스 대한민국
프리소울 대한민국
조선유랑단 대한민국
하모나이즈 대한민국

Préparation | 프레빠라씨용

: 공연준비 완료

JANG YOON JEONG LIVE TOUR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

콘서트

2019. 12. 28(토) 3PM, 7PM

VIP석 13만원 / R석 11만원

호텔인터불고 대구 컨벤션홀 (만촌동)

공연문의 및
전화예매 053) 602-7116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 주최 : 대구MBC ▶ 주관 : 호텔인터불고대구

대구의 중심 광개토병원

GGT 광개토병원이 대구의 중심 반월당역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화상외과

중증화상 집중치료실
대구경북 화상치료를 위한 화상외과
(중증화상, 소아화상) 운영

GGT 클린 건강증진센터

초대형 소화기 내시경센터
100년 건강을 위한
클린 건강증진센터 운영



광개토병원
GGT GGT화상.com
GWANGGAETO HOSPITAL

대구시 중구 중앙대로 366

(반월당역 13번 출구 바로 앞, 3초 역세권)

반월센트럴타워 B1, 1F, 2F, 3F, 5F, 7F, 11F, 12F, 14F, 17F
주차는 메트로 주차장이 편리합니다. (최대 2시간 무료)

접수 및 안내

2F 1577-7597

